

#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일시: 2013. 8. 24. (土) 09:00~19:00

장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속기사 강혜인, 최슬기

## ○ 마이클 커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다섯 번째 날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UN에 창설기구로서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35번째 증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선생님을 모시고 고문, 가혹행위, 그리고 영양실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나오시는 동안에요, 저희가 어제 받았던 몇 가지 자료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서 전해주신 자료들은, 특히 첫 번째 자료는요. 한국전쟁납북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요, S23 증거물로 저희가 기록을 해둘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자는 영문본입니다.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에 증언과 지속되는 비극에 대한 자료물인데요. 이 책자는 S24 증거물로 저희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집은 한국전쟁 휴전 협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집은 한국전쟁 납북인사 조사위원회가 간행한 자료물로서 저희는 S25 증거물

로 기록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북한남북상황에 관한 회의관련 자료집은 S26 증거물로 기록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KWAR라는 제목인데요. 비자발적 구금 및 납치의 법적인 측면을 분석한 이 자료집은 S27 증거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007년 KWAR리포트 두 번째 볼륨은 S28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국제 언론 협회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말씀드린 6개의 자료집을 저희가 증거물로 채택을 하고 또한 한국전쟁 납북인사 협의회를 대신하여 증언을 해주신 분들의 말씀과 함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광일 선생님의 증언을 들겠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신변위협이라든지 다른 위험이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본명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진실 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김광일

예. 확인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북조선에서 태어나신 것 맞습니까. 북조선에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광일

1969년 8월 18일 생으로서 현재 45살입니다. 북한 함경도 회령시에서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금속단과대학은 청진에 있는 대학을 4년제를 나왔습니다. 나오고 여기 탈북 할 당시에는 제가 교화소에서 출소한 후이니까 출소 전까지는 5559라는 군부대 로무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한국에 왔을 때에는 몇 살이었는지요.

○ 김광일

마흔 살이었습니다. 2009년 2월 1일 날 입국했는데 마흔 살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성장하실 때 북한정부와

북한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 김광일

자랄 적에는 선전 받은 그대로 매우 허황적으로, 이상화 된 인물로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것들이 학생이나 아니면 선생님 가족, 다른 사람들이 북한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 김광일

감히 비판 못합니다.

○ 마이클 커비

감히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광일

말 그대로 북한에선 김일성, 김정일은 신입니다. 최고 권력자이고. 그들에 대한 그 어떤 비난을 했다간 그 사람인생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정치범 관리소 아니면 사형이겠지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재기되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아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감히 그 누가 비난할

생각은 못합니다. 속으로는 아마 의견이 많겠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종마네 표출하지는 못합니다.

### ○ 마이클 커비

2004년 중반에 중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버섯을 팔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국으로 갔지요.

### ○ 김광일

먹고 살자고 제가 중국으로, 송이버섯 철에 송이버섯을 좀 날려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일해서 먹을 쌀을 주고 돈 준다면 아마 내뿐이 아니라 중국으로 다닌 사람이 있고 했겠지요. 근데 어디도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주는데 없으니까 내 스스로 먹고 살자고 비법월경이라는 해가지고서 중국을 갔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1990년대 있었던 그 기아를 겪으셨습니다. 중국에 가기 1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아를 겪으셨는데 당시 상황은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 ○ 김광일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북한에서도 특별히 함경도는 94년도부터 대기근이 시

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하루 접소에 앉아서 죽은 사람이 관이 나가는 것을 4, 5구를 볼 정도니까 회령시, 우리 11만 4천명이 산다는 그때 공식집계 인구자료가 그랬습니다. 회령시에서 아마 하루에 제가 알기에 23개 리동이니깐 80명은 죽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관을 써야 되는데 관이 없으니까 칠성판이라고 있습니다. 칠성판을 서로 빌려갖고 죽은 다음에 묘지에 이장한 다음에는 그 묘비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없으니까 서로 다음 날 가면 묘비가 없었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1990년대 후반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나요.

### ○ 김광일

아마 조금; 96년도, 97년도까지 대기근이었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국경연선에서 스스로 중국을 다녔습니다. 아마 국경연선에서 회령시에 중국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대다수의 사람이 중국을 통한 밀무역을 하다보니까 중국으로 또 식량이 좀 들어 왔습니다. 그 덕에 북경지대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당시에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북한 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 김광일

당연히 알고 있지요. 233조 비법월경이라는 북한 형사소송법입니다. 거기에 위배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요. 내 뿐이 아니라 여기에 온 이 근 3만 명에 달하는 모든 탈북자들이 그것이 북한 법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만일에 체포된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김광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내가 죽지 않으면 교화소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죽겠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 안 지는데 내 스스로든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내 운명뿐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사람은 내가 잡히면 감옥가든가 지금은 심하면 사형 당할 것을 각오하고 건너갑니다.

○ 마이클 커비

근데 선생님께서는 처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에게 주

기 위해서 불법, 이러한 점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가신 것 맞습니까.

○ 김광일

그랬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쨌든 안전하게 중국으로 가셨고요, 그 송이 버섯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체포된 것이 맞습니까.

○ 김광일

그때 당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체포는 예견도 못하고 길을 가다가 역전 앞에서 불시에 체포당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체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북한에 돌아온 뒤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뒤에 체포가 되신 건가요. 당시에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북한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 김광일

당연히 알고 있지요. 233조 비법월경이라는 북한형사소송법입니다. 거기에 위배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내뿐이 아니라 여기 온 이 근 3만 명에 달하는 모든 탈북자가 그것이 북한법으

로는 위배된다는 것을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만일 체포된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김광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내가 죽지 않으면 교화소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죽겠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 안 지는데 내 스스로도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내 운명뿐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 책임져야 되겠으니까 사람이 내가 잡히면 감옥 가든가 지어는 심하면 사형당할 것을 각오하고 건너갑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처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에게 주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점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가신 것 맞습니까.

○ 김광일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쨌든 안전하게 중국으로 가셨고요. 그 송이 버섯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체포된 것이 맞습니까.

○ 김광일

그때 당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체포는 예견도 못하고 길을 가다가 역전 앞에서 불의에 체포당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체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북한에 돌아온 뒤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뒤에 체포가 되신 건가요.

○ 김광일

시간이 꽤 흘렀다고는 할 수 없고 아마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불일을 보려고 지나가는데 역전 앞으로 지나가는데 아마 여기로 말하면 경찰이 3명이 급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포당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체포당할 당시에 왜 체포가 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까.

○ 김광일

이유를 설명 안 합니다. 여기서는 체포될 때 미란다 원칙에 의해 다 설명하지만 그 어떤 설명이 없이 무조건 그 수갑을 채웁니다.

○ 마이클 커비

체포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디로 데려왔죠.

○ 김광일

북한도 형식상 공민을 체포하자면 검찰서에서 체포령장이 발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포령장이 발급되는 그 수순은 대개가 무시당하고 일단 잡아놓고 봅니다. 잡아놓으면 북한도 공민을 취급하자면 구류보존처벌이라는 것이 내려야 됩니다. 구류보존처벌이라면 여기서 사건이 제기된 게 있으면 사건이 제기 됐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이게 엄중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심의를 한 다음에 체포령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심의기간이라는 것이 없이 그 심의할 동안 사람을 구류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구류시키고 체포령장이 발급되어서 구류시키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이 즉시 구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법적절차가 없이 구류장으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재판을 받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광일

예.

○ 마이클 커비

그 공식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일

1심이 다 끝나고 사건이 종결되면 이 사건에 대한 법 처리가, 법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말하면 법원입니다. 검찰에서 법원에다 의뢰합니다. 그러면 재판날짜를, 재판, 북한에서 재판소라 합니다. 재판소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해 9. 11.날 재판날짜가 정해져서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체포당하고 언제였나요. 재판날짜가 언제였나요.

○ 김광일

2004. 9. 11.날입니다.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9. 11.날 , 2004. 9. 11.날이 재판 날이었지요. 재판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재판을 법원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구금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 받았나요.

○ 김광일

명칭으로 회령시 인민재판소에서 받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은 것인가요.

○ 김광일

아니요. 버스를 탄다고 간다면 너무 호강이죠. 수갑을 채운 채로 경호원, 그 경찰이 3명이 머리를 짝 깎아놓고 거리로 행진, 그걸 끼웁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얼마동안을 걸어야 했었죠.

○ 김광일

30분을 견게 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인민재판소로 갔을 때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았나요.

○ 김광일

재판받으러 가기 하루 전날에 형식상 변호사가 와서 “내일 재판한다.”하고 알려줍니다. 통고를 하면 그다음에 호송원들에 이끌려서 재판소에

도착하게 되면 조그마한 칸에, 인민재판소 그 조그마한 칸에 형식상 재판형식을 갖춰놓고 정면에 북한 국장과 인공기가 2개 내려들고 인민재판소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관들로서는 재판장 1명과 그다음에 검사 1명, 그다음에 변호사 1명,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여기 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식으로 인민 참심원 2명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5명이 재판, 재판장을 이루고 재판을 구성하게, 이루게 됩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을 변호할 사람이 있었나요.

○ 김광일

아니요. 여기 말하면 국선변호사라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용어도 쓰지 않고 재판소마다 1명이나 2명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판소 직원으로 있는데 그 변호사라는 건 법에서 시켜서 형식상 재판을 구성하기 위한 변호사지. 그 어떤 범죄인,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한 변호인은 아닙니다. 형식을 유지하기, 구성하기 위한 변호인이죠.

○ 마이클 커비

어쨌든 이런 형식은 갖춰졌었던 거네요.

○ 김광일

예.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선생님이 법원에 하고 싶었던 말을 그 변호인, 형식상이라도 있었던 변호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재판을 받기 전ですよ.

○ 김광일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받았던 그 절차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일

정당했다고, 그거는 정당할 수가 없지요. 그저 오직 변호사가 물은 것이 나보고 뭐 물어봤는가. 당신 집안에 비행사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 없다 했어요. 잠수함 타는 사람 있는가 합니다. 없다 했어요. 그다음에 특수부대 출신 있는가. 특수부대라면 아마 이 대남 공작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있는가 하더라고, 없다 했어요. “없으면 내일 재판해.” 끝입니다. 이 의도가 뭐인가. 북한에서는 이제 비행사, 잠수함, 특수부대에 중사하는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있으면 살인죄도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면 오로지 그것만 묻고 다른 건 물은 것이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어떤 죄목이 주어졌지요.

○ 김광일

그러니까 233호 비법월경죄와 117조 비법밀수죄의 2개로 북한형사소송법입니다. 2개로 죄명이 되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재판관에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유죄다 또는 무죄라고 말을 할 수는 있었나요.

○ 김광일

재판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요. 검사가, 검사의 논거에 그래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들끼리 합의 봐서 이 사람 몇 년 주자, 이 사람 몇 년 주자하는 식으로 판결만 내리지 피의자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는가, 없는가 문의 아이합니다, 북한에서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고를 받으신 거네요.

○ 김광일

예.

○ 마이클 커비

몇 년형을 받으셨나요

○ 김광일

6년형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정치수용소로 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보통 체포되는 곳으로 보내지는 건가요.

○ 김광일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까. 교도소에 가는 걸로 되겠습니까.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교도소로 끌고 갔나요

○ 김광일

10일 간의 항소기일을 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개 그 항소기일에 항소를 아이합니다. 좀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항소하면 항, 그러니까 법에 맞섰다고 보복적으로 10년 형이 15년 되든가 15년 형 같은 거는 사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항소할 궁리를 안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오히려 항소하면 오히려 더 형이 길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누가 말씀해 주셨지요.

○ 김광일

아, 저희 때 인신매매로 체포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심은 근 6달 받았는데 그 사람이 15년형을 받았습니니다. 15년 형을 받았는데 아이, 내 편안히 말씀드린다면 중국 그 여성분들이 가겠대서 내 보내주고 거 간에서 거서 돈 좀 받아 챙겼는데, 수수료 챙겼는데 이거 팔아먹은 것도 아인데 팔아먹었다. 좀 억울하다. 그리고 중앙재판소에다가 상소하였습니다, 상소문 써서. 그런데 그게 중앙까지 가지 않고 말단에서 다시 재판해서 사형으로 판결되어서 그 사람이 제가 구류장에 있을 때 사형 당했습니다. 죽기 전날에 옆에서 밥 먹더라고요, 죽기 전날에. 그래서 “밥이 넘어가?” 하니까 “아무래도 죽을 거.”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첫 재판에서 15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항소했다고, 말로는 항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항소했기 때문에 가형을 해서 사형에 넘긴다. 이렇게 봐야지만 내막적으로는 법에 맞섰다. 다른 사람한테 그 가족들을 통해서 공포감 주느라고.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15년형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소하였다. 상소하였는데 후에 사형으로 넘어졌다. 하게 되면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앞으로 그 어떤 항소



도 못하고 법에 순순히 복종하여야 됩니다. 그런 묵언의 암시를 북한이 하였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은 궁극적으로요. 이게 전거리 교도소 쪽으로 보내지셨지요.

### ○ 김광일

예.

### ○ 마이클 커비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전예요. 예, 그 전에 그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그런 일들이 선생님한테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 ○ 김광일

아무래도 경찰 예심과에 예심 된 기간에는 예심조서를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의도대로 피의자들이 진술 안 하게 되면 자기 바라는 의도를 진술시키려고 폭행이 아무래도 자행되었지요.

### ○ 마이클 커비

뭐라고 진술하기를 원했었나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쓰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사실 중국으로 가셨던

거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셨던 것은 제가 알고로는 233조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처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 어떤 진술을 쓰기를 원했던 것인가요.

### ○ 김광일

233조는요, 북한 형사소송법에 길어서 6개월부터 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비법밀수는 그 범조항에 최하 4년부터 사형까지 적용됩니다. 제가 비법밀수로만 갔다면 2년 안 채우고 한 5달 제가 교화살이를 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해서 북한에서는 대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주년, 5년 한 번에 꺾기로 하여서 다음 해가 내가 2004년도에 9월 20일 날에 교화소에 입소하였는데 입소하였으면 그 다음해 2월 16일이면 김정일 생일이 돌아와서 정주년 대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제가 2년 먹고 갔다면 3년 대사를 받으면 금방 출소하게 됩니다. 제가 출소하면 살아나오겠지요. 살아나오면 내 부당하다 억울하게 내 감정 있는데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리가 작용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도 그런 심리는 그 어떤 사고가 유발될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죽여 버리자, 하니까 비법밀수죄 제일 작아서 4년부터 사형까지에 이르는 비법밀수죄 117조를 저한테 첨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이를 딱 한번 밖에 아니했고 해도 두만강역에서 군인들 시켜서 했길래, 물론 내가

참여를 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때문에 비법밀수는 성립될 수 없다, 길안 내가 성립된다, 길안내라는 게 비법월경이나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비법밀수다.” 해요. 그들은 내가 살아나오고, 대사를 받고 빨리 나오든가 또 형기가 적어서 살아나오면 안 될 이유가 있고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형기를 많이 넣자니까 비법밀수에 첨부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안내다. 역시 이거는 223조에 해당하지 11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분들은 예심과에서는 무조건 117조 비법밀수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이면 충분할 죄가 6년형기로 붙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폭행이 아마 진행되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전거리 교화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처벌, 그리고 수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행위가 들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비슷한 그러한 폭력들을 구류장이라든지 나중에 교화소 또는 이런 곳에서 가서 받은 폭력행위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던가요.

### ○ 김광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묘사를 못했다 뿐이지 이것보다 실정은 더욱 처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왜 이쪽에서는, 아까도 설명해 주시기는 했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 ○ 김광일

좀 이런 장소에서 말하기 그런 사정이지만 제가 출신이 북한식으로 하게 되면 좀 나쁜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 동경대학 다니다가 58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핵심계층, 기본군중, 그 다음에 동요계층, 우리는 동요계층에서도 적대분자로 됩니다. 다 차단.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텔리한 고급한 기능을 가지고서도 북한에서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집안은 자식들도 대대로 출세를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 것이 많고 그렇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할지언정 나라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런 집안인데, 좀 진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 이제는 집사람도 아닙니다. 이혼한 우리 처는 인민군 중대장 출신입니다. 대위이고, 그리고 우리처남이 북한에서는 아마 충성과 계열에 속합니다, 핵심군. 어쨌서 그런 가, 한국에서 많이 인권운동하시는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는 회령 22호 정치범 관리소 보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령, 여기말로 하면 소령이겠지요. 보위과는 북한에서 흔치 않는 승용차를 공급하는 편제입니다. 보위과 직원들한테만. 그리고 우리처남들이 둘이, 하나는 여기 또 경찰입니다.

하나는 여기 국정원, 한명은 여기 경찰, 그 다음 사촌 또 처남이 또 경찰에서 고위급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충성과 집안인데 출신이 정말 좋은 집안인데 저하고 결혼하게 되면 처남들이 발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결혼까지는 갔습니다. 갔는데 그 후에 파장은 더욱 거셌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처갓집 쪽은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불가피 갈라놓아야만 처가 쪽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 작용이 제도적으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이 성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평등성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이론에서는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성분이 있다는 것이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사실 그 배경출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 김광일

북한은 무계급사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무계급은 아닙니다. 형식상은 무계급 사회라 했고. 그런데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

은 변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45년도에 해방되고 지주자본가 출신들, 친일파들 철저거의 철저거 제거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 땅, 자기공장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꼭 호시탐탐 우리정권을 맞서 잡아먹을 것이다, 이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철저한 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 때로부터 자기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맹종맹동이라도 북한정권을 따라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핵심계층으로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여 그런 사람들을 정권기관들과 행정기관들에 앉혀서 밑에 사람들을 제약, 통제를 하자고 하니까 그 핵심계층을 제대로 대우해서 내세우고 그다음에 기본군중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군중이라고 하고 핵심계층들이 포섭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거는 아마 동요분자에 적대계층이니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해야만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때로부터 형식상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적으로 군중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 시스템에 따라서 핵심군중이 기본군중을 장악하고 기본군중에 의하여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이 제약받고 아마 북한체제가 내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로부터니까 출신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출신이 나쁜 사람을 기본군중계열에서 핵심군중계열로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느 때 무슨 생각할지 김일성이 말하듯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이 그 어떤 반당적 북한식으로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대단히 나쁘겠으니까 너는 어디까지이다, 너는 어디까지라는 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계선이 핵심 계층, 기본군중, 적대 동요계층 이렇게 3가지로 크게는 출신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나중에 교도소에 들어 가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 ○ 김광일

제가 9월 21일 날 교화소 입소하니까 첫 보였던 광경은 이것이었습니다.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도주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게 교화소 첫날 입소할 때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말하기 그렇지만 분노를 어깨에 지고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은 시체를, 여기로 말하면 리어카에다 몇 구 실어가는 그 광경을 제가 입소한 첫날에 목격하였습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근데 이전에 구류장에 일이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지금 보여 주신 사진은요, 그림이지요. 이게 북한의 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증언과 관련된 그 책 1권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여 주고 계신 것이지요, 선생님, 맞나요.

### ○ 김광일

예.

### ○ 마이클 커비

제가 그 책의 인쇄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증거물 S29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광일

이거는 교화소 가기 전에 구류장에서 당하는 고문입니다. 벽돌지고 서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릎 부분인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밑에다 술잔을 놓습니다. “술잔에 물찰 때 까지 서 있어라.” 이거 아마 20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오토바이 탄 자세랍니다. 오토바이 탄 자세는 오토바이가 밑에 있다고 상상하면 다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낮추고 두 손 펴고 오토바이 앞에 핸들 잡은 식으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부동으로 서 있게 되면 금방 또 다 쓰러집니다. 하나는 제트기자세라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작을 취하고 있어라, 한쪽다리를 몸 앞으로 하고 팔을 날개처럼 펴고 있어라.” 그러면 앞으로 다 쓰러져요. 이거는 뭐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류장을 겪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당하시는 일입니다.

### ○ 마이클 커비

고문을 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 김광일

진술시 그 예심원들의 의도대로 제대로 진술 하였을 때는 예심원 자체가 구타하고는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서 구류장 교양원들한테 점찍어서 죄수번호 몇 번, “저 사람을 교정 주라.” 이렇게 암시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예심원들이 그 죄수에 대해서 교정을 시작합니다. 교정이라는 것이 고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구류장 질서를 위반했다 해서 또 고문이 진행되는데 구류장 질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침 다섯 시 반에 기상합니다. 30분 동안 청소정돈을 하고 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무릎위에 손을 올려놓고 저녁 10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형식상으로 45분 교정 하고 있고 15분의 휴식이 있다하지만 대개가 무시당하고 3시간, 4시간 지금은 5시간까지 부동자세로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뼈가 다 굳어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다리세우고 하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구류장 교육을 위반했다하여 진행되는 고문이, 처벌이 이런 고문형태로 진행됩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이러한 고문을 받으실 때 얼마까지 버티셨습니까.

### ○ 김광일

저는 한 20분이나 버텼을까요. 제가 당할 때는 오토바이자세를 하고 그 앞에다 술잔을 갖다

놔요. “그 술잔에 네 땀방울이 다 찰 때 까지 서 있어라.” 못 서었습니다. 땀은 진짜 비 오듯 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해도 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 고문을 당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 ○ 김광일

고문을 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고문 당하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까지. 그다음에 그 경호원이 마음이 “됐어. 그만 뒤.” 할 때까지 그냥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비둘기고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분들은 비둘기라는 말을, 비둘기고문이라는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두 손 뒤로하고 철, 철창에다 이렇게 거꾸로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비둘기처럼 가슴이 불뚝 튀어나와요. 그런 데서 비둘기고문이라고요. 이런 상태로 구타가 진행됩니다.

### ○ 마이클 커비

지금 발은 바닥에 있는 건가요. 발은 바닥에 있고 손은 지금 뒤로 묶여진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토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광일

예.

○ 마이클 커피

그리고 이러한 자세 자체가 지금 고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자세에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다른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나요.

○ 김광일

이 자세 자체도 고문입니다. 혹독한 고문인데 이 자세, 자세에서 무차별 구타가 차려집니다. 예 심과정에 제대로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먹은 거 속이 울렁대서 토할 건 뻔하고 피 터져나가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 마이클 커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김광일

다 쓰러집니다. 이 사람들은 졸도하기가 십상입니다. 졸도하게 되면 감방 구석에, 구류장 감방 구석에 잠시 깰 때까지 눕혀놨습니다.

○ 마이클 커피

이러한 고문은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든 사진으로 본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사진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일본 제국주의에서도 있었던 고문형태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형태의 고문이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까.

○ 김광일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를 가봤다니까 제가 이 북한에 있을 때 서대문 형무소가 개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일성조차도 6.25 때 서대문 형무소가 그렇게 악명 날렸기 때문에 6.25 때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그곳입니다. 남한에 와서 제일, 제일 처음에 찾아간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다 돌아봤어요, 제가. 다 돌아보니까 무엇무엇이 딱 따르니까, 북한하고. 간 고문, 세워 놓고 산 사람 간에다 딱 해놓는 고문. 그다음에 이 못, 못 있는 철통에 여론 거 내놓고 그 서대문 감옥이 교, 교화시설, 교정시설이 북한보다 전 거리보다 나왔다. 구류장보다 나왔다. 내 이랬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 정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 당하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내 감히 말한다면 서대문 형무소가 북한 전거리 교화소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그곳입니다. 북한은 일제 때 고문기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랄성에서는 서대문 형무소를 능가합니다. 내 정말 먼저 간 열사, 그 형무소에서 옥사를 당하신 분들, 고문당하신 분들, 많은 분들 북

한에서도 기억하던 사람들도 거기서 조봉암 선생, 유관순 열사 다 봤습니다. 영혼, 영혼단련실에서 가서도 내 한참 서 있었습니까. 여기서 무참히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겠나 하면서도 내 감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전거리보다 못하다. 교화시설이, 교정시설이. 그리고 고문, 북한에 고문 기구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악랄성은 북한이 더 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떠한 처벌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혹행위들은 얼마동안 이루어졌습니까.

### ○ 김광일

저희가 사실 재판 받기 전에 저를 예심한 사람이 그래요. “당신 교화 갈 죄가 아니다. 아닌데 할 수 없다. 알겠는가.”하더라고, 의미심장하게 묻더라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내가 왜 교화가야 한다는 걸, 안 갈 수도 있는 죄인데, 기껏 처벌당한다면 6달이라는 그 단련대, 강제노동하면 될 텐데 제가 나는 가야 한다는 걸 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구류장에서의 고문은 제가 이제 말한 것이 정확한 묘사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행되고 된 것이고 교화소에서는 기본 이루어지는 것이 폭행도 이루어지지만 굶주림이, 항시 굶주림의 연속과 사고, 사고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질병 이

래서 사람들은 아마 무리죽음으로 나갑니다. 아마 여기 교도소에서 사람 죽었다든 언론에, 사회 금방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임수경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교화소에 가본 사람 있는가, 사람 못 갈 곳이다. 나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남한 교도소에서 굶어죽은 사람 있고, 병들어 죽은 사람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질병, 구타하고 교도소는 항시적인 굶주림, 사고 이게 4대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마 이 죽을 때는 제 겪은 거만 말하면 제가 11일 이 번에 있을 때 8명이 죽어나갔으니까요.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11일 있었는가요. 11일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사진이 있으십니까.

### ○ 김광일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구류 교화소 실상입니다. 교화소에서 살다난 그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다 옵니다. 영양실조 오게 되면 이 서, 서 있는 사람이 교화소는 그렇습니다. 북한 교화소는 170 넘어가는 사람은 살아 못 나온다 해요. 왜소, 키 큰 사람은 허약에 쉽게 든다고 제가 175니까 아마 살아나온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덕에 살아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교화소 밥으로만 연명하게 되면 석 달이면 허약1도에 빠집니다. 허약1도는 여기, 여기

손이 들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허약판정 기준은 “돌아서라. 바지 벗어라.” 합니다. 바지 벗으면 그 엉덩이 벌어진 짬을 보고 허약기준 판정합니다. 무게도 안 떠봐요. 그래 되면 손이 들 갈 정도면 허약 1도입니다. 그 상태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 못 가서 허약2도가 됩니다. 허약 2도면 주먹 세운 거 만작 엉덩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하면 보름이면 금방 허약 1도로 넘어갑니다. 허약 1도로 넘어가면 아마 다 죽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표기한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허약1도 상태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있는 사람이 허약2도 단계고 옆으로 많이 이쪽 뒤에 팔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허약 3도단계인데 이 정도는 살아 못 나옵니다. 다 죽어요. 제가 있을 때 교화소에서 아마 제일 마이 죽는 율이 질병과 허약입니다.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이것은요. 그 많은 가혹행위를,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아니면 일부러 교화소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허약하다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고문을 너무나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약해진 것인가요.

### ○ 김광일

구류장 시설에 대개 허약 걸립니다. 구류장에

서 급식은 어느 정도인가, 양은 약 80g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류장 규정은 한 끼에 100g이라 했는데 뭐 잘못했다 하면 감식하라. 그 밥도 줄여줍니다. 그다음에 일체 찬이고 뭐고 이런 건 없으니까 거기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 돼지도 여기 돼지도 그런 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그 돼지들이 그런 거 안 먹는데 썩은 오이 이런 거 툭툭 잘라서 소금도 없습니다. 물에다 그저 끓여주는 거 그것이 답니다. 그런 걸 먹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을 잘못했다면 체벌한다고 감시하라. 한 제가 봤을 때 그런 애는 한 끼에 50g 되나마나 한 걸 먹다나면 구류장에서 저는 두 달 있었지만 6달 있기 때문에 다 허약 걸립니다.

그래서 교화소에 정작 입소시키자 하면 북한도 형식적으로 교화소에 입소할 때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체검사에 통과할 사람이 법대로라면 제 보기에는 10명 중의 2명도 될 것 같지 않는데 북한은 다 신체검사 합격이라고 통과시키는데 정 한심하게 된 사람들은 교화소에서도 못 받겠다 할 정도로 구류장에서 1차로 다 허약에 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화소에 가게 되면 노동력이,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높지. 항시적으로 못 먹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요 규율생활을 하지. 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압박, 항시적인 굶주림 속에 금방 허약1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집에서 면회라도 없으면, 면회 있는 사람은 좀 괜찮습니다. 그



런데 면회가 없으면 방치가 되죠. 금방 2도가 되고 그 2도에서 3도로 넘어가는 건 보름이면 됩니다. 15일이면 그 사람 그다음 다음 나와서 죽어요. 이 그림은 내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뱀이 나타납니다. 서로 먼저 잡겠다고 날뛸 겁니다. 아마 이 객석에 계시는 분들은 끔찍하실 것입니다. 지나가는 뱀을 손으로 잡아먹는다 하게 되면 너무 끔찍해 못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잡는 사람이 그거 먹으니까 너도나도 달라 들어 먼저 잡습니다. 이게 너무 굶주림 때문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화소에서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 원래 교화소가 800명 수용 능력이랍니다. 전거리 교화소가 그런데 제가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있을 때 2,400명이었습니다. 지금 여자 교화소까지 증설되다 하니까 근 4,000명이 수용됩니다. 800명 있을 데에 4,0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 방에 14명이 자야 할 데에 차수리반 같은 거는 140명이 잡니다. 우리 같은 데는 70명 낮습니다. 60~70명. 생각을 해보세요. 17명 있을 곳에 60~70명, 많은 곳에서는 140명 잤습니다, 차수리반은. 이렇게 자다 보면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마니 바로 누워 잘 수가 없으니까 모로 누워 자게 합니다. 옆으로 누워, 돌아눕고 자게하고 내 발 위에 다른 사람이 머리가 오고 내 머리에 다른 사람의 발이 오게끔 툽날 잠을 잡니다. 열기설기 자게 합니다.

그리고 양 줄에 눕혀놓고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서서 두 시간에 한번 씩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감시를 합니다, 누워있는 수용자들을. 왜 저래 감시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인생 막바지에 가서 치달을 대로 다 치달았습니다, 이 심성이. 그러니까 죽겠다고 자결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살 막자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서로의 폭행이 혹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개 뭐 먹을 거 훔쳤다, 어쨌다. 그 폭행이 허약한 사람들 한 대 치면 죽어요. 쉽게 말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10명씩 딱 직선 맞춰놓고 내가 한대 치면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허약하기에 사고가 나면 금방 죽음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경비를 세웁니다, 2명을. 그 경비를 두 시간에 한번 씩 하룻밤 8명이 아침 5시 반까지 경비를 세우며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겨울에도 여름은 더구나 그렇고 한겨울에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더워서 입고 못자요. 다 벗고 자요. 벗고 자게 되면 이게 위생 환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분들은 아마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내 그저 상스러운 말을 한다면 똥구덩이에 산다. 이렇게 말하면 적중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든 이런 위생 상태에서 벗고 자다 나니까 누구 한명이 뭐 옹이라든가 이런 병이 생겼다면 순간에 확산됩니다, 전 감방에. 기리몬 그 감방에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여기는 그 용어가 없던데 ‘파라티부스’라는 열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이 겨울에 1명한테 발생되든 그 방 전체가 파라티부스 순간에 확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무리죽음으로 이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교화소에서 병이 났다 하게 되면 그 어떤 치료대책이 없습니다. 북한 교화소도 군의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죄수로써 된 의사출신 위생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약재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났다 해서 혹시 면회자들로부터 받아드린 예방약이라 하게 되면 주사바늘 한대로 한 개가 200명을 다 찔렀다면 여기서는 그 의사를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 과가 2개과 3과, 2과가 합했는데 500명이 넘었습니다. 위생원이 한명인데 하루아침에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것이 그 주사 한 대로, 주사바늘 한 개로 500명을 다 찔렀습니다. 여기 의료기관들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 사형 했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염병이 치료대책이 없으니까 열병에 그저 가둬놓습니다. 나오면 낮고 죽으면 죽으라, 제가 11일 있었습니다. 11일 동안에 아마 교화소에서 밥맛을 잃으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항시 굶주려있어도 밥 못 먹을 때가 제 경험에 이때였습니다. 열병에 들어갔을 때 못 먹었는데 교화소에서도 밥 굶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중국 옷이 좋은 게 있었는데 좀 편안한 옷 그 옷 달라서 제가 눈치 못 챘어요. 그러니까 내 살아야

졌다고 밥 날라주는 사람이 그 옷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교화소에서 바꿈질 하게 되면 처벌 받는다고 못했어요. 못했어, 내 이래도 저래도 죽겠는데 이 생각에, 야, 그때 생각하니까 좀 별나네. 죄송합니다. 잠시 만요.

###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 물 한잔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천천히 추스르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마음을 추스르시고요. 북한당국은 북한 내에 북조선 내에 이러한 정치범수용소라든지 교화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라든지 이런 북한당국이 북조선내에 정치범수용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김광일

북한은 일반 교도소는 인정하지만 정치범교화소는 없다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인하는데 우리처남이 거기 보위과에 있습니다. 보위과는 정치범교화소 실세입니다. 저 사람 죽이겠다면 죽여요. 상부로부터 어떠한 사람 어디 실험으로 보낸다 하게 되면 보위과에서 결정해요. 수많은 죄수들 중에 저사람, 저사람, 서류를 보고 이게 적대분자구나, 이게 어떤 놈이구나. 이래 보고서 여기서 어떤 부류로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착출하라면 보위과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처남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 무서운 일입니다. 그 22호소 안병철이 와있지만 그 우리처남 밑에 있던 대원입니다. 정치범교화소는 북한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을 계속한다면 그때 살아난 것이 그 옷을 주고 된장 한 숟갈 받았어요. 내가 그 바꿈질 했다는 게 경찰들한테 걸렸더라면 아마 내 가중처벌이 돼서 아마 죽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 된장 한 숟갈 금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살아났어요. 11일 만에 나오니까 아마 사회 사람들에게나 나를 훑게 했다 봤다 하면 똥독이 완가 했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 똥굴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질병으로 사람 죽어 나가는 실례에서 제 실례를 든 것이고, 이것은 북한이 전거리가 산입니다. 높은 산. 북한에서 한반도 백두산이 제일 높고 두 번째 높은 것이 감모봉입니다. 세 번째라도 틀리지 않은데 해발고도가 1,200이 넘어 갑니다. 전거리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감모봉이 보입니다. 백두산 다음에 큰 시허연 거 눈 들쓰고 있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나무채벌을 합니다. 원목과 하목을 체벌해서 사회에 나가는데 경사도가 전거리교화소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요, 내 이제 사회에 나가면 35도 이상은 견지 않겠답니다. 35도 이상의 경사 길을. 그렇게 경사 길을 너무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눈길에 나무가 끌다가 맥없는 사람들이 끈을 탁 놓치던가, 나무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쏜살같다는 말이 그때 비

유할 것입니다. 그 나무가 눈길을 타고 내려오면 앞사람 뒤에 치면 다리는 끊어나요. 안 끊어나는 다리는 무쇠로 만들었겠지요. 다리 끊어나는데 이런 사고는 여기서는 끔찍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보편적입니다. 전거리에서는 나무에 의한 사고, 죽기 전에는 사고 아닙니다. 나무에 머리 터지고 배 터져서 사람 죽어야 사고지 손가락 잘리고 다리 끊어졌다, 그거 며칠 눕혀놔, 끝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나무 끄는 장면입니다. 전거리는 기계로 나무 끄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인력입니다. 짊 바를 해서 끌 바를 해서 나무를 끄는데 사람이 끈다는 게 나무를,

### ○ 마이클 커비

그 나무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들이었나요.

### ○ 김광일

가구들 만드는 원목도 있고 화목감도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북한정부는요, 선생님께서 하는 증언이 거짓말이고, 과장이고, 꾸며내는

것이고 북한정권을 모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북한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 하실 것이지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 김광일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백일천하 명백하게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고, 북한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실체인 정치범관리소도 없다고 하는 북한인데 북한정권에 대한 비난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명백히 말 하건데 사실입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선생님이 계셨던 그 교화소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처벌을 받으셨던 그 교도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 김광일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선생한테,

### ○ 마이클 커비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마을근처에 있었던가요.

### ○ 김광일

아닙니다. 전거리라는 회령시 경계에 끝입니다. 끝인데 거기서 오솔길로 해서 좀 들어갑니다. 한 걸어서 4km 정도를 들어가서 교화소 입구가 시작됩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굉장히 북한의 지형이 복잡한데 그런 지형에서 어떻게 전거리교화소를 찾으셨지요. 누가 도와주셨나요.

### ○ 김광일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뭐 북한에 있을 때도 컴퓨터 조금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했지만 한국에서 금방 배워서 제일 먼저 찾은 게 아마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것처럼 내가 제일 고생한 전거리를 제일먼저 찾았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많이 증언해줬어요. 전거리 위치를 구글로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아주 쉽게 찾아줬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전거리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비둘기 고문이라든지, 비행기 고문이라든지 그 고문을 받았던 그 장소 있지요, 그 위치를 위성사진에서 전체 전거리 중에서 고문을 받았던 그 장소를 딱 짚어주실 수 있나요.

## ○ 김광일

전거리에서는 고문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화과에는 예심하는 자리이지만 교화소에는 고문실이 없고 여기는 사회안전부, 제가 구류장고문은 사회안전부 회령시 인민보안소 예심과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심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령시에 찾아들어가야지 여기서는 교화소입니다. 교화소에서 폭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장소를 짚어 가면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물으신 그 내용은 회령시 인민보안소 예심과 구류장에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화소이기 때문에 교화소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화소 본소입니다. 이 본소 말고 2과하고 3과가 여기어 거의 1.5km 정도 가면 산골이 또 있습니다. 산 중턱을 깎아서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4km 정도 산길을 올라가면 6과가 있습니다. 아니, 4과가 있습니다. 교화소는 그렇게 전거리 교화소는 본소와 2과, 3과.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커서로요, 지금 말씀하신 어디서 주무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커서로 하나씩 짚어 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감자들은 어디서 잤는지.

## ○ 김광일

커서가 있는 곳이 교화소 정문입니다. 정문으

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식당 여기가 돼지랑 키우는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고, 석탄이나 간혹 있는 그래 여기 들어오게 되면 쪽 해서 사람들은 여기가 휴게실들입니다. 작업장, 사수리반 휴게실, 무단건설 그 다음에 목재반 휴게실 등 휴게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점점, 처음 들어가서 여기서 교화과 직원들이 나와서 신검을 하게 됩니다. 몸에 뭐 교화소에 반입될 수 없는 물품이 있는가, 다 벗겨서 신검합니다. 신검한 다음에 이 건물에 위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실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라는 것이 뒤로 돌아 바지 벗어 그러면 엉덩이 살이 좀 있으면 합격,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일단 교화소 1차 수순 끝나고 여기로 나오면 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로 들어가면 끝으로부터 첫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끝으로부터 첫 번째 칸이 신입반입니다, 기억 반. 기억 반에서 한 20일 정도 교정을 받습니다. 교화소 생활준칙들과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준칙 받고 그 다음에 20일 정도 지나면 본과로 배치되기 위한 신입반, 나은 반에 들어갑니다. 나은 반에 들어가면 여기서 한 10일 있으면 그동안 교화과와 생산과에서 그 다음 또 보안과에서 형별로, 범죄의 유형별로, 그 다음 형기별로.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사회에서 일할 때 직업별로 그런데 직업별은 대개 무시합니다. 그래서 반 편성을 합니다. 요 10일 사이에, 10일 동안 같이 여기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본소, 여

기가 본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배치된 과로 나가게 됩니다. 과로 나가게 되면 여기 1과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소에는 그 다음에 저는 2과였는데 2과는 여기서 좀 더 갑니다. 1.5km가면 산 중턱에 2과와 3과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더 설명해드린다면 이쪽은 목재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낙후자반이라고 있습니다. 낙후자반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화소 안에서도 범칙한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고 여기서 6달 동안을 넣어둡니다. 6달 동안 다른 일반 반들보다 더 강도 높은 교정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본소로 들어가면 여기에 구류장이 딸려있습니다. 교화소 안에서 범칙한 사람들에 대한 구류장, 독방이라고 합니다. 독방이라는 것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데 밑에 하수구, 우리말로 배변기가 나무로 된 것이 금방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독방이 4칸이 있습니다. 이 낙후자반에 여기 다시 건너와서 낙후자반에 일하게 되면 그 안에서 범칙한 사람들을 갖다 6달 동안 강도높이 교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있을 때 경성군 주민등록과장 도형택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지금 중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 각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6년을 받았는데 6년을 다 채우고 왔는지 아니면 모범수로 먼저 6년보다 덜하고 나오셨습니까.

### ○ 김광일

아니요. 제가 6년 먹었는데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60주년, 그 대사를 한번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일, 김일성이 몇 돌이야, 100돌이 됐는지 95돌인가, 김정일은 65돌인가 그거 되면서 대사가 적용됐는데 그때 남은 형기는 제가 20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사는 받지 않은 것이고 제 형기를 채우고 나왔고 그 대사를 적용해서 나왔다 뿐이지 먼저 받은 것이 당 창건 65돌인가 그 대사에 제가 3년 형기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 대사를 계기로 나왔는데 그 다음 대사가 적용될 때쯤에 제가 형기가 남은 것이 이십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 그래서 2007. 2. 7. 출소하였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계신 거지요.

### ○ 김광일

제가 계산해보니까 2년 5개월 있었더라고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을 보셨나요. 많이 죽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 수가 어느 정도 됐지요.

○ 김광일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성이 어느 정도로 됐는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

○ 마이클 커비

그 죄수, 수감자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을 실제로 몇 명이나 보았습니까. 실제로 몇 명이나 봤을까요. 대략 10명 정도 되었을까요. 20명 정도 되었을까요. 실제로 본 사람은,

○ 김광일

묻는 거는 저한테 실례되지 않아요. 100명도 넘어 봤는데 10, 10명은 아인대요. 죽은 시체는 너무도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누웠다 죽은 사람도 내 말했잖아요. 10명에서 저하고 같이 묵었다 8명이 죽어나갔다고. 그 8명 다 봤겠죠. 입소하는 첫날에 리어카에다 4~5구를 실어가요. 이거는 처음, 입소한 첫 날에 본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도상에 이 죽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지도상에,

○ 김광일

요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았습시다.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불망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밑에 주민사택이 하동이고 여기가 중동이고 요 위에 올라가면 이것이 하동이고 이것이 중동입니다. 2과 있는 쪽으로 여기 좀 보이지 않는데 이 쪽으로 올라가면 상동인데 요 중동에서 왼쪽 길을 따라서 한 2km 정도 가게 되면 산골짜기에 거기서 나타납니다. 산골짜기에 쇠로가, 쇠로된 둥그런 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태우는 로가, 그 로에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게 되면 한 명 죽었다 해서 한 명 즉시로 가져다가 화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건 북한도 화장제도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죽은 시체들을 이 로까지 가지고 가신 건가요. 산골짜기에 있는 로까지 선생님께서 죽은 시체를 갖고 갔습니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 김광일

그런 일은 뭐, 죽으면 우리 방에서 누가 죽었다 하게 되든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체구가 큰 사람들 시켜요, 힘 좀 쓰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계속가요.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시체를 트럭에서 내리면 그 로까지 가서요.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나요. 어떻게 시체를 운반하고 로에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 ○ 김광일

시체는 트럭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 그림이 이거 완전히 잘못 그렸는데 리어카로 다 실어갑니다. 리어카도 여기처럼 그런 리어카가 아니라 자동차,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시체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 ○ 김광일

시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한두 구 갖고는 스끄럽다고 4~5구 많을 때는 8구 있을 때까지 창고에 방치해둡니다. 방치해두든 아마 여름에는 부패되고 겨울에는 얼어빠지지만 같이 갈 때 가서 태우든지 화장하러 갈 때쯤 되게 되면 눈, 코, 귀 쥐들이 다 파먹어요. 그래서 시체가 훼손될 대로 훼손돼요, 부패하고. 이것을 리어카라는 게 여기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데 정말 자동차 트럭 만한 리어카입니다. 거기에다가 싣고 저리 갑니다.

겨울에는 리어카가 못 가니까 한 사람이 한 구씩 매고가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래 매고 가서 그 불망산, 불로 태워 던진다 해서 불망산이래요. 그 로 속에 거꾸로 태워요, 시체를. 거꾸로 채워놓고 밑으로 불을 뿜니다, 장작불을. 장작불을 때서 이래 태워 던지는데 사람이 그 시체를 여기처럼 경건한 마음에 영혼을 발해 주는 엄숙한 분위기가 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를 태워 던지는 걸로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태우지도 않아요. 그 로 속에 채 타지 않은 뼈가 수북이 쌓여요. 더 쌓고, 더 쌓고 태워 던진 거, 그래서 가루가 돼서 떨어진 재는 그냥 아마 보안원들이 가져다가 밭에, 남새밭에다 뿌려요. 그 고산지대에 그거, 비료도 아닌 그걸 먹어서 사람 태운 재를 먹어서 그런지 냄새가 대단히 잘 됩니다.

### ○ 마이클 커비

그 수감자들이 해야 했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까, 시체를 운반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요.

### ○ 김광일

예. 죄수가 죽었는데 보안원들이, 경찰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 마이클 커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김광일

너무 죽은 사람을 많이 보다 나니까 이제 체감 되어서 끔찍하지도 않을 정도로 제 인성이 그때는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무더져 있고, 뭐 한 애 죽었나. 아마 죽은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북한에서 말하는 속도전 떡이, 풍푼이 떡이라고 있어요. 그거 좀 먹고 싶다 하게 되면 재 줘요. 죽을 때, 굶어죽는 사람 거 막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죽었다면 그 떡이 벌써 어디 간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옷이 좀 괜찮은 게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벗기고요. 누가 탓하지 않아요. 왜서, 산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아마 우리들이 무감각한 인성이 되어 버렸겠죠, 그때는.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 선생님의 경험을 제가 존중하지 않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의 역할이 북한 당국의 주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여쭙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광일

예, 알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저희가 두 분을 더 모시고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제 동료들이 더 여쭙는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님.

○ 마루주키 다루스만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 그림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 선생님, 이 중 한 그림에는 선생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운반하는 것에 관한 그 그림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그림에는 트럭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 보이십니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그림이 잘못됐다고 말씀 하였고 시체들을 리어카로 운반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리어카가 맞습니까.

○ 김광일

리어카입니다. 리어카인데 트럭은 아닙니다. 리어카인데 그런데 적재함이 트럭만큼 큼니다. 리어카입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다른 그 수용소에서도 있었습니까.

○ 김광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다른 수용소에는 수감되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거리라고 나와 있고요. 선생님께서도 전거리에 계셨다고 하는데 이 두 곳이 같은 장소인가요.

○ 김광일

그래 갖고 이 책이 필요한데,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 철자는 다른데 전거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전거리를 지금 철자를 다르게 해서 쓴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 김광일

그건 제가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김상연 대표라고 제삼익일 대표라고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왜서 천거리라고 하였는가. 구글에도 전거리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발음이 'ㄱ'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분이 5개 나라 외국어를 아시는데 아마 고등 인테리라고 하시는 분인데 한 일주일 전에 갔을 때 이거 갖고 많이, 들어서 논의를 한참 하였습니다. 왜서 구글도 전거리라 했고, 다 전거리라 하는데

발음 그대로 전거리라 할 것이지, 왜 천거리라 하셨는가 했더니 그분의 영어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영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되든 여기서는 그 토익이라 하는지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천거리라고 해야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딱히 '전' 자가 우리 한글처럼 '전'과 '천'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어근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 원어민들은 이래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예. 염려 마십시오. 외국인들은 다른 언어들의 철자가 너무나 많아서 항상 이러한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외국인들의 그런 문제입니다. 김 선생님, 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들은 같은 책에 있는 사진들인가요.

○ 김광일

예. 그건 영문판입니다. 원래 한글판이 나온 걸 영문판 또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그림들이 아마 축소되어서 영문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 마루주키 다루스만

알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사진 상에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그대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실상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 ○ 김광일

예. 비슷이는 나왔지, 적중한 표현에서는 너무도 안 됐습니다. 현실은 이보다 더 처참하다고 상상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전에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렸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 일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렸을까요.

### ○ 김광일

제가 이 수기집 '무죄'라는 것으로 제가 체험한 생활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각색 없이. 저는 그 어떤 이념을 가지고 북한정권에 맞섰던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에 이런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이 있다. 이걸 알려야 살아서 내 한국에 왔으니까 이거 내 거창하게 사명감이요, 의무요 이런 미사여구 붙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원혼들 달래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교화소 실상을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각색 없이 '무죄'라는 제목으로 수기작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수기작을 보고서리 김상연 지금 제삼익일 대표라

는 분이 이걸로 책 내자. 저는 책을 내자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아니고 그림집을 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림들은 그 스케치 그림들은 제 수기작에 의해서 철저히 나왔습니다. 이 그림들을 그린 것이 처음에는 권호진이라는 분이 탈북자 전거리 체험자입니다. 생동하게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그 단체하고 어떻게 잘,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 분들을 두 분을 섭외해서 제 수기집이 대목 대목에 체크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리자, 요거 그리자 해서 그래 하고 나한테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요거 80%는 제 수기작을 참작하여 그렸다고 김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적중하게 표현 안 됐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린 것이 아니라 화가들이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것인가요.

### ○ 김광일

한명은 수용생활 15년 형기를 받고 6년 만에 출소하신 분이 그렸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 섭외하셔서 그렸습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 그렸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예,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광일

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수기작에 기초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인권유린당한 게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당한 게. 그 제도를 말해야 겠다, 그게 정말 억울하게 쉽게 말하면 누가 중국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제도상 인민들의 생활은 국가가 책임진다 하였습니다. 국가가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지면서 먹고 살겠다 스스로 나가면 그거 범죠티라고 때려죽입니다. 한 가정에 비유한다면 아버지가 자기는 온갖 호사를 다하면서 가족들은 먹고 살지 못하는데 먹고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그거 역적이라고 때려 죽이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인권, 인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썼는데 이것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에서 최우수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대표가 여기서 아마 이걸 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자, 그래 북한도 UN성원국입니다. 21세기에 더불어서 뭐 문명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UN 성원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자기 독재, 저게 세습독재입니다, 봉건쪽으로 세습독재체제에 저해가 된다고 자국민들에 대해서 학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싶어 정치범교화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화소에서도 이런 폭행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제 소원은 이제는 세

계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UN의 역할이 아마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김 선생님 제가 좀 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더 생생하고 더 비극적이 라는 것, 얼마나 더 비극적 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들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못한 것인가요.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조금 더 덜 비극적으로 그린것인가요. 실제 상황들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공포에 떨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그리자는 얘기들이 혹시 있었는가요.

## ○ 김광일

그런 얘기가 저부터 시작했어요. 영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전시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갖다 놓시다. 사람들은 화려한 그림에 눈길이 가지 혐오스런 그림에 눈길이 안갑니다. 북한 그 실상 그대로 한번 내봤습니다. 혐

오스러워서, 한국에서 고속터미널 이런 곳에서 이 목소리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북한민주화 위원회에 있었을 때 했는데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포인트를 튼 것이 어떻게 틀었는가 이런 그림들 속에 지금의 북한 현실, 부익부 빈익빈의 대조적인 현실을 슬쩍슬쩍 첨부하고 북한도 남북이 머리는 같습니다. 북한도 통일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 남한이 인정해줬습니다. 남한이 다른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 일수록 이런 문화적인 수준도 이루어 졌다, 하는 것이 슬쩍슬쩍 첨부해서 저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그림들을 너무 혐오하게 그리지는 말자, 이런 취지는 있었습니까.

○ 마루주키 다루스만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본 사진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그렸던 그 사진들이 있나요.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조금 완화된 사진들 이외에도 실제 일어났던 참혹한 것들을 생생하게 그린 그 사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록으로, 문서로 저희가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원본사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있습니다. 13장이 현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자 했는데 어제 파일을 다 김상현 대표가 보내줬대서 북한인권센터 윤도현선생이 연락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리베라 선생한테 파일이 다 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이 13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보다, 여기 그 그림 중에 4개가 나왔습니다. 4개, 5개 나왔는가 그 다음에 더 처참한 게 있는데 아마 그 그림을 꺼내면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민망해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만 힌트 한다면 성폭력, 여기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여성분들은 너무 민망해서 무참해서 보지 못할 그림까지도 있습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그 13장 사진들의 사본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문서로 갖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광일

당연히 드리지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 선생님께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아주 종합적으로 그 고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문들은 매일 이루어 졌는

지 그리고 이 수용소 안에 특별한 구역에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간수들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이 목표 하고 있던 죄수들에게 이러한 고문들을 한 것인가요. 질문이 두 가지 입니다. 이러한 고문은 매일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특정한 고문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구역에서, 특정한 간수들이 했는지요.

#### ○ 김광일

구류장에서 매일 비밀비재하게 자행되는 것이고 구류장에서는. 그 사람이 의도하는 답을 얻기 위한 진술을 받아내자니까 구류장은 매일 진행되는 것이고 교화소에 가게 되면 범칙행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뭐 범칙행위라는 것은 무수합니다. 대열 가다 1m 떨어져도 잘못입니다. 늦게 와도 잘못입니다. 잘 때 삐딱하게 있어도 잘못입니다. 뭐든 걸면 코걸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코걸이, 귀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화소에서는 모든 범칙에 따라서 자행되고 그 다음에 교화소에서는 특이한 게 교화중인 인물에 대한 폭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경성군 주민 등록과장 도형택이 북한에서, 한국에서도 잘 아는 심화조 사건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 형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경찰출신이라고 반장을 시켰던데 상부지시가 다르게 내려왔어요. 갑자기 낙후자반 그 안에서 범칙한 사람들

수용되는 그 반에 갔어요. 반에 가던 게 한번 잘 못하면 남한테 한번 욕하고 한번 매질할 거 두 번 세 번 가중처벌을, 매를 들어도 한 번 더 들고 두 번 더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압력에 짜질이 들어서 죽어요. 이렇게 요지된 인물에 대한 폭행도 선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화소에서.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이러한 고문들만 하는 전문적인 간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간수들 소수의 간수들, 고문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리고 수용소 안에 고문만하는 구역이 있었나요.

#### ○ 김광일

북한은 고문장이라고 따로 없습시다. 때리는 곳이 고문입니다. 때리는 장소가 고문장이고. 고문장이라는 게 따로 없고 교화소안에서 범칙하였을 때는 교화과에서 처벌합니다. 교화과에서 취급할 때 교화과 구류장 안이 말 그대로 고문장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식명칭으로 고문장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죽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은 그랬습니다. 교화소 내 수용자간에 사명공동 감시라는 게 있습니다. 3명이 일 하게 되면 내가 이 두 사람 감시하면 이 두 사람 또 서로 두 사람 감시하고 서로 서로가 감시하게 만들

었습니다. 만들고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 힌트를 하나 주면 아, 저거 더 가중이 되라는 소리구나 하고 그 사람만 딱 짚어서 일을 나무를 끌어도 더 큰 거를 끌게 하고 돌을 들어도 더 큰 거를 들게 하고 먹는 것도 차별 줘서 너 잘못된 거 남들은 넘어갈 수 있는 잘못을 차별 줘서 밥을 절반 잘라내고 하게 되면 그 사람 한 보름이면 죽어요. 그렇게 딱 찍힌 사람은. 그런데 그것은 수용자들끼리 조장시킬 때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용자들끼리 서로 저 사람 짚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자들끼리 나무지게 되면 뭐 말하기 그렇지만 야 이 새끼 더 큰 나무 끌게 하고 하나 더 못 든다면 그냥 먹이래야 먹이지 말라는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보안원이 북한에서는 한 두 번, 하나 잘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웬간한 거 근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 밥을 절반 잘라, 아니면 금식시켜 그러면 교화소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 한 끼 못 먹으면 죽어요. 다음 날 일할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그런 처벌이 쭉 지속되어 가면 그 사람 얼마 못가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택이도 허약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거 말고 또 최성책이라는 또 회령에서 그 보안원 예심과, 저 있을 때 예심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간첩사건 만들어 냈다가 거짓말로 들통 나서 대른데 입소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구류장에 탁 입소하게 되면 구류 가장 처벌을 받게 되면 머리를 깎아요, 중처림. 그것이 북한에

가장 처벌이예요. 내 머리 깎은 첫날 모습 상상해보세요. 성한 성인남자도 머리 깎아놓으면 뭐가 되겠는가. 그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피눈물 나서 내 그 사람 입소할 때 한번 저 혼내놔됐어요. 놔됐는데 그 사람도 역시 경찰 출신이라고 같은 경찰이 돌봐줬는데 얼마 안가서 아마 그래서 경찰이 돌봐줘서 면회반장이라는 거를 시켰습니다. 면회반장은 북한에서는 사회보다 더 잘 먹으면 더 잘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석 달 못 가서 그 사람을 다시 낙후자반에 보냈던 게 그 사람이 6달 만에 죽었어요. 북한에서는 경찰로서는, 북한보안상으로는 감춰야 될 비밀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교화소로 이제 죄수로 들어왔는데 회령 보안소에서 자꾸 면회와, 정치부장이와, 예심과장이 와 뭔가 압력을 행사하지요. 너 어떤 말은 하지 말라, 어떤 행동은 하지 말라 이래 하다가 그래도 살려 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았다면 남한에 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화소 갔다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죽이자, 그런데 판결이 사형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사형은 못합니다. 서서히 죽인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먹을 것을 적게 주고 더 때리고 더 일시키고 하기 때문에 독심만 먹으면 한 사람 죽이는 게 내 감히 말할게요. 보름이면 내 사람 죽이겠습니다. 여기 설명회 계시는 분들 북한실상 모르신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가 북한이고 내가 경찰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쫓아서 내가 보름이면 죽이겠습니다. 때리지 않고 그저 밥 적게 먹고 물 적게 먹고 일을 강도 높게 시켜서 여기 있는 어느 한분 쫓아서 죽이라 하면 내가 북한경찰이라면 죽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한이 모든 면에서 사람 죽이는 것이 악착같이 죽여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다른 수감자들을 감독하는 그런 수감자도 있었나요.

### ○ 김광일

제가 감시했습니다. 북한의 수용자들 사이에 뭐였는가, 반장, 감시계산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보안원들이라는 게 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용자들 가족, 친척들은 내 가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뇌물, 여기로 말하면 달러, 연줄의 연줄을 타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가족의 담당보안원을 찾아요. 담당경찰을 찾아서 뇌물을 줘요. 북한에 흔치않은 가전제품들, 북한에는 TV, 냉장고 귀합니다. 그런 것도 잘사는 집은 갖다 줘요. 그러면 경찰들 그거 받고 대신 보살펴준다는 것이 허른 자리를 줘요. 직업이 허른 자리나 뭐 크게 육체적 노당을 아이 한다거나. 이러면 반장, 감시, 계산공 이런 걸 줘요. 그 계산공 직업이라는 건 원래 그 보안원들이 하게 된 것인데 보안원들이 시끄러우니까 계산 좀 해서 하루 일 얼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제를 수행 못했으면 급

식에서 감식하니까 짜르니까 그 일가 그 노동력 평가해서 그 사람들 형기감소 평가를 내는 것이 평가 그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계산공이 하는 일입니다, 출석체크와.

그리고 반장은 일 시켜요. 일시키며 감시해요. 그다음에 감시는 전문 감시를 해요. 전문 감시하는데 원래 북한이 이렇습니다. 10명에 자동소총을 한 자루, 10명이 여기로 말하면 AK 소총이 한 자루가 따라간답니다. 그건 그러니까 죄수 10명에 경비원이 1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 30명에 권총이 하나 따라간다 합니다.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너무 많으니까 죄수가 60~70명이 되어도 자동권총, 그러니까 AK 소총은 두 종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둘이 따라갑니다. 그래 권총 한 자루, 담당 상사가 1명 그러니까 무기 권 사람 서이 따라가니까 3명이 해요. 상판에 널려서 일하는 사람들 다 감시 못합니다. 다 감시 못하니까 그 감시 반장, 계산공 3명은 일하면 유급입니다. 유급으로 풀려나서 니그들이 야들 감시해라, 5~60명. 설새 없이 저는 그 번호 합니다. "1번, 번호!"하게 되면 내가 감시니까 했습니다. 6달 만에 감시했는데 "1번!"하게 되면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로 짝 불러가요. 번호 한번이라도 틀리거나 늦게 부르면 "왜 너 번호 늦게 불러."하게 되든 감시반이 따라가 총박으로 디리쳐요. 그러니까 감시한다는 것도 정말 능동성 있게, 눈치 빠르게. 내가 잘못, 번호 이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 매로 맞



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감시들한테 내, 남들이 일할 때 이 3명한테는 일은 아이 하고 대신 감시원이 연대적 책임을 지었어요. 어떤 책임을 지었는가, 누가 도망쳤다면 내가 대사를 보든가 감형되지 못하게 연대적 책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돈은 들고, 돈에 눈을 떠서 같은 수용자를 감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증오하게 됩니다. 이런 교화소의 수용자들 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3인 공동 감시체계와 반장, 감시, 계산공이 직업적인 감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뭐 지금 와서 죄송하지만 혹시 저한테 의견 계신 분도 있고 죄송한 생각도 있지만 제 보기엔 그리 비열하고 논 것 같지 않아서 내 땀땀이 말하고 탈북자라는 게 거의 3만 명 왔지만 제가 보기에 8~9,000은 제가 살던 함경도 회령 사람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저는 감히 어디가 뺨을 못 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수감자들이요. 혹시 어떤 위장시설 같은 걸 설치하고 그런 적도 있나요. 그래서 이 수용소가 밖에서 안 보이게끔 위장하는 그런 일도 하신 적 있나요, 수감자들이.

### ○ 김광일

수감자들을 사회에서 보지 못하도록 위장,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아니요. 수감자들을 위장한 게 아니라 그 수용소, 교도소들이 눈에 밖에서 안 띄게끔 수감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감추게, 이게 마치 수용소처럼 안 보이게끔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 ○ 김광일

수용소를 안 보이게 하는 거는, 교화소는 합법적인 북한의 정권기관의 그 독재기관이기 때문에 독재기관의, 독재기관이 경찰, 검찰이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독재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화소가 있는 사방 몇 km는 관리구역으로 해서 사민이 침범 못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일성 일가를 이상화하게끔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념교육도 받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북한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이 되었다. 완전히 폭 빠져있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은 그 이상화 교육이라든지 인민교육은 모든 북한주민들이 다 받는 것이었나요.

## ○ 김광일

당연히 아마 말을 던지기 시작하는 탁아소는 못해도 유치원시설부터는, 유치원에 턱 들어가든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뭘 영화에서는 정확히 묘사했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잡수시오.” 유치원 때 우리는 이려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 내 특별히 세뇌된 것 같아요. 그래 일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 뭐 칭찬이 좀 찾아지든 내 좀 신분에서 약간 탈출 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정말 무지 노력했는데 제가 아마 탈북 했더라면 2004년도에 탈북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연고가 있던 중국 분들이 “니 그 상황인데 넘어서라.” 차마 그때까지, 2004년도까지 어느 정도 내 세뇌되었는가 내가 두만강 갔다 왔다 돈벌이는 할지 언정 영 건너가겠다. 반역 같아서 저는 ‘어느 때 인가는 이 나라 잘 살겠지.’ 하고 차마 못갈 정도로 제가 세뇌되어 있었습시다. 다른 분들도 그런 교육은 저하고 똑같이 받았겠지만 저보다 더 세뇌되신 분들도 있겠고 아마 덜 되신 분들도 있겠고 이렇게 했습시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받으셨지요. 왜냐면 불공정한, 불공평한 일들도 있었고 아주 완전히 잘못된 일도 북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

셨는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 ○ 김광일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에서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도 일성이 103일밖에 안 했어요. 고난의 행군 끝나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토비들이, 도둑질해 먹으면 김일성이 항의를 했다 짱아요. 여기서 토비생활을 했다는데 어쨌거나 항의를 했습시다. 그러나 김일성 측근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측근도 한 두어 명 만났는데 산에서 있다가 굶을 때는 굶고 이리지만 한번 전투하고 한번 쉽게 말하면 토벌하고 나중에 가게 되면 잘 먹는데요. 북한도 그래, 이 고난의 행군 끝나면 정말 잘 살 것이다. 이런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도 100 며칠인데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속되고, 3년이 지속되고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때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인텔리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월이 막막하겠다.” 나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제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 때도 산 사람이잖아. 그리고 일본에서도 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북한에 살았어요. 일제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다. 일하면 먹을 거 뵈지, 돈 뵈지 이랬는데 제가, 제가 북한에서는 급여가 여기서 말하면 2,300원이

면 중류층, 중산, 중간층입니다. 2,300원이든 저때 당시 북한 시스템이 망가 안 졌을 때는 입쌀이 65전, 옥수수가 45전 이랬으니까 되겠는데 시스템이 다 망가진 다음에 2,300원으로 제가 쌀을 사자니까 흰 쌀, 여기서는, 거기서는 입쌀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흰 쌀이에요. 한 kg가 1,800원입니다. 제 한 달 일해 탄 월급이 입쌀 한 kg, 1kg 밖에 못 샀어요. 이랬는데 그런데 말로는 나라가 책임진다는데 나라가 뭘 책임지나. 이런 먹을 것도 책임 못 지는데 입을 것도 그리고도 북한이 또 그래요. 자유라는 거를 내가 절감한 때가 96년도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절감했는가, 느꼈는가. 북한은 국가에서 배급과, 쌀을 배급 다 해 주니까 니 일을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퇴근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로봇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90년도 접어들면서 일체 식량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기업에서 나갑니다. 먹고살겠다고 장사길, 무슨 길, 범죄의 길 다 들어가요. 도둑질도 하고 이래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기업이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하루 무단하면 경찰에 끌려가요. “왜 무단했나.” 그래 무단한 이유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용서되지만 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했다면 강제 노동 하루를 시켜요. 3일 무단했다면 잡아넣어요. 잡아서 한 일주일 데려다 강제 노동 시키고 내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도 나도 무단이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다 너도 나

도 가야 되니까 누가 와서 단속 안 했어요. 내가 뭐하든, 출근 못하든 그러니까 내 그때 서서히 깨우치는 게 누가 날 공장 안 나온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지, 내가 내 집에서 뭐하는가 보는 사람도 없지. 누가 상관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유구나. 그때 어렵듯이 자유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구나.

그런데 북한은 다시 식량이 제대로 되고 시스템이 하게 되면 통제를 또 다시 바짝 조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풀어놨잖아요. 이게 자유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알기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책임 못 쳐요. 무료교육에 무상치료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앓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앓는다고 무상치료라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병원 가니까 약을 이래 쪽 써대면서 “이거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듣기는 남한에서 병원에 환자가 오면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주머니부터 진찰한다고 들었어요. 그 실상이 지금도 있을 수 있지, 남한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그때 그렇게 됐어요. 약 이름을 쪽 써놓고 “이거 살 수 있습니까.”합니다. 그때는 혹시 내 어머니 옆에서 돈이 있어서 만 원짜리를 훔, 북한 돈 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 돈 주니까 태도가 딱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그 장, 그 아들은 죽기는 죽었지만 이런 정도인데 그 다음에 말하더라고요

선생, 선생님 나중에 볼 때는 나보고 돈 있으니까 그래도 이랬는데 다른 데는 주사 한 대를 놓고 “이게 얼마입니다.” 이런대요, 환자 앞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도 책임 못 저요. 일시키면 돈 줘야 되는데 돈도 못 줘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주면서리 나오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먹을 것도 안 주매 일하러 나오라. 안 나오면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일하면 먹을 거를 줘야 되지 않는가. 먹을 것도 안 주고 일하러 나오라. 이게 틀려가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조금조금 세뇌됐던 머리에서 깨기 시작했어요. 깎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때 깎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절감하기는 구류장에 들어가서 완전 절감했습니다. ‘내 이 세에 속고 살았구나. 건너오랄 때 건너갈 걸 차마 건너가는 게 역적 같이만 생각되어서 못 건넜던 게 내 너 무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 구류장에서 내 절감했습니다, 내 같은 게 범죄자로 감옥가야 된다 하니까. 이상 내 충분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네, 괜찮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북한 같은 경우는 인권유린이 심한데 북한에서 수감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불

만을 제기한다든지 언론에 그런 잘못 대접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알기로는 사실 북한의 형법상에서는 그렇게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잘못된 대접에 대해서 언론에 그걸 얘기한다든지, 변호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나요, 북한에서는.

### ○ 김광일

북한에서는 첫째, 언론에 공개한다. 여기처럼 미디어가 없습니다. 철저한 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다면 못하고 구설로 넘어갑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일 당했다며 말에, 말에, 입에 입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여론으로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억울함 호소를 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내가 여기처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정하는 것이. 변호사는 재판소라는 곳에 여기처럼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도 검찰 이게 사법 이게 삼권분립이라지만 김일성의 교시문 같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연합하시오.”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일성의 저작집이라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명 피의자가 한 명 있다면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는 논거하고 그다음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검사, 변호사, 판사가 합동해서 그 사람 죄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없고 변호사라는 것은 오로지 재판소에서 한 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요 법원하고 여기 달려있는 것처럼 달려있는 건 고사하고 재판소의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저 재판을 구성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대동할 뿐입니다.

### ○ 소나비세르크 세르비아

그러면 이런 제도들 모두 법원이나 검사나 모두 다 어떤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 김광일

아무리 변호사라해도 의무에 맞게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당정 책임 위반된 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럼으로써 처벌이 적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변호사가 할 말입니까,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 소나비세르크 세르비아

감사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이 13개의 그림을 그렸을 때 전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 때 사실 원래는 조금 더 잘 생생하게 그렸다고 했는데 저희가 받게 되면 이 사진

들은 S30으로 저희가 증거물로 채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이 사진들을 저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 김광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팩스가 있다면 팩스로 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복사해서 제가 보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문해서 드리든가, 한 부는 남겨둬야지 않습니까. 그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박사고 교수고 북한 인권에 관심 있다는 분들은 그거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아마 복사돼 나가는 것이 40부도 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아있는 게 아마 복사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다시 복사해서 보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복사본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USB에 그 그림들을 저장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사본과 함께 USB에도 지금 그 저희에게 보여 주신 위성사진들 있지요. USB에 위성사진들을 저장해서 함께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희 선생님과 함께 오신 분은 남편분 박영학 씨입니다. 박영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영희 선생님이 아마 대부분의 증언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학 선생님께서도 저희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증언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권영희 선생님 저희가 앞으로 증언해 주실 내용이 진실 된 내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권영희

예.

○ 마이클 커피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도 증언을 해주시면 진실 된 증언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박영학

예.

○ 마이클 커피

감사합니다. 권영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이 사안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관련 실

무자 그룹에 이미 이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2001년도에 오셨는데 그 이전까지 북조선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자랐고, 북한당국과 북한사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서 혹시 가족들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권영희

알겠습니다. 저는 1971년 8월 26일 태어났고 북한 무산군 무산읍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가 계셨고 위로 언니랑 오빠 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엄마는 병원의로사로 일을 했었고 아빠는 당 비서로 일을 했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떤 계급인지는 모르고 일단은 잘사는 집에서 태어나다보니까 행복하게는 살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여기로 말하면 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낼 때 보면 저희 아빠, 엄마는 고향이 남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 보고 물어보면, 북한에서는 의용군이라고 하거든요, “의용군이 되어서 북한에 왔다, 우리는 의용군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크면서 저희 언니가 제일 맘인데 언니가 대학추천을 할 때 저희 부모님에 대

한 것 다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내려 오신분이고 엄마도 한국에서 내려 오셨고, 전쟁 시기 북한군에 입대하여 내려 와서 전쟁에 참가했다는 전쟁 참가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대학을 추천할 때 그래도 무산에서 한다면 성적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대학을 추천했을 때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북한정부에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게 왜 안 되냐 했더니 너네는 이런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다. 아빠, 엄마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언니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청진사범대학까지 갈 수는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언니가 거기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게 되다보니까 저희 언니는 자기 희망이 꺾이니까 교육부에 가서 하소연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 달라, 대학을 보내 달라."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아빠가 누구냐, 아빠는 남한출신이다. 엄마는 누구냐, 엄마는 남한 출신이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갈 수가 없다 해서 사범대학에 갔었고 저희 둘째로는 큰오빠이지요. 큰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간다는 것이, 군대 가게 되면 신체검사를 해요. 그런데 신체검사까지 다 했는데 가게 되는 것이 철도국에 갔어요. 무산에 있는 철도에 가서 그것이 군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고 저희 둘째오빠는 군대입대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군대 가서 거기서 열심히

군사복무를 하다가 군관대학을 추천했는데 군관대학에서도 탈락되었고 그냥 사관장까지 하고 거기서 제대되었고, 저희 셋째오빠는 거기 지금 현재 감옥에 가있는 오빠이지요, 그 오빠는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도 오래 못 있고 영양실조를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군사복무 다 하지 못하고.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가지고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오빠가 감옥에 가면서 저희 엄마는 충격을 받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충격을 받고 엄마까지 안전부에 가서 취조를 받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이유 하나로 취조를 받고 당에서 출당까지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제가 살다가 뭐 예전에는 저희 엄마, 아빠가 계급이 있었으니까 사는 것은 문제없이 그래도 잘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급을 따지고 또 그때 당시 저희 집에는 항상 감시가 붙은 것을 몰랐었어요. 왜냐 하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매주 마다 저희 아빠가 군당에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매주 금요일 마다 가서 내가 북한에 와서 생활을 잘하겠다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교육도 잘할 것이며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나는 국가에 책임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받다가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되고 하면서 저희 가족이 충격을 많이 받고 그때부터 하락에 들어갔고 저희오빠가 영양실조로 군대에서 와가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국

에 가서 밀수를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93년도부터 인데 93년도는 누구도 밀수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거든요. 93년도에 밀수 하다가 이게 아마 재미가 붙어나니까 94년도에 중국을 나갔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너희는 가족도 부모자체가 한국인이니까 그 이유를 오빠한테 다 뒤집어씌운 게 너는 한국으로 가려고 뛰려고 했다, 이거는 경제범이 아니고 정치범이다 해서 정치범으로 끌고 가게 되었고, 저희가 정치범까지 가게 될 것은 생각도 못했고 경제범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저희엄마가 병원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위부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 통해서 면회를 했었고 오빠한테 가서 면회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경제범이 아니다 각오를 하세요. 제가 말했다는 거는 그 누구한테 말씀하지마세요.” 하다가 저희엄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이 온 것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한번 할 수 있겠냐,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냐.” 해서 그럼 가겠다 해서 저랑 엄마랑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자기가 연결해줬다는 말도 하지도 말고 아들면회 간다는 말도 하지도 마라. 그리고 준비물은 옷만 준비해 갖고 와라, 해서 저희가 찾아간 것이 보위부 감옥이었어요. 갔는데 저희 오빠가 나왔는데 그때 저희 오빠모습은 참 뭐라고 할까, 너무 얼굴이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길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

만 보고 잘 지내라,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나중에 후에 알게 된 것이 저희 오빠가 중국에서 잡히면서 끌려나온 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북한보위부에서 죄수복하고 죄수신발을 다 챙겨갖고 저희 오빠를 중국에 잡으러갔더라고요. 가서 중국에서 입던 옷을 다 벗기고 거기서 죄수복을 입고 칠성세관으로 건너왔어요. 칠성세관에 건너와서 그때 당시 차를 어떤 차를 대기시켰냐, 트럭을 대기시켰어요. 트럭을 대기시켜가지고 저희는 그 트럭에 싣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싣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손을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트럭 뒤에 다 걸고 트럭은 가고 사람은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수복이라는 것이 신발은 검은 신발이 있었어요. 거기서 칠성세관에서부터 무산까지 올라오려면 160리였어요. 그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다 사람들 나오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칠성세관에서부터 무산까지 그렇게 끌고 왔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짐승을 그렇게 했다면 아마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사회에서는 그거는 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엄마하고 저는 그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친구가, 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거는 너무 하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끌려갔냐 하니까 그 트럭에다가 손을 끌고 묶고, (울음)



○ 마이클 커비

물 한잔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안정을 취하신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증언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 권영희

160리 길을 끌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그냥 그것을 그냥 끌고 올라가니까,

○ 마이클 커비

160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이지요.

○ 권영희

48, 45, 45km정도요. 그 정도로 끌고 올라왔는데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얼굴은 다 까여져 있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고 앞에 죄수복이가 다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오다 나니까 끌려오면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 빨리 일어나라. 너 중국에서 잘 먹었으니까 그만한 힘은 있을 거 아니냐. 일어나라.” 이러면 사람이 뒤에 가서 목을 끌어서 일으켜 세우면 또 가면 그때 당시 저희 오빠가 영양실조라서 제대되다 보니까 당뇨병이 있었어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병원에서 그걸 치료하는 도중에 오빠가 지금 중국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병이 있는 상태였고 중국에 나가서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요, 병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를 그냥 끌고 오다 보니까 오빠가 쓰러지면 그냥 차는 차대로 가고 뒤에서 보위부 사람이 목을 뒤에 옷을 땀기 가지고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올라갔다 하는데 무산까지 오는 게 160리라면 무산에서 그 큰 무산을 3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무산사람들이 다 봐라. 이렇게 가면 이런 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와가지고 다 저희는 보위부에서 엄마랑 저는 못 나가게 집에서 보위부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 나가게 되면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하면서 무슨 얘기 할까봐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간혀 있었고 오빠는 그렇게 해서 무산바닥을 끌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저희 친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마이클 커비

오빠가 그렇게 끌려 다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 권영희

예. 무산군에서 저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엄마가 또 병원에 다녔었고 하니까 무산군에서는 저희 이름, 저희 엄마, 아빠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저희가, 제가 그때 당시 학교 졸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많았어요. 무산군에 그 친구들이 다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 목격을 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게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면회를 갔을 때,

### ○ 마이클 커비

친구들이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 ○ 권영희

아니, 어떻게 느꼈다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 만약에 그분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끌려가야 되니까. 왜, 반역자, 반역자로 일단은 정해놨으니까 그 반역자를 두둔했다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 얘기하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면회를 갔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치료라는 자체도 없었고 그냥 피가 흘렀던 그 딱지가 말라가지고 여기 온 얼굴 이마랑 콧등, 요 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피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게 그 따대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피 따대가. 그건 닦아주지도 않고 닦아도 그 약을 발랐으면 빨리 상처가 나았을 건데 당뇨병이다 보니까 이게 병도 있는 상태라 낫지도 않고.

### ○ 마이클 커비

왜 경제범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불법

으로 국경을 넘었고 경제범이 될 줄 알았는데 왜 경제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렸는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 ○ 권영희

그 이유는 저희 엄마, 아빠가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또 이미 그전에 저, 저희 그 보위부에 아시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네는 항상 감시가 붙었다는 걸 몰랐었냐 이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 그 고향 출신 때문에 오빠는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고의적으로 넘어가서 니가 남한을 가려고 했다. 이거를 해가지고 경제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보낸 거죠.

### ○ 마이클 커비

오빠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고 당시에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 예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 김일성이 죽었을 당시에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고 더 악한, 더 가혹한 그런 처벌을 받은 것일까요.

### ○ 권영희

아, 그거는 저희 오빠는 김일성이 죽었다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면 김일성은 1994. 7. 8. 죽었고 저희 오빠는 6월 말에 중국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서 김일성이 죽었다

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는 오빠 말 그대로 이미 생각은 한국을, 한국을 오려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 다시 북한으로 넘어올 마음도 없었고 그 김일성이 죽으면서 저희 오빠가 제가 후에 알게 된 건데, 누가 저희 오빠가 중국으로 간 것을 무산군 보위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를, 김일성이 죽은 이유를 해가지고 너는 경제범으로 잡겠다. 너는 반역자 집안 자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잡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건 직접 보위부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 박영학

북의 정세가 악화되고 식량난이 가중되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악화되고 하면은 정부는 뭘 하나, 김일성은 뭘 하고 있냐. 그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외부로 돌려야 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미국 뭐 서방국에서 경제제재를 가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산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그래요, 언론에서. 그런데 북한에 있는 분들이 뭘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를 티켓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런 놈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똑똑히 보라.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 그런 데를 머리를 돌리지

못하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티켓이 된 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티켓이 된 것 같아요.

### ○ 권영희

제가 그때 당시 입당을 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뭐 공장에서 저희가 무산군에 있는 폭약 공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강산 발파도 하고 하는 그런 폭약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공장에서 제가 밤낮으로 일, 집에도 오지 않고 야근까지 하면서 제가 입당을 하겠다고 열심히 했을 때 저희 오빠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게 그런데 입당을 한다 해서 당에서는 그런 거 인정을 안 해 주고 일단은 오빠가 범죄자이면서 가족이 반역자 가족을 낙점, 낙점 찍어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희가 그 아침마다 강연을 해요. 이런,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강연을 하는데 그 자식이든 형제든 상관없이 그 주모자를 제일 가운데에다가 앉혀놓고 6개월 동안 저희 오빠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강연 자료에. 자, 권영근 씨는 나라를 배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배반자의 가족에서 태어났으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배반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 가족을, 엄마, 아빠를.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그 강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 가족도 몰살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면서 그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강연시간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제일 가운데 앉혀놓고 앞에는 당

비서, 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 전체가 무조건 다 참여해야 돼요, 그 강연에. 그 자리에서 저희는 저는 켈 앞에 앉아서 제가 비판대상이 되는 거죠, 오빠 때문에. 그게 저희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산군 쪽으로, 무산군에서 이런 사람이 발생했으니까 무산군 쪽으로 지금 강연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너네는 엄마, 아빠부터 원래 반역자 집안이었구나. 강연 자료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를 한 가족을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안고 살다가 96년도에, 96년도에 또 한 가지 또 발생한 것이 저희 큰 오빠가 딸을 데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 분주서 그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오빠가 어디 갔냐. 너희 큰 오빠가 어디 갔냐. 그 때 당시 저는 엄마도 돌아가셨고 해가지고 집을 다 내놓고 합숙,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는 합숙이라고 하는데 그 합숙에서 제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 찾아와 가지고 거기 분주서 담당관이 찾아 왔다 해서 제가 찾아가서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너희 오빠가 어디 갔냐, 오빠를 대라. 무작정 저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모른다. 우리 직장에 가서 확인해봐

라. 나는 입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그 합숙에도 내가 온 일도 없는데 내가 오빠를 어떻게 아냐. 했더니 저희 합숙에, 저희 그 호실에 있는 그 여자애가 하나 봤는데 저희 오빠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으러 왔대요. 얼굴이나 보고 인사나 하고 가겠다. 그 오빠 어디 가냐 하니까 아, 저기 어디 안쪽에 들어가서 장사하려 들어가니까 영희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 이것을 그 호실에 있는 애가 바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분주소에 가서. 그래서 그 분주소에서 그것을 알고 이미 저희는 반역자 집안으로 낙인 되었으니까 저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분주소에 찾아가서 그다음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분주소라는 게 여기로 말하면 동사무예예요. 그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보위부에서 저를 넘긴 거예요. 오빠는 하나는 정치범으로 갖고 한 오빠는 아예 애를 데리고 없어졌다. 이것을 조사해보라. 그래서 저를 보위부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위부에서 일주일동안 취조를 받는데 뭐냐. 비판서를 100장씩 쓰라고 해요, 하루에 100장씩. 그래서 제가 일주일동안 제가 잡혀있었는데 그 비판서를 나는 쓸 수가 없다. 왜, 오빠가 어디간지도 모르고 오빠 자체가 언제 어느 날에 없어진 자체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냐 하면 그 여자감독관이 들어와요. 너, 제가 이미 알면서 니가 이미 알면서 왜 거짓말 하나 해서 몽둥이를 갖고 들어와요. 다짜고짜 그래

서 제가 거기에서 3일 동안 맞았어요. 그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도 이 머리를 짚으면 이게 지금 애기가 금방 태어났을 때 그 뇌가 굳어 지잖아요. 여기 말랑말랑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 상태로 제가 종아리는 수술 받았어요. 종양수술을 여기 한국에 와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그렇게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취조를 받고 있는데 어느 하루에 그 보위부에서 찾아와 가지고 시체를 찾았다. 시체 확인이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그 칠성리라고 있어요. 칠성리 가게 되면 두만강 있는데 바로 건너가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 보위부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두 구가 있었는데 어른 남자 하나, 여자애 하나 둘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는 시체가 너무 물 안에 많이 잠겨 있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이 순간에 오빠가 아니다 하면 제가 당연히 또 취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은 우리 조카 옷이 맞다. 그런데 저희 조카 이름이 옥경이 되었거든요. 우리 옥경이 옷이 맞다. 그런데 오빠 옷은 내가 모르겠다, 무엇을 입었는지. 그래서 그 시체 두 구를 저희 오빠하고 저희 조카로 매도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맞다. 그 아무개 맞으니까 이것을 반역자의 집안의 자식이 맞으니까 시체를 버려라 해서 그 자리에서 가마수 있어요. 가마수 가져다가 시체를 두 구를 따로따로 감아서 그 차 트렁크에다가 홀 던져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하나니까 그거는 묻지도 말라. 이런 시체, 반역자 집안 시체는 아무데 버려도 너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형제다, 제사는 지내야 줘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두만강에 데려가 제사를 지내라, 왜 거기를 뛰려다 죽었으니까. 그때가 7월 달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토를 못 다니까 그래서 와서 다시 비판서를 100장 쓰고 그렇게 하고 제가 풀려 나왔어요. 풀려나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풀려나와서 직장에 가니까 우리 당 비서가 하는 말이 보위부에서 와가지고 네가, 출석체크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에 출근했으며 어느 날에 퇴근했냐, 이것을 출석체크를 했는데 제가 보름동안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체크되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 걸로 인정이 됐더라고요, 보위부에서.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풀려나왔고 오빠는 또 다시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생활하다가 97년도 11월 달에 제가 두만강 건너갔는데 97년 8월 달에 어떤 중국인이 한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중국에서 왔는데, 오빠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짐을 갖고 왔다, 너네 이모가 보낸 사람인데 짐을 갖고 왔다 이러면서 짐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짐이 필요 없다. 중국사람 나한테 거래하지 말라, 왜 나는 지금 누군가 지켜볼 것이다. 그랬더니 화장지, 그때 당시 화장지가

위생지가 빨간 거였어요. 빨간 거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화장실에서 써라 이라고 주더라고요. 주면서 눈짓을 그거 펼쳐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화장실가서 펼쳐보니까 거기 저희 오빠가 글자체가 적혀있더라고요. 나는 다 잘 있다, 중국에 있는데 애랑 데리고 다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참 울었어요. 울어가지고 그 짐을 제가 친구네 집에 다 옮겨놓고 그 사람보고 앉아서 물어보니까 오빠는 그때 당시 탈출해서 성공을 했고, 해서 연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전화번호 있는데 이것을 딱 버리고 머리에만 기억해라. 어느 순간 일이 있으면 여기에다 전화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11월 달에 우연치 않게 많은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12월 23일 날 제가 당증이 내려오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니까 내가 중국을 잠깐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 마이클 커비

몇 년도였습니까.

○ 권영희

97년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잠깐 중국에 갔다가 넘어올 것이다, 돈을 구하러 갔다 올 것이다, 해서 칠성리 새마

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문 브로커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아줌마하는 말이 너는 건너가면 못 온다, 왜 너는 반역자 집안이고 오빠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네가 이제 내가 너를 건네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점쟁이 까지 얹혀놓고 이 여자가 가면 건너오겠냐, 안 오겠냐, 이런 점까지 보여 주더라고요, 그 점쟁이 앞에서 그래서 점을 보니까 점쟁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럼 어느 날에 오라 가져해서 갔는데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이 여자가 나를 중국에다 팔아먹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갔었어요. 그 집을 알게 해달라고 저는 중국 갔다 넘어 올 생각을 했지 영원히, 올 줄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공장 친구를 하나 데리고 가서 이 집이다, 너는 들어오지 말고 이 집을 기억만 해라, 내가 만약에 중국 갔다 안 오면 이 집을 신고해라 이렇게 하고 친구를 멀리서 집까지 알려주고 그분하고 같이 건너오는데 뭐를 안고 왔냐, 강아지를 안고 왔어요. 강아지를 그분하나 내가 하나 안고 오다가 혹시 걸리면 먹고 살기 힘들니까 중국 가서 강아지를 팔려고 한다, 그때 당시 강아지가 50원 됐었어요. 그래서 잡히면 이것을 네가 먹고 살기 힘들니까 강아지 팔러 갔다가 잡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건너갔는데 성공적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어느 한집에 데리고 갔는데 이 브로커 여자가 이미 중국하고

연계를 가졌더라고요, 저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너 나를 팔면 너는 죽는다, 왜 내 공장친구가 너네 집을 알고 있다, 너랑 같이 건너 온 거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손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대로 내가 중국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할게 해가지고 이모가 데리러 오면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마 반반씩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제가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빠 전화번호 기억을 했으니까 했더니 오빠가 나타나지 못하고 친구를 보냈더라고요, 중국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를 받고 와가지고 택시타고 가다가 화통에 들어 갈 때 처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소를 피하기 위해서 눈이 가슴까지 왔는데 그 여자 두 명에서 연길까지 그 처소를 건너가는데 원래 처소 건너가서 밑에 내려가서 택시가 기다리게, 택시가 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통에서 연길까지 밤새 걸었었어요. 몇 십리, 뭐 길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도착해가지고 갔더니 저희 오빠가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에 저희조카하고 같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일단은 저는 또 오빠를 제가 설득했어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니까 오빠 같이 다시 건너가자 이대로 건너가면 남은 형제들은 뭐가 되냐, 왜 제가 그런 고초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건너가자고 해서 저희 오빠를 제가 3일 동안 설득을 시켰어요. 오빠는 나는 지금 당

중도 내려 와야 된다, 오빠하고 내가 없으면 저기 있는 언니하고 오빠가 또 잘못된다. 설득시키니까 오빠가 그러면 다시 가자, 저희 오빠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그런데 다음 날에, 다음 날 저녁에 그 집에 공안대가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오빠하고 저는 따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가 도망치다 보니까 갈라지게 되면서 오빠가 어디로 어떻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면 여기서 도망쳐서 네가 잡히지 않으면 어느 곳으로 오라. 해서 거기서 브로커 아줌마랑 저랑 오빠랑 3명이서 뛰다보니까 다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제가 오리는 곳에 갔더니 저희 오빠가 있는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까 저희 오빠가 하도 제가 북한에 다시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오빠가 공안대를 불렀더라고요. 저를 북한에 못 건너가게 하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브로커 아줌마는 북한에 다시 건너갔고 저랑 오빠는 중국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오빠는 한국에 있는 삼촌을 찾아 가지고 밀수배 그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헤어져가지고 흑룡강성 영안에 와가지고 4년 동안 살다가 건너오게 되었고, 건너오니까 저희 삼촌들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희 아빠는 납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 성함을 치니까 대한민국에서 납북자 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아빠는 북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너 가겠냐, 안 가겠냐, 그때 저희 아빠 가족은 아주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원주에서. 그래서 가겠냐, 안 가겠냐, 안 가면 너네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해서 저희 아빠가 가족을 대표로 해서 북한군한테 끌려갔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서 납북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빠 명예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알 만한 사람들에 우리는 납북자 가족이다, 의용군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떳떳하게 납북자 가족으로 살고 있고요.

지금 북한에 아직 오빠가 살아있어서, 제가 사실 여기 나오는 거는, 아, 그렇게 하고 4년 전에 저희 언니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북한에서. 우리남편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언니도 여기 와서 지금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학생들하고 같이, 오늘도 지금 윈어민 영어 수업이 있어요. 외국인들, 우리 탈북청소년들 위해가지고 저희가 5년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있고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 교실 탈북자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7년째 봉사하고 있고요. 저희언니도 여기 와서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고 오빠는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를 온다니까 저희 형제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왜 북한에 아직 오빠가 있으니까 아직은 오빠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저희 오빠가 제가 올 때까지는 강원도 원산에 있는 도안전국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저랑 없어지면서 거기서

어디 따로 또 내보낸 것 같더라고요. 안전국에서 어디를 갔는지 그 주소를 몰라서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냥 일단은 이런 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알려야 된다. 내 가족이 한명 오빠가 잘못되면 뭐 이왕 잘못된 거 이거는 알리고 싶다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본인이 북한에서 겪은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다, 가장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 권영희

가장 최악의 일이라면 거기 저희 아빠들하고 같이 의용군을 해서 입대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런데 봤을 때 그분들이 의용군 가족들은 한결같이 대우가 없어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넘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배려가 없고 또 최악이라고 본다면 그 가족들 자식들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 할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하소연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 북한정부가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악역으로 오지 그 받아들이는 것은 없어요, 그게 최악이고. 힘들었다면 그 가족들이 부모가 남한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족들이 뭘 죄를 지었다 할 때 감형이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 쪽으로.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오빠가 정치범수용소에 가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이고 한 4년 전에 북한에서 저희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 정치범 감옥에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저는 믿고 싶지는 않고.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가장 큰 불평이라면 그 성분에 따라서 비판하는 거 성분에 따라서 받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 오빠도 그런 차별을 받았고 또 연좌제 때문에 선생님이나 선생님가족이 겪은 그런 고통들 그런 게 가장 불공평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 ○ 권영희

예 그렇지요.

### ○ 마이클 커비

지금 생각해보시면 그래도 북한에서 살 때는 좋은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좋았던 생각도 했던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셨나요, 어떤가요.

### ○ 권영희

좋았던 점은 있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런 상황인줄 몰랐으니까 계급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또 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사라면 그래도 북한에서는 먹고 살만한 가족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또 아버지가 당 비서라면 그나마 인정을 해주는 집이다보니까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이 경제적으로도 뭐든 거는 문제가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때는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크면서 이게 계급을 따지다 보니까 또 자식들이 이런 문제를 한 번씩 겪을 때가 오면 아, 이것이 북한정권이구나, 이거는 아닌데 해도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지요.

### ○ 마이클 커비

그래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러한 정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한마디로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들은 없었나요.

### ○ 권영희

믿을 수가 없지요. 친구들은 믿을 수가 없고 솔직히 그 부부간이라도 서로가 감추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 만약에 내가 남편을 같이 산다하면

그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 남편이 다음 날로 혹시 가서 얘기하지 않을까, 가족도 믿지 못하는데 친구는 더 못 믿지요. 지금 여기 남한에 지금 한국에 지금 저희 친구들이 몇 명이 왔었어요. 와서 제가 지금 현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그때 당시 너네는 우리를 어떻게 봤었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네는 어떻게 살았냐,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냐. 나중에는 불리한 일이 생겼지만 그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너네는 어떻게 생각했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물어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참 안됐다. 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 같았으면 언론에 터뜨리면 되는 일을 그 나라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참 안 됐다고만 생각한다. 그렇게 밖에 우리 친구도 지금 와서 얘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지금 본인께서 하신 말씀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편께 여쭙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편 분께서는 부인이 하신 말씀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 ○ 박영학

저는 뭐 여기 남한에 와서 만나서 그랬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나와서 얘기하니까 참 얼마

나 고통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희는 사는 곳도 달랐고 살아온 그것도 완전히 다르니까 저렇게 살았을까. 잘 나가던 집이 저희처럼 처음부터 잘 못 나갔다면 후에 잘 나갔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 사회,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저 사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어릴 때부터 속아, 속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저희는 뭐 어려서부터 아주 안 좋은 대우를 받다가 후에 와가지고 뭐 좋은 대우를 좀 받고 하다가 좀 뭐 우연치 않게 정치적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남한에 왔으니까 뭐 살아온 거기가 다르고 저희는 어릴 적부터 차별대우를 해 주는 거는 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해서 느껴왔어요, 저희가 직접. 여기처럼 이렇게까지 험 줄은 모르고 그다음에 사람을 칠성인가 160리인가 되는 데를 뒤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다는 거는 저게 북에 있을 때도 들어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런 일을 후에 북에 있을 때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차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했다고는 또 뭐, 지금에 와서 와이프 뭐 오빠가 그렇게 당했다는 것 들으니까 더 아주 솔직히 그럴 수가 있느냐, 북한당국이. 참 저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저건 나라도 아니고 아마 큰 감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권영희

제가 저희 남편이 거의 다 아시겠는지 모르겠

지만 저희 아주버님은 박상학 씨고 제가 전단을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하루 와가지고 전단 날리면 기자들도 많이 오니까 너 얼굴 내보내도 괜찮냐. 오빠가 그렇게 처해 있는데 괜찮겠냐. 이런 질문을 저희 남편이 많이 해요. 그렇게 오늘도 여기 나올 때도 너 괜찮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오빠를 위해서 남아 있는 오빠가 전단을 보고 좀 여기를 제발 찾아오기를 바래서 그래서 나는 많이 보내고 싶다. 했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친구 언니가 그 전단을 갖고 여기 한국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언니, 우리가 보내는 건데 왜.” 자기 네가 군관 가족인데 황해도에서 군사복무를 한대요. 그런데 그 전단을 날릴 때마다 명절이면 저희가 보내니까 군관 가족들이, 군관 남편들은 밑에서 지키고 있고 와이프들은 올라가서 그 전단을 주워라. 왜, 그 전단에 달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올려 보내고 남편들은 밑에서 지키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자기가 이렇게 몇 번씩 주워가지고 그 달러를 주워서 쌀 사먹었다. 그래서 그거를 명절이면 많이 기다린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

거기 지금 그 언니가 온지 지금 4년 됐거든요, 여기 한국에 온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빠보다 저기 북한에 있는 우리처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또 배반자 가족은 어디 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만든 나라인데 그거라도 많이 보내서 그 돈이라도 주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우리 저번 주에도 한 2주 전에도 저희가 또 전단을 보냈거든요, 3~4개. 그래서 우리 아주버님도 항상 그래요. 얼굴 나와서 괜찮겠냐. 어떡하겠냐. 보내고 싶은 마음이나. 무조건 보내고 싶다. 왜, 이걸 통해서 우리 오빠 소식을 듣고 싶어서 나는 보내고 싶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싶다.

또 우리 탈북 자녀들을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탈북민들이 좀 중국에 지금 잡혀가지고 청소년 잡혀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 우리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왜, “탈북자, 너 엄마가 탈북민이고 너도 탈북자잖아.” 이러면 “저는 탈북자지만 저는 나서는 쉽지 않겠지만 편지를 써서 선생님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일단 보내려면 돈도 들고 하니까 교회 측에 가서 “우리 애들 소망이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정치적이라고 다 안 나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 편지는 아직 묶여있어요. 묶여있고 한 부는 저희가 저번에 전단 날릴 때 거기다 속에다 이어서 보냈어요, 우리 애들 편지를 가서 닿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은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그 탈북

민들, 봤을 때는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을 살았, 12년을 살았지만 저도 여기 와서 많은 고초를 다 겪었어요. 뭐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식당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 많은 걸 다 겪었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지금 8년째 봉사하고 있고 그 우리 탈북민들 교육하는 데마다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이다. 정착을 해라. 희망을 가지지 말라. 다시 북한을 간다는 꿈을 꾸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 여기 와서 가끔씩 정착을 못하는 분들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로 인해서 내 가족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상처를 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 ○ 마이클 커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부인하고 남편 사이에도 사실 북한에서 살면서 두 분께서 서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부인께서 남편한테 얘기를 그전에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왜 남편께 그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나

요, 전에.

### ○ 권영희

제가 선뜻 말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가슴에 담기 싫어가지고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얘기해봤자 그것이 물론 의지는 되겠지만 또 저희 남편하고 제가 북한에서부터 같이 살아서 이 모든 경황을 겪었으면 서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와서 만나서 우리 남편 가족은 그래도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가족으로 해가지고 살고 저희도 그래 좋게 살다가 우리는 내리막에서 왔고 너희 남편은 올리막에서 왔고 하다 보니까 생각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뜻 내 마음을 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인터뷰 할 때도 인사를 하면서 그때까지 인터뷰 어떻게 얘기했다는 말 저희 남편에게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오늘 오는 것도 저희 남편 자꾸 걱정을 했거든요. 얼굴 나오는데 괜찮겠냐, 괜찮다 해가지고 지금 그 옆에도 앉고 아까부터 앉으라는데 그 뭐야, 내가 앉아서 무슨 할 말 있겠냐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의지는 되고요. 내가 가슴의 상처를 자꾸 얘기해봤자 내 마음만 아플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 ○ 마이클 커비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공청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고 남편분도 함께 오시기로 하셨지 않

습니까, 감사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권 선생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여쭙게요. 무산에서 살았다고 그러셨지요. 처음부터 무산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산에 살기 전에 다른 곳에 살았습니까.

### ○ 권영희

처음부터 무산에서 태어났고 올 때까지 무산에서 살았어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처음부터 무산에서 쪽 사셨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 ○ 권영희

아,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그 한국에서 살다가 포로 되어 가지고 국군 그 뭐야, 납북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전쟁시기에는 어디서 산지는 모르겠고 전쟁이 끝나고 저희 아빠는 1211고지에서 북한에서는 많이 일러지는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된 게, 제대되어서 받은 곳이가 무산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군대 가서 의사를 하다가 제대된 곳이 무산이요. 그래서 무산에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저희가 태어난 거죠. 저희 아빠 고향은 여

기 강원도, 남강원도 원주이고요. 엄마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났고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에서는 쪽 무산에서만 살았는지요. 처음부터 북한당국이 무산에 가서 살라고 했나요.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이 예를 들어서 평양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갈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북한당국이 부모님께 “무산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산에서 살다가 평양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습니까.

### ○ 권영희

그건 저희 부모님들은 당국에서 “무산에서 살아라.” 이래서 보내서 무산에서 살게 되었고요. 저희 북한의 지금 사촌언니가 평양에서 살고 있어요. 평양에서 저희가 평양을 몇 번 놀러도 갔었고 할 때마다 그때 당시는 괜찮게 살았었으니까 평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기회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산 그 보위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우리 조카도 거기, 저희 엄마가 조카도 거기서 사니까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족을 거기다 옮길 수 없겠냐 했더니 옮길 수 없다. 너희는 무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렇게 해서 무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그때가 처음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차별대우라는 것을 받은 것인가요. 무산에서 평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가 선생님의 가족이 처음으로 겪었던 어떤 차별대우였나요.

### ○ 권영희

차별, 저희는 어렸을 때 차별을 몰랐으니까, 몰랐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느꼈고 또 저희 엄마 외가 쪽이 지금 중국에 친척들이 좀 있었어요. 중국에 가려고 많이 신청을 했어도 그게 다 보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든 평양 쪽이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거는 차별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차별한다는 것을 느꼈지요, 저희는 어려서 못 느꼈었고.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평양으로 이사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 ○ 권영희

알게 되었고, 들었었고 그때는 제가 다 컸었으니까 아,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 차별을 받는

구나하는 걸 느꼈지요. 일단은 언니부터 모든 것이 다 차별이 되었으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학도 못가고 가고 싶은 군대도 못가고 갖고 싶은 연인 자리도 못 갔었고 이것이 다 차별이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차별하나 때문에.

### ○ 마루주키 다루스만

부모님께서 무산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나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는 식의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 ○ 권영희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부모도 그거를 자식들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고향이 남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든 갈 수가 없다는 거를 말할 수 없어요. 왜, 매주 그 의용군이라든지 남한가족들은 매주 금요일 마다 강연을 해요. 교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줄 때는 자식들에게 이런 교육을 주려는 거를 항상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받은 얘기도 우리한테 얘기할 수가 없고 부모들 때문에 너네가 지장을 받는다는 거를 얘기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권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의사이셨다고 말

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당 비서라고 하셨지요.

○ 권영희

예.

○ 마루주키 다루스만

어머니께서는 의학공부를 어디서 하였나요.

○ 권영희

그거는 전쟁 시기에 군대에 가서 그때부터 의사공부를 하면서 전쟁 때부터 간호사로 있었던 거지요. 간호사로 있다가 간호사 생활이 오래 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의사를 되면서 군대에 그 해방이 되면서 무산군 병원으로 받은 거지요. 병원 산부인과, 처음에는 산부인과로 받았다가 외과 의사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외래과 의사로 발령이 된 것이지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어느 병원으로 보내졌습니까.

○ 권영희

무산군 병원이요, 군병원 이라고 있어요. 무산군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 받은 것이지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아버지께서 당 비서, 당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한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당에 들어 갈 수 있나요.

○ 권영희

그것은 전쟁 시기 군대가 해방돼서 제대되게 되면, 제대돼서 근무지, 각 근무지에 배치되게 되면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선발해서 한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북한에서. 키워주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빠가 되어서 바로 입당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형제를 맺은 다른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당원입당을 못 했었어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따라서 그러면 남한태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대계층에 있는데도 선생님의 아버님은 당에 들어 갈 수 있었고, 그것도 엘리트로 인정을 받은 것인가요.

○ 권영희

예, 그렇지요.

○ 박영학

많은 의용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한 사람 내세워서 저 사람

처럼 당에 충실하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하  
게끔 한사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이  
렇게 돼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에 충실하  
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선  
정된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감시는 여전  
히 된다, 그것입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지원할 수가 없었  
네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이  
네요.

### ○ 권영희

예, 그렇지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남한출신의 부모가 있던 다른 아이  
들도 이러한 종류의 차별대우를 받았나요.

### ○ 권영희

그거는 제가 한 두 가정을 아는데 의형제를  
맺다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큰아빠, 큰아빠하고  
믿고 다니던 집인데 그 집 부모들은 자체가 의용  
군이라는 그거를 해가지고 입당도 못했었고 입당  
못했다는 거는 정부에서 그 가족을 크게 밀어주  
지 못하는 것이지요. 차별하다보니까 자녀들은  
공부를 해도 아빠가 입당도 못하는 자식이니까

그것을 꿈을 못 꾸고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지  
요. 그런 자식들은.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강제적  
비자발적 감금 및 납치 실무자 그룹에 서류를 제  
출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었나  
요. 선생님께서 저희와 만나기 전에 강제적 비자  
발적 실종관련 실무그룹에 선생님의 이 사연을  
전달한 적 이 있지요. 그 이후에 전달한 이후에  
더 진행된 것이 있나요. 어떤 소식을 듣거나 사  
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갈을 받았  
나요. 이 실무자 그룹으로부터 언제 선생님의 사  
연을 전달했지요.

### ○ 권영희

한 3주 정도 제가 그거를 알게 되었고 3주전  
에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인터뷰 한번 받고 그 이  
후에는 들은 적은 없고 오늘 세 번째로 지금 나  
온 것이고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죄송합니다. 권 선생님 그 자의적 구금관련  
실무자 그룹에게 오빠를 대신해서 자의적 구금관  
련 실무자 그룹에게 선생님가족의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이, 상황이 어  
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 권영희

진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는 들은 적이 없고 오늘 청문회하는 것만 들었고 그전에는 인터뷰 하고 들은 적은 없어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자의적 구금관련 실무자 그룹에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몇 년도였습니다.

○ 권영희

올해 처음이고요, 3주전에 그때 처음 해보고 그전에 한 것은 없어요. 2개월 전이에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상당히 많은 남한사람들이 자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전쟁포로이든 간에 납치되었던 간에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에 상당히 남한 출신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남한출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지라고 느끼나요, 그리고 남한출신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처음에 선생님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법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권영희

남한에서 온 가족들은 일단은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분들은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많이 가깝게 다니고 있고, 차별은 예전에 남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렸을 때 못 느꼈었고 커가면서 그것을 차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에 졸업할 때 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전에는 못 느꼈어요. 그 부모가 고향이 어디인가는 알고만 있었지 북한정부에서 이렇게 차별을 준다는 것은 못 느꼈었어요, 어려서는.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고.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그 남한출신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깝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입한 어떤 조직이 있나요.

○ 권영희

가입한 조직은 없고 군당에서 매주 마다 그분들 모아놓고 교육을 주는데 거기서 서로 알게 되는 거지요 알게 되어서 집 근처 가까운 분들은 의형제를 맺는 거고, 형제가 없으니까 서로가 형동생 하면서 의형제를 맺으면서 가깝게 지내는 것이지요.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이 조직은 비공식적인 것인가요, 공식적인 것

인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람들을 조직으로 만든 것이지요.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인가요.

○ 권영희

이거는 비공식이고요. 정부에서 마련한 자리이고요. 여기에서처럼 모임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인원 체크해가지고 의용군 가족들 해가지고 체크해서 모이게 하는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당국은 북한이 계급사회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오빠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트럭으로 끌고 다닐 정도로 가혹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짓말이다, 따라서 증언을 하는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희

그거는 추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자기네가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북한당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부인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네가 그런 일을 해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하는 것이지요.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희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 이처럼 저희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분께서 주신 증언은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어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 USB 바로 지난 번, 바로 전에 증언을 해 주신 김광일 선생님의 증언에서 언급되었던 전거리 교화소 사진이 들어있는 USB를 저희가 또 증거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북한에 가족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C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 쪽에서는 선생님의 성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선생님을 C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 Ms. C

예, 괜찮습니다.

○ 마이클 커비

용기를 내서 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 된 말씀을 저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Ms. C

예.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선 선생님께서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본인에게 어렵거나 힘든 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떤 사유로, 어떤 연유로 저희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언제 한국에 도착하셨는지 그리고 또 저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Ms. C

1976. 4. 17. 함경남도 정평군 북평리에서 태어났고요.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아버지는 철도산하 건설여단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부양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 집은 그저 평범한 집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저 무선 잘 살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대기근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좀 침착하게 물 한잔 드시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침착하게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선생님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북한에 1990년대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대기근 때문에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 Ms. C

예. 94년도부터 제가 살던 곳에서 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 가지고 94. 9. 7. 어머니가 사망됐고 97. 2. 16. 아버지가 사망됐고 96년, 막, 말을 막...

○ 마이클 커비

침착하게 하세요, 선생님. 숨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침착하게.

○ Ms. C

97. 4. 언니하고 막내 동생이 열흘 차이로 다 아사를 했고 98. 8. 7. 남동생 아이가 아사를 열차에서...

○ 마이클 커비

그 사셨던 곳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

나요, 이야기해 주셔도 안전할까요. 사셨던 곳이 어디였지요.

○ Ms. C

함경남도 정평군 북평리요.

○ 마이클 커비

그 당시에 배급을 받고 계셨나요. 받고 계셨다면 어디서 받고 계셨지요.

○ Ms. C

93년도까지는 배급이 그래도 북평리에, 북평리 배급소에서 받았지만 94년도부터는 배급이 몽땅 끊겼어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때 밀이나 곡물, UN이 보냈던 곡물이나 밀을 받았는지, 보셨다면 그게 해외에서 온 그런 식량이라는 것을 아셨는지요.

○ Ms. C

곡식은 낱알을 보지도 못했어요. 배급이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줬던 그 식량지원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경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Ms. C

시장에서는 “중국 강냉이요”하면서 파는 것을 본 적은 있어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이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Ms. C

94년도 저희 어머니가 사망될 당시는 그래도 배급을 그저 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줬어요. 그러다가 95년 설에 잡히면서 배급이 몽땅 끊겨가지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19살 때 어머니가 사망 됐으니까 뭐, 뭐 95년도부터는 들판의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었고 심지어 벼 뿌리도 캐서 말려먹는 정도가 되었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영양이 딸리면서 먹지 못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2. 16, 96. 2. 16. 새벽에 그저 그 영양실조로 사망되셨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고 나가...

○ 마이클 커비

두 분이 정확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기아였나요, 다른 것이었나요.

○ Ms. C

아유….

○ 마이클 커비

그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곳이 없던가요. 아주 기본적인 식량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 전혀 없었나요.

○ Ms. C

없습니다. 그저 뭐 친척 집들 가서 조금씩 우리는 배급제니까, 배급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고정하다보니까 장사도 몰랐고요. 글도 안 하니까 그 배급이 혹 끊기니까 그저, 그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언니도 뭐 말주변도 없고 고정하고 하니까 내가 좀 세차다 할까. 그래 가지고 친척들 집 가서는 옥수수 뭐 한 대면 한 대 이렇게 얻어가지고 와서는 또 그거 풀 뜯어서 가루내서는 하루 한 끼씩 풀죽인지 돼지죽인지 모를 그런 거를 먹고 살았어요.

○ 마이클 커비

이게 상황이 좀 나아진 적이 있나요. 나아졌다면 언제 나아졌지요.

○ Ms. C

상황은 제가 있을 당시에는 괜찮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지고 언니가 4. 12, 97. 4.

12. 언니가 그저 옥수수 국수 한 사발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는 갔고 16살… (울먹이며) 16살 동생도 빵 하나만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동생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가족이 죽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몇 년이나 지속된 것인가요.

○ Ms. C

제가 97. 4. 12. 언니가 죽고 4. 26. 막내 동생까지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이 좀 바뀌어 졌어요. 그때 당시 그전에도 그저 오직 나라만 믿고 그저 장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모들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까지 다 죽었다고 저는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뭐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강냉이, 옥수수를 뜯어내오면 뭐 맞아대겠고, 아이면 옥수수 밭에 앉아가 틀고 앉아서 생 옥수수로 배 채우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든 살아나겠다고 그러다가 98. 8. 7. 동생이 열차에서 뭐, 그때 당시 북한이 열차가 잘 뛰지 않으니깐 한번 연착이 되믄 막 열흘 막 그렇게 가니까 아마 동생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안에서 아마 그 사망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더는 거기서 좀 살기 힘들, 힘들다 할까. 그래 가지고 99. 4. 6. 이모가 단천에 한 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모네 집에 식량 좀 구해서 한식, 한식을

좀 몇 밥이라도 뜯까 하고 갔다 와서리 한 저녁에서 어떤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중국으로 오게 됐어요. 북한에 있는 동안은 악화됐지, 나아지지는 않았습시다.

○ 마이클 커비

그럼 이 브로커가 선생님의 관심을 어떻게 끌었지요. 분명 말로 이말, 저말 했을 텐데 무슨 말로 선생님의 관심을 끌었지요.

○ Ms.C

저보고 량강도 대홍단이라는 데 있거든요, 대홍단군 거기에 감자를 많이 심어요. 그래 가지고 량강도 대홍단에 가면 언 감자라도 주워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따라 떠났어요.

○ 마이클 커비

이 브로커요. 북한주민이었나요, 아니면 북한 조선족이었나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었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지요.

○ Ms. C

북한사람이지요.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이브로커가 선생님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 Ms. C

차타고 무산으로 갔어요.

○ 마이클 커비

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 Ms. C

우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저하고 같이 떠난 언니 두 분이 있었거든요. 3명이 떠나가지고 브로커까지 4명이 해가지고 무산에 한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한 며칠 묵었어요. 며칠 묵으면서 4월 25일 날 새벽에 도강했어요.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신 거네요. 그렇게 도강을 하는 게 사실 북한의 형법을 어기는 거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 Ms. C

건너편이 중국인줄 몰랐습시다, 대홍단인줄 알았지. 건너가서 알았습시다, 거기가 중국땅이라는 것을.

○ 마이클 커비

자, 일단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 Ms. C

중국에 도착해서 건너편, 두만강 건너편에는 그때 당시 아마 촌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갔던 집이. 그 집 갔다가 그 집에서 우리가 화룡으로 시내로 들어갔어요. 화룡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한족들한테 중국사람 들한테 우리를 팔았지요.

○ 마이클 커비

그렇게 팔려 가는데 암전히 팔려가셨나요

○ Ms. C

그때 당시는 말도 모르고 그때 서야 그게 중국이라는 거를 안 이상 말도 모르고 어디가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저 암전히 팔려갔지요.

○ 마이클 커비

우리라고 했으니깐 그때 누구, 누구같이 있던 것이지요, 같이 팔려간, 팔려간 사람들이 누구, 누구이지요.

○ Ms. C

그때 33살 난 금야에, 윗집이 금야 언니 한명 있었고 그때 당시 37이든지 47이든지 그 언니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중에 어리다 보니까 화룡 도착한 그날 밤 10시로 중국사람 집에 갔어요.

○ 마이클 커비

일단 그 사람은 집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 Ms. C

그냥 그 집에서 살아야지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잘 해주셨나요.

○ Ms. C

민족이 다르고 말 못하니까 처음에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했어야 했지요.

○ Ms. C

산골이다 보니까 그저 농사일, 콩 농사 했어요.

○ 마이클 커비

어떤 일이었나요, 어떤 농사였나요.

○ Ms. C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 마이클 커비

어떤 일을 했어요.

○ Ms. C

콩 농사요.

○ 마이클 커비

먹을 것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주었습니까.

○ Ms. C

아무래도 그 집에 일꾼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중국에는 남자들이 장가 못간 남자들이 많다보니까 북한에서 여자들이 오면 결국은 아내로 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월급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는 배곯았지만 중국에 가서는 배는 안 곯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선생님을 산 그 남자가 남편이 된 것인가요.

○ Ms. C

예.

○ 마이클 커비

그 중국인 남편은 선생님한테 잘해주었는지

요, 아니면 잘 못했나요.

○ Ms. C

남편이 저보다 11살 위니까 술을 마시고 주정이 심하지요. 그러니까 잘 했다기보다도 매가 많았지요.

○ 마이클 커비

나중에 매 때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나요.

○ Ms. C

성격이 괴팍하다보니까 좀 절대로 여자 앞에서 미안하다는 소리 없어요.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이남자하고 부부처럼 얼마동안 살았나요.

○ Ms. C

10년이에요.

○ 마이클 커비

이 남자하고 부부로 살면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 Ms. C

예.

○ 마이클 커비

그 아이들은 지금 그 남편과 중국에 살고 있  
나요,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한국으로 왔나요.

○ Ms. C

아버지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자식은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 Ms. C

한명이요.

○ 마이클 커비

1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북한으로 되돌아  
갔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Ms. C

사실 제 남편이 환자다보니까 제가 벌어서 아  
이도 공부시키고 남편이 주사도 맞고 그랬거든  
요. 제가 안도 약농원에서 한 3년을 일 했어요.  
그러다가 이는 언니들 해가지고 한국 손이 있다  
고 해가지고 연길에서 만나자 해서 2009년 3월  
27일 날 제가 연길로 갔어요. 연길로 갔는데 언

니들이 일이 있어서 다음 날로 다시 만나자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안도로 돌아오려고 차표를 사  
가지고 저녁 7시 반 열차 차표사가지고 역전에서  
있다가 제가 핸드폰이 전화비 전화가 돈이 떨어  
져서 전화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 칠라고 바깥에 나가자니 출  
지 해가지고 연길역이 2층이니까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 공용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용전화에 가서 남편한테 전화비 돈 내라 해가  
지고 전화하는데 옆에 역전경찰이 저를 보더니  
거기서 단속됐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경찰이 북조선 인민경찰이었나요, 아니면  
중국 공안이었나요.

○ Ms. C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중국공안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 Ms. C

저를 단속해서 신분증을 보자고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신분증이 없다 병원에 오는 길에 뭐 신  
분증을 갖고 다니냐 하니까 주소를 데라는 거예  
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주소를 댔어요. 근데 용  
지주면서 글을 주소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글을 볼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내가 북한사람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돈 핸드폰 다 압수하고 도문으로 그날 15분 후에 저를 도문으로 호송됐어요. 도문 변방대로.

○ 마이클 커비

그이후로 남편과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인가요.

○ Ms. C

예.

○ 마이클 커비

도문으로 가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한통이라도 걸 수 있었나요.

○ Ms. C

못 걸게 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 Ms. C

그래 가지고 제가 도문 변방대에 7시 30분, 8시 반쯤 돼서 도문변방대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도문변방대에서 몸수색 다하고 감방에 올라가니까 감방에 북한여자들이 아마 한 24명인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3월 31일 날 북한원성으로 넘었지요.

○ 마이클 커비

몇 년도였지요.

○ Ms. C

2009년도.

○ 마이클 커비

그래서 북한으로 되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Ms. C

제가 북한보위부에 한 3월 31일 날 북한보위부에 넘어가서 4월 7일 날 다시 원성완소로 다시 넘어져가지고 6월 2날 청진집결소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청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 Ms. C

청진에서는 집결소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탈북자들 다 배반자라고 하잖아요. 반역자고 그러니까 집결소에서는 완전히 사람이라기보다도 짐승에서 조금 벗어난다 할까 그렇게 일했지요.

○ 마이클 커비

그 당시에 환경은 어땠나요, 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나요.

○ Ms. C

그때 환경은 집결소는 감옥처럼 그렇게 철창 쳐놓고 있지만은 감옥보다는 좀 낫다하겠는지, 그렇지만 먹는 거는 통옥수수를 사절 낸 그것을 씻기다가 절반도 안 되게 주고 국은 염장국이, 모두 배고파서 그저 우리 탈북자들이 월경자들이 지나간 자리는 풀도 안 남았어요. 풀도 다 호주머니에 뜯어서 생풀이라도 그 국이나 넣어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짐승보다 못하지요.

○ 마이클 커비

먹을 것은 충분히 주었나요.

○ Ms. C

아니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렇다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를 한 적이 있나요, 불평을 한 적이 있나요.

○ Ms. C

불평도 못하지요, 호소도 못하고. 죄인이 무슨

불평하고 무슨 호소해요.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구금집결소에서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나요.

○ Ms. C

집결소에서는 신문이나 조사는 안 해요. 일을 시키지. 신문이나 조사는 보위부나 보안소에서 해요.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보위부에서 신문을 할 때 신문을 어떻게 했나요. 보위부에서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신문을 하던가요.

○ Ms. C

보위부에서 신문은 그 원송 보위부는 여느 보위부도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원송 보위부는 들어가는 구멍이가 개구멍처럼 요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저 담당 보위지도원이 나오라하고 나가서는 뭐 경로를 쪽 물어봐요. 어떻게 돼서 중국 건너가게 됐고 뭐 북한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고 그럴 때 그때 당시 저는 거기 뭐 대학원 다니는 줄 알고 건너갔다 했으니까 뭐 크게 남들처럼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몇 년형을 받았나요.

○ Ms. C

형을 안 받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얼마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얼마가 지난 후에 풀려난 것인가요.

○ Ms. C

제가 집결소에 석 달, 그러니까 6. 2. 집결소로 와서 9. 22. 제가 살던 북평으로 다시 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 Ms. C

그때 당시 제가 다리를 상해서 걷지 못할 형편에 되어 가지고 한 6달은 북평리 식당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다리가 나스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나를 과수반으로 배치 해다 보내니까 과수반, 작업반 옆에 탁아소, 그 탁아소에서 생활했어요.

○ 마이클 커비

그 탁아소 옆에서 산 게 맞나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 Ms. C

그러니까 그 낮에는 내 나가 일하든 그게 탁아소 아이들을 보고 저녁에는 제가 거기 들어가 자고, 결국은 그렇게 했지요. 과수반 일은, 북한의 과수반 일은 그저 땅 파고 과일나무 가꾸고 그런 일이지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과수반에서 일하면서 과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과일을 못 먹게 했나요.

○ Ms. C

그 밭 과일은 못 먹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일하니까 따 먹을 거는 따 먹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두 번째 탈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 2. 두 번째로 탈북한 것 맞습니까.

○ Ms. C

탈북은 3. 8. 했습니다. 집에서 떠나기를 2. 21. 떠나서 제가 단천 이모네 집에 먼저 갔어요. 이모네 집에 갔다가 이모가 저한테 여비를 3만원 주는 그 돈으로 제가 다시 양강도 쪽으로 해

서 압록강을 3. 8. 다시 건넜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때 강을 건널 때 경비대가 선생님을 못 가게 막았나요, 아니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나요.

○ Ms. C

그때 당시 제가 3. 8. 오전에 대낮에 제가 넘었는데 그때 당시 경비대가, 경비대 군대가 자기 초소 돌아보고 부대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좁은 사이로 해서 건넜습니다.

○ 마이클 커비

중국에 가서는 그러면 그때 무엇을 했나요.

○ Ms. C

그 중국에 가서 다시 제가 본래 살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뭐 차마 있을 형편은 못 됐어요. 뭐 아버지도 앓지, 아도 저리다 컸지 하니까 공부는 해야지. 그래 가지고 제가 6. 20. 다시 본래 제가 일하던 안도 양로원에 또 갔어요. 거기서 석 달 일하다가 9. 10.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 마이클 커비

어떻게 남한으로 올 결심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지요.

○ Ms. C

사실은 뭐 2004년도부터 저한테 남한으로 오는 손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가 한국에 올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솔직히 말해 중국을 모르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제 댄에는 애국가랍시고 한번 반역하지, 두 번은 반역 안 한다 했는데 요번에 북송돼서 보니까 그것,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솔직히 그래 가지고 탈북해서 다시 한국, 여기 한국 손이 맞아서 큰 결심을 먹고 한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생각에 한국에 와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Ms. C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남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Ms. C

아니요.

○ 마이클 커비

남한의 젊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Ms. C

한 60%는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마이클 커비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고, 또 당국으로부터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60%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 Ms. C

지금 한국의 젊은 분들은 우리, 그런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하는 소리를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없는 소리도 만들어서 한다고.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없는 말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북조선 당국이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조선 당국도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Ms. C

뭐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자기네 진상이 밝혀지니까 그걸 거짓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탈북자들이 증언하는데도 내가 듣기로도 어떤 거는 좀 과한 게 있어요, 같은 탈북자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보다 붙이는 게 더 많다고 봐요.

○ 마이클 커비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 Ms. C

그거는 많이 들었어요.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선생님 자신은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일은 없었지요.

○ Ms. C

예,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요. 이 구금소리든지 집결소들에서 선생님이 중국에 어떻게 가게 됐고 했던 사실들을 다 받아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Ms. C

예.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C 여사님, 감사합니다. 그 폭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지요.

○ Ms. C

예.

○ 마루주키 다루스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폭약공장에서 일하는 것은요. 어떻게 폭약공장에 가게 됐지요.

○ Ms. C

거기는 폭약공장이 아니라 탱크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래서 사실 그런 공장에 가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공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공장에 가겠다고 지원을 했나요. 어떻게 그 공장에 배당을 받게 되었지요.

○ Ms. C

92년도 우리 한남도 졸업생들은 군대 나가고 농장 자식도 내놓고 직장군들, 직장 자식들은 무

리 배치로 그 군수에 가게 되었어요, 군수공장에. 그래 가지고 무리로 걸려서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그 공장에서 월급을 받았나요. 월급이 얼마였나요. 월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나요.

○ Ms. C

아니요. 그때 당시 월급이, 월급이라기보다 우리는 들어가서 6개월은 견습공으로 일해요. 견습공으로 선발, 견습공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월급은 정확히 그때 얼마 받았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요, 견습공으로 있다 나오니까.

○ 마루주키 다루스만

북한통화는 남한 돈하고 똑같나요. 북한 돈과 남한 돈이 똑같이 원인가요.

○ Ms. C

원입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원으로 몇 원을 받으신 것인가요.

○ Ms. C

그때 당시 아마 100원 아래인 것 같아요, 92년도.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게 일주일 일하고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수당이 그렇게 나온 것인가요.

○ Ms. C

한 달에 한번 씩 지급되지마는, 잘 지급이 안 돼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만일 그달 돈을 안 받으면 그 다음 달에 돈을 받았나요.

○ Ms. C

예. 그렇게 밀려서 주고 어떨 때는 막 6개월 씩 밀리고, 밀려서 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6개월 동안, 그렇다면 6개월 뒤에는 돈을 다 받았던 것인가요.

○ Ms. C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그때 당시 돈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석 달에 한번 줄 때도 있

고, 석 달에 한번이라고 석 달 거 한번 몰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석 달에 모아서 한 달 치씩 이렇게 줘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월급도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갔어요, 먹을 것을 어떻게 구했나요.

○ Ms. C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러면서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나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서 저축을 할 수 있었나요, 돈으로 뭐를 했지요.

○ Ms. C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표쪽지를 줘요. 그 표쪽지가 돈 대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표쪽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그 표쪽지를 주면 이만한, 제하고 제하고 하고 나면 그저 한 우리손에 들어오는 거는 한 30십얼마 그렇게 들어 왔어요. 한달에 92년도에

○ 마루주키 다루스만

30십원 그러면 한달을 받았다면 그것을 저축



을 하였나요.

○ Ms. C

예, 집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쫓지요 94년도 나오면서 제가 좀 허리를 다쳐서 이숙이는 일을 못해서 병원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에 보낸다기보다도 저는 돈을 월급을 좀 많이 못 받았지요. 병원생활 많이 하다보니까.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저축할 돈도 얼마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그나마 있던 돈을 가지고 매일 매일 살아야 했으니까요.

○ Ms. C

그때 당시는 그래도 무상치료제 되가지고 약 쓰고 하는 거는 돈은 안 들었어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볼게요. 어떤 증언들을 들어 보면 좀 과장된 것 같더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Ms. C

예.

○ 마루주키 다루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과장됐다고 느꼈습니까.

○ Ms. C

솔직히 말해서 TV도 나오잖아요. 북한여인들이 앉아서 말하는 거 그거라고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정치 쪽으로 많이 가면서 솔직히 말해서들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겪은 일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과장이 되지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증언 중에서 과장되지 않고 진실 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Ms. C

부모형제가 다 아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는 먹을 거 없고 지금상태가 북한에 기차도 안 뛰고 그거는 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진실입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남한에 오기 전예요. 3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가 식량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식량문제가 아직도 북한에서 그렇게 심각한가요.

○ Ms. C

예, 작년에 제가 작년 3월에 탈북하기 전만해도 제가 탈북과정을 한 500리를 걸었거든요, 김책에서 해산까지. 걸으면서 제가 두 집을 들렀는데 말 못할 정도였어요. 언 감자도 없어서 못 먹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부평리만 해도 농장원으로 살 때만 해도 작년, 재작년 12월까지 그러저럭 도둑질해 먹든 어쨌든 낱알은 12월까지는 존재했어요. 1월부터는 모두 낱알이 없어서 근심이 하늘만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2월 21일 날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제 수중에 그저 낱알 있는 거는 옥수수 한 20kg, 쌀 5kg 이정도 됐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감사합니다.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하고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올 생각이 있으신지 데리고 올 생각이 있으시면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 Ms. C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하고 방학이다 보니까 매일 전화연결

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남한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것인가요.

○ Ms. C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원을 나온 지도 이제 3월 말에 나왔으니까 넉 달이 됐거든요. 넉 달, 다섯 달. 그렇게 됐는데 저도 정착을 못했거니와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한국말을 전혀 몰라요. 한족이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 통하는 우리도 여기서 정착하기 힘든데 말 모르는 아이가 와서 정착하자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이가 어지간히 다 큰 다음에 이제 아이가 14살이니까 아마 고중, 고중 다닐 때 그때 좀 생각해 보려고요.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미성년자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데에 중국법이 허락을 할까요.

○ Ms. C

중국법이라기 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중국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자면 아버지 쪽에 그 아이를 포기한다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된 대요. 그렇지만 한족들 같은 경우, 어느 한족이고 어느 나

라사람이건 제 자식을 그렇게 포기를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자면 아마 남편 같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남편을 설득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지요.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여사님처럼 중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그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11년 동안 중국인 남편과 살았을 때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혹시 여사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렇게 했나요, 집을 못나가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 Ms. C**

그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 마음대로 도망쳤어요.

**○ 마이클 커비**

감사합니다. C 여사님 오늘 이처럼 공청회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여사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휴식을 취하고 2시 5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4. 14:18 재개>

**○ 마이클 커비**

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제5회자 공청회 오후 세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실 분은 김영환 선생님이십니다. 김영환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희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선생님의 성함을 기록에 남김에 있어서 또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가족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본명을 이번 공청회에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으신 것이지요.

**○ 김영환**

예.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실된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김영환**

예.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우선 북한에서 자라나면서 성장과정

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느끼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환

예.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남쪽,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주로 서울에서 주로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1980년대 반정부, 반체제 학생운동에 가담을 해서 그때 사회주의 운동과정에서 친북한적인 그런 사상에 경도되었고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일성과도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체제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사상을 바꾸어서 그 이후에는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6년 동안 주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한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북한 인권운동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검거가 되어서 4개월 정도 중국에서 구금되어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탈북자는 아니지만 지난 16년 동안 중국

과 북한의 국경지역을 오가면서 탈북자들을 대단히 많이 만나고 그 과정에서 탈북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각종 북한에 관한 정보 그리고 북, 중 국경지역에 관한 상황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직접 목격한 그런 각종 인권유린 현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준비해온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 ○ 김영환

먼저 북한중국 국경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이탈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북한체제에서 왜 그렇게 심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소련이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 ○ 마이클 커비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 ○ 김영환

예,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북한에서 왜 지난 10년~20년 동안

그렇게 대규모 탈북자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심한 상태로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좌향적인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셔서 북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입지가 바뀌게 된 것인데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왔고 다만 북한의 그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이 결정이 바뀐 거라고 봐도 될까요.

### ○ 김영환

예. 제가 저희들은 다른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그런 평등사회를 지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북한에 가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북한은 말로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불평

등한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철저하게 각종 계급으로 나누고 그 계급에 따라서 식량배분도 차등을 두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계급이 나쁘면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천대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기도 하고 탈북자들에게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회주의 운동 혹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 받는 사람,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식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탈북자들의 그런 각종 증언을 지속적으로 들어보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 받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민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북한민중을 위한 그런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상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 ○ 김영환

예, 그래서 북한체제에서 그런 어떤 극심한

인권유린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째는 소련이라든지 구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일반적인 공산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산주의 변태독재 체제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각종 어떤 독재와 폭력 인권유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북한특유의 그런 수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극심한 독재와 폭력, 인권유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는 스탈린독재와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지만 그러나 스탈린독재보다도 훨씬 더 극심하고 훨씬 더 원시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에서 정치적인 탄압과 심각한 인권유린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이 어떤 계기를 보면,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계기는 김일성이 독자적인 그런 권력을 강화하는 광범한 그런 정적들을 숙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발생했고 그보다 더 많은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은 후계자인, 자기 아들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그 후계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집중적으로 극심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뭐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했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습체제가 또 스탈린 체제와는 또 달리 더 극심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요소나 요인 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과 남북 간의 그런 어떤 체제 경쟁 혹은 대치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남침과 적화의 그런 지향과 욕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반대의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해 올까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면도 일부 있겠지만 한국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북한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동경심을 느껴서 북한 체제가 상당히 위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심이 어떤 북한주민들이 생활과 기타 모든 측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철저히 처벌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 중 국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북자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그 탈북자 수가 국내에 들어오는, 한국적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2009년 2,999명까지 되었지만 그것이 2011년에는 2,706명 그리고 작년에는 아주 급속하게 줄어서 1,509명으로 아주 급격한 탈북자수 감소를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확실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 대해서 20% 줄어들 것이다, 이

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북자수가 왜 급격히 줄어드는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의 경제사정이 개선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역이 2009년에 29억 달러에서 작년에 59억 달러로 2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중국에 파견하는 인력수출도 지난 3, 4년 사이에 몇 배 늘어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북, 중 간의 경제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북한개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이나 한국인들의 증언에서도 북한경제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탈북자들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여행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사 북한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었다하더라도 실제로 여전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이라는 것은 탈북자 수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은 탈북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처를 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에는 탈북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총살해도 좋다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탈북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처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배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바다 쪽으로 나가는 배에는 경비선이 쫓아가서 일단 심문을 해서 왜 바다로 나갔는지 원인을 묻고 나서 조치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무조건 총격을 하라, 허가받지 않고 바다로 나가는 배는 무조건 총격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강경조치들이 탈북자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국경경비를 대단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들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경경비대와 국경도시의 보위부에 대한 급여를 대폭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대단히 부패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경경비가 철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북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국경 경비 대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에서 직접 단속단원들을 파견을 해서 국경경비대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국경도시의 보위부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

이 확인이 된 그런 경비대원들이 총살당한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경비대원들이 크게 위축이 되어서 뇌물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도 뇌물액수가 몇 배로 늘어나서 사실 일반 북한주민들로서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탈북자수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 중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북한의 납치, 테러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 최소 한 15년 이상 납치조를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탈북자들이 있나 일부 한국인들을 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최소 6명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그 수를 가늠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탈북자 납치조로 활동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그런 대단히 많은 탈북자들이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경지역의 주요 도시라든지 아니면 국경지역에서, 심지어 국경지역에서 꽤 많이 떨어진 심양이나 북경까지도 납치조를 보내서 납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치는 모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납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한, 중요한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라든지 현역 보위부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일성, 김정일과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뭐 경호원이라든지 기타 뭐 특별한 그런 탈북자들을 납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탈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혐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탈북한 다음에 상당히 뭔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의도를 보인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납치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는 북한에 의해서 테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중국 국경지역에서, 중국지역에서 테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런 것은 사실 정확히 지금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그 중국 단둥에서 갑자기 암살된 그런, 독침에 의해서 암살된 그런 사례가, 독침에 의해서 암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소행임을 부인했고 중국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범행 수법으로 봐서 북한에 의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중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제가 단둥에 있는 단둥의 중국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례를 직접 조사한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을, 또 자기들도 북한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과 같이 활동하던



그런 북한인권운동가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북한인권운동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테러를 하려는 그런 조짐이 확인이 되었다고 그것도 중국정보기관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북, 중 국경지역에서 북한의 그런 어떤 보위부라든지 아니면 기타 북한의 각종 기관에 의한 납치, 테러 활동들이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서 중국에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탈북 하다가 국경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가혹한 구타와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는 탈북했다가 잡히면 모든 탈북자들에게 극심한 그런 구타를 하고 고문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탈북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타를 약간 하지는 하지만 심한 구타와 고문을 하는 것은 어떤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혹은 한국인을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그것이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혹은 종교 활동과 연계해서 어떤 종교와 관련된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데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극심한 구타와 잔혹한 고문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심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으로

잡혀오면 그런 남녀 가릴 것 없이 남성경비대원이나 보위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팬티까지 완전히 탈의를 하고 쪼그려 뛰기를 한 50~100번 정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목적은 항문이나 여성의 그런 음부에 그런 뭔가 돈이나 물건을 숨긴 것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여성들은 뭐, 여성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의 항상 남성경비대원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신창 자궁검사라 그래서 남성 경비대원이나 보위원이 직접 손을 넣어 여성 자궁에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서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숨겨놓은 돈이나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고통스러운 그런 자궁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명의 그런 탈북자들에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낙태나 영아살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오는 경우에 일단 중국하고 피가 섞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강제낙태를 시키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이의 아버지가 중국인으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북한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제낙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증인에 의하면, 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과 같이 수감된 임신부 6명 중에 북한인 남편과 중국에서 계속 같이 지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강제낙태를 시켰다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일단 북한인 남자의 아이가 아닌 것이 확, 북한인 남자의 아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강제 낙태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낙태 방법은 임신부의 배를 군화로 여러 번 세게 차서 낙태를 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주사해서 낙태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대부분 마취가 없는 상태로 하고, 그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도구가 없어서 아주 심한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그런 자궁을 무슨 무거운 걸로 묶어놓는다든지 하여튼 뭐 아주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낙태를 하려고 하다가 낙태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를 살해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수건에 물을 묻혀서 그것을 입에 틀어막고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리고, 그리고 여러 명에 의해서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아이를 그냥 바로 죽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뒤집어놓고 코와

입에 그런 공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 얹어놓고 하여튼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몇 십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울면서, 버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 아이 엄마보고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인권유린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명에게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를, 그런 식으로 얹어놓으면 대부분 한 두 시간 내에 죽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 채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봤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박스나 비닐봉지 안에 그냥 방치해놓는 것을 봤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아주 집게 같은 것으로 강하게 눌러서 아이를 죽였다는 그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 중 국경지역에서 중요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안 중의 하나가 인신매매입니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을 중국으로 인신매매하는 그런 활동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정부가 이런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인신매매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정부의 잘못된 그런 정책이 기본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치안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신매매를 보면 북한의, 북한 내에서의 여성모집책이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들

과 연계한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서 북한의 여성 모집책이 북한의 젊은 여성들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몰래 중국의 브로커에게 보내면 중국의 브로커가 하여튼 전용적으로 여성을 사는 사람에게 여성을 인계하는, 돈을 받고 인계하는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여성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성행했던 것은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13년 전부터 6~7년 전 요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신매매 되어 가는 여성들 중에는 자기가 인신매매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이 굶어죽을 지경에 처해했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스스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역에 이런 젊은 여성들을 노리는 인간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탈북한 북한의 젊은 여성탈북자들을 기다렸다가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례들도 여러 번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농촌지역에 팔려 가는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지역에 팔려간 경우에 어떤 생활환경시설이나 뭐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본인생활을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경우는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노예처럼 대우를 한다던가, 아니면 24시간 쇠사슬로 묶어놓고 감금시켜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한 가족의, 예를 들어서 큰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들의 아버지라든지 삼촌,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모든 가족의 남성구성원들과 매일같이 성관계를 가져야하는 그런 케이스도 몇 차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권유린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런 북한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동들의 인권이 또 현재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혼인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입국 한 여성을 누가 결혼하거나 그런 여성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혼인을 중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그런 식으로 혼인을 해서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낳은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아이의 어머니가 중국 공안당국에 잡혀서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어머니의 보호 없이 지내는 그런 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동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은 북한여성이 중국에 가서 낳은 아동은 현재 한국정부 당국에서도 탈북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인권유린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간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김영환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국경지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정보들을 대신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가 되어서 전체 한 가족의 모든 남성에 의해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갇혀서 지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갔는데, 이분은 물론 속아서 중국으로 가서 나이 많은 중국남자에게 팔리셨던 여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 분은 남편이 되신 것이고 아이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족에 의해서 억

류가 된 것도 아니고 집밖으로 왔다, 갔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술을 마시고 가끔 때릴 때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여자 분이 체포됐을 때는 남편 분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아이를 언젠가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비쳐봤습니다. 이런 여자분도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억압이 더 있어야지만 인신매매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관계를 보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인신매매라고 정의를 하시면 어떤 것을 인신매매라고 정의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 ○ 김영환

일단 돈을 주고, 받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자체는 인신매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대단히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한 20%~30%정도의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을 보면 사실 뭐 중국공안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숨어산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주 정상적인 부부관계,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20%정도는 아주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남편의 어떤 구타라든지 아니면 남편과 나이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든지 정상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그런 케이스들, 또 한 20%였고 나머지 한 절반이나 절반정도 넘는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심한 인권유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중국인 남편하고 관계도 좋고 어떤 가난하지만 북한에서 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개선된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그런 중국에서 숨어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그 사람 개인으로 보서는 어떤 오히려 다행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인신매매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거나 용납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가에 인신매매 자체가 그러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기본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신매매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그럼 선생님,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

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식량공급이라든지 또는 인권, 시민권 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김정은이 특히 정권에 오르고 난후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김영환

그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사정에 대해서도 탈북자들 증언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확신성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가 북, 중 국경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탈북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면접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느낀 감으로 본다면 어쨌든 현재의 북한의 식량사정은 작년하고 금년, 재작년하고 금년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4,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아사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식량이 사정이 훨씬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씩 개별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른데 일단 방금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탈북을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상중에는 사소하게 한두 잔 술을 마시는 것 까지 아주 극도의 처벌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권리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의 그런 북한의 상황의 진행과정을 놓고 보면 물론 정치적 권리가 그 이전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적분위기가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약간 자유로워진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북한당국에서 그런 것을 용도를 조금 용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당국에서 그런 정책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의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불평을 한다든지, 과거 80년대나 90년대에는 약간의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상의심자로 분류를 해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한다든지 배후를 캐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 와서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웬만한 발언은 그냥 봐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그런 휴대전화도 일일이 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감청을 하다보면 어쨌든 휴대전화 관련해서 어떤 온갖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북한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치적인 사안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조금만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잡아낼 그런 행정적인 혹은 제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법적으로 정의된 정치적인 권리 이런 것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북한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불평이 섞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일을 하실 때 같이 일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단체하고도 함께 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선생님의 증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여과를 해서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북한정부가 말하고 있는 게 저희 공청회가 듣고 있는 증언은 어디까지나 모욕적인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 ○ 김영환

예. 그,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소속된 단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고 해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북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그런 지하단체들과 협력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북한당국은 제가 북한당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대부분 저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라서 선생님의 증언이라든지, 오늘 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그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보아야 할까요. 영상물도 제작하고 또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이 이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건가요.

### ○ 김영환

예. 그,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어쨌든 그런 민중의 해방이랄까, 혹은 민중의 어떤 보다 높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치를 제가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민중해방의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일단 그런 생각이 바뀌었고,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북한사회에서 확실한 것은 현재의 그 김정은 체제, 현재의 북한 체제로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민중을 위해서, 북한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북한민중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제가 어떤 운동가로서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왔고 그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 ○ 김영환

저는 북한의 미래,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이 중국식 개혁개방은 아니더라도, 중국식 개혁개방의 한 절반정도 되는 어떤 한정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해보면 어쨌든 제한적인 개방을 추진하

고 있음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개방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방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개혁도 제한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개혁개방이 몇 년 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그런 약점, 그런 정치적인 체제의 정당성, 정권의 정당성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면 등등 그런 근본적인 취약점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고 결국 체제불안이 심해지면 정치적인 탄압을 하면서 개혁개방 정책도 후퇴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후퇴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심해질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런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북한체제 붕괴과정에서 상당히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국과 협력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나은 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 마이클 커티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희망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긍

정적인 생각들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처벌도 강화되었고 그 국경지대도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되었는데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들과 선생님의 증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김영환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체제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이중적인 요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당히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유로운, 통행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해주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들을 상당히 보장을 해야지 경제도 활성화 되고 개혁개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김정은 정권은 어떤 체제붕괴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제의 위협요소를 막기 위해서 보위부 조직도 강화해야 되고 어떤 탈북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정권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어떤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순적인 정책들을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마지막 질문은 남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에 대해 말씀은 아끼셨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 세계의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라도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일들에 대한 남한 젊은 층 사람들의 관심이 그다지 큰 것 같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김영환

일단 뭐 저도 지금 이제 아들이 2명 있고 1명은 대학 다니다가 지금 군대에 있고 1명은 지금 대학생인데 그래서 제 아이들은 아무래도 제 영향을 받아서 북한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들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북한

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북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주 현실적인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북한체제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면 그것을 이해를 시키는 데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어쨌든 정부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국정부 그리고 부모 그리고 각종 그런 커뮤니티나 어떤 각종 다양한 형태의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북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현재 북한과 접촉해서 하고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중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능숙하게 어쨌든 잘 극복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사회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사회를 보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가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라는 것을 일단 부모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떤 젊은이들에게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모나 교수나 교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

확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보다 젊은이들 중에서 북한문제나 통일 문제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동료들이 질문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간에 그 지역상황과 북한의 인권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꼭 오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건너서 중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라든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 ○ 김영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은 그렇게 긴 시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제가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오늘도 뭐 그중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오늘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

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좀 구체적으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조사와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혹시 납치가 중국인들이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 김영환

예, 중국인들이 납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신매매 범들, 인신매매 범들이 대부분.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아, 제가 잘못 여쭙봤습니다. 중국인들이 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 김영환

아, 중국인들이 납치된 사례가 몇 차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납치된 중국인들은 일반 한족 중국인들이 아니고 조선족 중국인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납치조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납치대상에는 조선족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정치적 경제라는 표현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내에 양자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양자관계, 중국과 북한의 경제가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 김영환

일단 북, 중 경제관계에서 과거에 공식적인 북, 중 경제관계가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북, 중 관계의 밀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서 어떤 그런 북한상인과 중국상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무역을 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북, 중 관계의 무역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북, 중 밀무역이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북, 중의 공식적인 무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밀무역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밀무역 중에서 물론 북한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이뤄지는 밀무역도 있지만 북한당국이 개입된 그런 밀무역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물품이 있는데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시킨 그런 물품을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걸 수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로 북한당국이 나서서 북한당국의 책임 하에 밀무역형태로, 밀무역이지만 사실은 뭐 북한당국이 주도하

고 있고 중국당국은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개무역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식량 같은 경우도 그러한 형태의 밀무역으로 대규모로 중국에서 몇 차례 들여왔다는 그런 보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 중간의 경제관계에서 그런 형태를 넘어서서 실제로 북한지역에 주요광산에 중국국정원이 대거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광산 중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광산의 70%이상은 현재 중국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일부 금액을 북한당국에서 돈을 주고 나머지 물건은 다 중국으로 실어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광산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근로자들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기업에 취업을 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매우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중국을 방문한 북한사람이 거의 16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8만 명 가까운 사람이 비자를 취업비자를 받아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8만 명 가까운 사람을 취업비자를 내주었다는 것은 아주 폐쇄적인 북한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과 중국 양국에 모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당국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주를 경계하기 때문에 인력수출을 굉장히 꺼려왔는데 최

근에 그런 것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경제개발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경제개발을 하되 체제부담이 큰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제한적으로만 발전시키고 주로 중국과의 그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그런 중국에 기대서 어떤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경제적으로 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제가 진짜 여쭙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경의 경제상황이 북한과 중국 간의 경우에는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을 폐쇄하면 북쪽의 경제에 타격이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 김영환

북, 중 간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을 때 완전히 그냥 모든 경제관계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폐쇄하면 아마 북한체제에, 북한경제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까지 만하더라도 북한경제는 외부 의존적인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립적이고 철저하게 폐쇄된 그런 경제였고 물론 매년 중국으로부터 그 당시에든 원조를 조금씩 받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구조는 완전 폐쇄경제였는데 지금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만약 북, 중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다, 중국이 완전히 폐쇄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는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 중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북한당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중국당국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예, 좀 더 한 가지 관련돼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경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로 나타내면 얼마나 될까요, 50% 넘는다고 볼까요.

#### ○ 김영환

그러니까 경제적인 단순 산술적인 그런 비중으로 보면 한 30%정도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30%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 넘는, 과반수가 훨씬 뛰어 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예, 선생님. 사실 주체사상을 한때 동조하셨고 또 나중에 주체사상에 대해서 실망을 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0년대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90년대 북한의 대기근이 북한사회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어떤 의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 ○ 김영환

북한내부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혹은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 글썄 뭐 언제 주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90년대 대기근 사태 때 북한 주민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의심, 그리고 체제에 대한 의심, 사상에 대한 의심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90년대 만나 본 탈북자들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마 어마한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북한의 세뇌의 강도 이런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러한 어마 어마한 대기근과 뭐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도 그런 의심을 체제나 지도자나 사상에 대한 의심을 아주 급속도로 하기 시작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출발이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만나 본 많은 탈북자들, 최근에 나온 탈북자들 혹은 중국으로 여행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어떤 체제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사상에 대한 믿음, 혹은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90년대 대기근 사태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예, 고맙습니다. 북한 엘리트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엘리트들과도 연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사람들하고 연락 주고 받으면서 과연 이제는 더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물론 그 엘리트들이 특혜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데올로기에 어떤 깨졌다 그럴까, 균열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권력투쟁의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김영환

그 북한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사실 북한 엘리트들 같은 경우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비참하게 처형될 수 있는 그런 24시간 어떤 속박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부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아니면 의심 그런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뭐 그중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안주해서 살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양심을 갖고 뭔가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강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고 있고 봅니다.

사실 북한엘리트 같은 경우는 어떤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엘리트일수록 감시를 받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급 장군들 같은 경우를 보면 매일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고서를, 일일보고서를 써내야 되는데 주요직에 있는 그런 장군들을 감시하는 보고서는 매 5분 단위로 그 사람 행적을 뭐 10시에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10시 5분에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5분 단위로 그 사람에 대해 감시한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한 기관에만 맡기면 그것이 혹시 결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몇 개의 다양한 그런 기관을 또 그런 인물을 맡겨서 재차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높은 사람일수록 항상 24시간 감시를 받고 속박을 받고 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비한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은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그런 반란이라든지 그런 권력투쟁이라든지 그런 게 결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소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련 구조에서도 엘리트들이 먼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과연 이런 북한의 엘리트들이 밖의 사상을 알고 또 그 나라의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었습니다.

### ○ 김영환

구소련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북한체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소련에서 스탈린 시대, 유일하게 스탈린 시대가 지금 현재의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고 스탈린 시대 이후의 소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완화된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스탈린 시대하고 비교해 봐도 훨씬 더 아주 강압적인 그런 구조이고 그리고 감시 같은 경우는 스탈린 시대보다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런 어떤 구소련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엘리트들이 어떤 북한체제 붕괴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과정이 구소련 붕괴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어떤 폭력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토론과 협력과 논쟁 이런 것들이 눈곱만큼도 허용 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엘리트들의 저항도 어떤 굉장히, 저항도 폭력적이고 그런 탄압도 폭력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미치는 그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였는데 물론 추측에 기초한 기사이기는 했지만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성에 북한을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교포가 있는 성하고 북한하고 합쳐서 하나의 성을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김영환

일부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중국 그런 어떤 서적이거나 그런 각종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중국의 교수들을 포함해서 중국 지식인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중국 정부에서 북한을 중국의 속국이라든지, 아니면 속국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려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게 되면 북한의 어떤 국방상의 완충지로서의 역할도 실제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커다란 골칫덩이를 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합병시키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 또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중국 엘리트나 중국의 정치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예, 고맙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대

폰 잠깐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받은 정보 중에는 대략 200만대의 휴대폰이 북한에 보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면 북한에서의 변화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큰 변화가 곧 있을 것이고 또 변화의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좀 더 어떤 현실적인 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 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과거에 이쪽 관련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요.

### ○ 김영환

이제 일단 변화, 일단 변화 가능성은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어떤 방향은 둘 중의 하나인데, 북한당국이 원하는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경제발전 관련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는 비교적 확대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통제된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만 발전된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의 미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체제가 붕괴되든지 혹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드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

든 저는 현재의 북한정권, 현재의 북한체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주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주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잡히면 뭐 처형당하는, 총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살당하기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그런 고문을 당하고 또 가족들 뭐 어떤, 그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런 어떤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데,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방종의 형태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정부에서도 실제로 그런 북한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은 아예 1%도 되지 않고 정확히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지만 아마 0.1%도 그런 북한 관련된 예산 중에서도 0.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어쨌든 미래의 그러한 변화를 앞당기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미국정부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 ○ 김영환

미국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국무부 예산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어떤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북한 자체 그리고 북한인권이라든지 북한체제의 변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북한이 물론 뭐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북한과 미국, 중국 이 3자 사이에 최소한의 뭐 균형점에서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겠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되는 그런 선에 이르게 되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약간의 유화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러나 저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핵심문제는 핵문제가 아니고 체제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체제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 북한 핵문제는 결국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어떤 체제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북한 내에서 노력하는 아니면 중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노력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북, 중간의 북, 미간의 외교관계가 일부 변하더라도 변치 말고 적극적인 그런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각종 활동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여야 되고 그리고 북한체제가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혼란에 빠질 조짐이 보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어쨌든 북한의 민주화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유지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 마이클 커비

감사합니다. 저희 UN북한인권조사회가 인권이사회와 UN총회에 보고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라든지 다른 조직에 보다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교체라든지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소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인권문제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김영환 선생님 오늘 정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시간보다 두 배나 더 오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행운

이 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 오신 증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 황재성

약간의 휴식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의를 입지 않고 있었는데 잠시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자켓을 입은 사람은 저뿐이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발을 썼어야 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성함은 황재성 선생님이시고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본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셨고 본명을 사용함으로써 신변이러든지 안전에 이슈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COI공청회에 참석을 할 것이라고 동의를 하였고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모든 것은 진실된 것임을 맹세하십니까, 그리고 증언은 한국어로 하시겠습니까? 영어로 하시겠습니까.

### ○ 황재성

영어로 하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알겠습니다.

### ○ 황재성

저는 황재성입니다. 저는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KSM의 지원사업팀 부장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에 위원장님, 다른 COI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공청회 마지막이고 모두 상당히 지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과 한국 NGO 활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SM은 199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남북교류 개발사업 관련 활동을 해왔고요. 오늘 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KSM 대표하고 그리고 KNCCCK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는 KSM의 상위 조직으로서 현재 57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NGO들이 국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KSM은 이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의 회장단체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의 NGO들이 북한관련 개발사업과 인도주의지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1995년 아주 큰 재난, 작황은 좋지 않았고 또한 북한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생겨났습니까. 고난의 행

군은 정말 행군이었나요

### ○ 황재성

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상당히 식량위기라든지 자연재해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 된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 시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바로 주체사상의 일환이 되겠군요. 자급자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일부가 되겠군요.

### ○ 황재성

예, 맞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주체사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아, 저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런 행진이 일어날 수 없겠지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행진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 ○ 황재성

한국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덧붙여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300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UN조사결과 북한의 인구 중에 사망 원인에 조금 자연사망한 사람들이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30만이 자연사망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식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사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높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종교단체로부터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단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들로부터 함께 모여서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8개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북한을 식량지원을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8개의 NGO가 활동을 시작했고, 1996년에 시작을 해서 점차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대북 지원이 2007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북과 남북 간의 양자적인 채널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남한에서 국경을 넘어서 직접 북한으로 간 경우도 있네요.

○ 황재성

예, 있습니다. 저도 80차례 북한에 직접 갔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북한에 가서 저희가 보낸 북송한 물품들을 모두 확인을 하고 북한사람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켜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요.

○ 황재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경을 통해서 북한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개성공업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개성공업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 마이클 커비

선생님도 북한에 직접 가셨는데 특별한 비자가 필요했나요

○ 황재성

저희는 비자가 사실, 비자가 필요하다기 보다는요. 저는 제가 데리고 갈 사람들의 명단을 팩

스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20일 전에 이러한 서류를 보내고 북쪽으로부터 초청장 같은 문서를 받으면 이것을 다시 한국정부에 넘겨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아, 그렇다면 저희가 선생님을 접촉을 했어야 했군요.

○ 황재성

아, 사실은 그 남한NGO들이,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민족화해협의회 소속파트너입니다. 민족화해협의회가 남한NGO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 황재성

제가 북한에 어떻게 가는 방법을 더 설명해드릴까요?

○ 마이클 커비

예, 자유롭게 증언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

으로 긴급구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북한체제를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 황재성

저의 경우 장인, 장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시면 2000년도에 일입니다. 2000년 이전에 모든 한국으로부터 북쪽으로 가는 지원은 긴급구조에 한해서였습니다. 식량과 같은 그리고 필수적인 의약품에 한해서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보다 더 중장기적인 개발 사업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전략을 만들고 프로젝트들을 직접 추진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북한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개발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프로젝트를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까지는 식량지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농업생산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성격이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한국의 NGO들이 북한에서 지난 10년간 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약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사업들은 5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ICBDP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기반의 개발 사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의료, 보건 사업도 있고 역량강화 그리고 가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MVP는 무엇인가요.

### ○ 황재성

가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MVP 개발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ICBDP는 공동체기반 개발 사업은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프로젝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 교육, 환경, 보건, 의료 등에 관련된 사업들에 바로 이 ICBDP 프로젝트이고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도로도 깔고 농업역량강화 프로젝트들을 시작했고요. 감자를 키워서 시장에 팔거나 호텔에 뚫으로써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시장이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시장이라는 것이 북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 황재성

예, 맞습니다. 시장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2010년경 북한은 모든 시장을 폐쇄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시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다 폐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북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맨 위 왼쪽은 보리밭이고요. 아래쪽, 아래 왼쪽 이것은 치과의 모습입니다. 60년대 동부유럽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던 그러한 치과인데요, '리'라는 것은요. '리'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이고, 기본적, 바로 보시는 사진이 자주 제일 작은 그 보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10일 동안 보육하는 그러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불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1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저희가 실시했던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진들인데요. 그리고 현장사진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농업관련 프로젝트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왼쪽 맨 위를 보시면 작은 농업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과 아래쪽에는 이러한 농업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기계의 수리, 유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있어야지만 미래에 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저희 도움 없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식물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작물을 잘 키워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고 맨 위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일지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계들을 운영했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였는지를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북한의 농업전문가들을 함께 데리고 갔고요. 한국정부에게 각 도, 한국의 각 도에서 농업전문가들을 섭의를 했습니다. 10명의 북한주민들과 함께 농업관련 회의를 했고,

## ○ 마이클 커비

이러한 강사들은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 ○ 황재성

예, 그렇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 ○ 황재성

이 한국에서 간 강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황재성

이 한국 강사들이 느낀 바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이 아주 진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상당히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1980년대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북한 주민들, 훈련을 받았던 북한주민들에게 저희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방법대로, 방법대로 한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주민들은 돌아가서 북한 그러니까 북한의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강사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은 훨씬 더 가난하고 퇴보된 그러한 사회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을 했는데 물론 이러한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2년 동안 개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6개월 동안에는 거리를 두고 저희에게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

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북한주민들이 저희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감자를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친해졌죠. 2년이 지나고 나니 저희는 이제 보다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해졌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선생님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걸러서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자유라든지 뭐 언론의 자유, Jamming을 해제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조심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 ○ 황재성

예. 일부는 그랬고 일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지 정보,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북한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북한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주민들이 했던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황재성

북한당국에서 하는 선전 내용들을 저희에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체제에 대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협동 농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난도 있었는데 저희가 플라스틱 창문을 설치해서 에너지 소모가 좀 덜 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열을 보다 더 잘 하게 되었어요. 플라스틱 때문에 보다 더 단열효과가 있었어요.

### ○ 황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어떻게 바꿨습니까. 평평하게 바꿨나요. 예를 들어서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나요.

### ○ 황재성

지붕을 특정방법으로 만들면 보다 더 큰 단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열재, 단열재를 천정에 입혔고요. 그리고 지붕도,

### ○ 마이클 커비

쫄라 패널들이 있네요.

### ○ 황재성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쫄라 패널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쫄라 패널은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 배터리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2~3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이 배터리도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조달이 어려워서 이제 배터리 문제도 있고 태양광 패널 자체의 비용도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또 의료적인 역량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실 그 정맥주사를 할 때 사실 이 맥주병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맥주사약을 맥주병에다 넣고서는 이제 주사를 다 했었는데 이게 보통 북한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십자병원에서조차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 공장도,

###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왼쪽에 있는 병원이 아까 적십자 병원이라고 했죠. 적십자 병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수준이라고 함은 일



단 큰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게 되겠습니다.

### ○ 황재성

예, 모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외래병동 같은 경우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돈을 내야 되나요.

### ○ 황재성

원래는 무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약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약의 이름만 주고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저희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 ○ 황재성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사진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한국에서 봤을 때 북한에 환자, 사람들과 말라리아모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모기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문제를 북한에서 해결해야지만 또 한국에도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모기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니까요.

### ○ 마이클 커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누구이지요? 가운데 아래 있는 그림에 보면 또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누구이지요.

### ○ 황재성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요. 2006년인가요, 2007년 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국제의학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재미교포, 캐나다교포 제일교포출신의 의사선생님들이 그리고 북한의 의사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발표도 하고 정보를 공유한 그 회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회의동안에 북한으로부터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책자를 보면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의료적인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그림에 있는 사진 둘 이게 누구 사진 인가요.

○ 황재성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입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의학회의가 2006년도 이지요.

○ 마이클 커비

지금은 그러면 사진이 3개가 걸리는 건가요, 2개가 걸리는 건가요. 지금은 어떤 지 아시나요.

○ 황재성

글쎄요. 제가 2010년도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북한을 갔던 것이 2010년도 4월입니다. 그때가 평양이고요, 그때 2010년 4월 이후에 개성에 가보기는 갔지만 제가 그때 사진을 본 기억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와 NGO가 북한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도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원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원 줄어들었나요.

○ 황재성

대한민국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 남북한 관계가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관계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니다. 바로 전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의료제품 외에는 기본적인 식량 외에는 북한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니다. 저희 NGO가 원조물자를 북한에 보내고자 한다면 남한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7년,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물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개발프로젝트가 중단이 된게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던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 황재성

91년도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난 후에.

○ 황재성

바로 노무현 정부였지요.

○ 마이클 커비

어떤 정부에서 전략이 바뀌었나요.

○ 황재성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협력관계가 바뀐다는 말인가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왜 북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말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체에서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요.

○ 황재성

2008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업&다운은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러다가 미사일실험을 했었고 그러면 몇 달간 지원이 중단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업&다운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가 2008년도 한국 정부가 바로 그런 지원을 중단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천안함 사태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2012년도에 보시면 대북 지원이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맞나요.

○ 황재성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원이 증가 했나요.

○ 황재성

예, 아주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5곳에 비정부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UN기구에게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원조가 줄어든 것이 북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황재성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사실 신뢰라는 것은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북한정부가 핵무기 프로

그램을 없애기로 합의를 했다가 그 등 뒤로는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증거는 사실 우리가 미사일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신뢰라는 것은 쌍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만 왜 남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글썽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 황재성

예, 정부차원에서는 저희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신뢰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요 저는 바로 일반 민중들의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함께 일하는 분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가 원조를 그래서 중단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단농장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분들은 사실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와 일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러한 지원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뢰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있어서 우리를 없애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인간의 삶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우려의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 황재성

물론 이게 Two track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UN과 국제 사회 같은 경우는 북한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핵무기라든지 기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Track으로는 인도주의적인 Track이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지간에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그런 Track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관계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 ○ 마이클 커비

그러나 그것도 다 양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5일간은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비인간적인 고문이라든지 처벌이 북한 주민들 특히 거의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주민들에게 아주 오래 된 시간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해산이 되고 엄청난 고통이 그 인프라가 식량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또한 전쟁포로가 나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비인도적인 문제들이 북한에 의해서도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양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황재성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계속 북한병원에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들 또는 농업을 개선을 함으로써 이런 일상적인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개선을 하고 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황재성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비엔나 선언에 따르면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것이고 또 모든 사

람들의 인권은 평등하게 대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생존권 식량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권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 황재성

나중에 질의응답시간에 저는 한국어로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를 보시면 인적인 교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는 인적 교류가 거의 없지요. 여기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요. 그 빨간 선에는 개성공단에서 인력은 뺀 수치가 되겠습니다. 감독이라든지 인도적인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적인 원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마이클 커비

개성에 대한 스펠링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Kae-sung도 있고 Cae-sung 있는 것 같은데.

○ 황재성

예, 개성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티

그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사살되고 그때 중단 됐지요, 그거 몇 년도 인지 기억하십니까.

○ 황재성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이 수치에는 관광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이클 커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관광을 할 수 있나요.

○ 황재성

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가면 여권을 가져가지는 않고요, 다른 여행 허가증 같은 것을 받아서 갑니다. 여권처럼 생겼는데 여권은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북한에 출입국 할 수 있는 출입증, 허가증 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발급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 황재성

예,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이지요. 북한 정부가, 정권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되었던 아니면 그 적군이 전투 중에 다쳤다 하면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저희가 치료를 해 주지 않습니까.

UN의 86년 개발과 선언들에도 보면 개발도 인권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인권선언을 봤을 때 모든 인간의 권리, 인권이 천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그다음에 인권적인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만 북한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한데 그 외에도 다른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권리나 또 시민권, 국민권과 관련된 권리도 중요지만 기타 다른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인간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은 개발의 아주 내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NGO가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엔 인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량이라든지 생존권과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식량 안보라든지 생존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주요 이유는 결국에 사람들의 삶을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지요. 저희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지만 인권문제가 개선된다, 또는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가 될 수 있지만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년간의 여러 가지 증거들에 비추어보아서도 바로 밖으로부터, 외부부터의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또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최상의 방법으로 북한으로 밖의, 외부의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에 15일 동안 2년 간 일을 하다보면 신뢰가 구축이 됩니다. 일단 또 신뢰가 구축되면, 지금 2007년도에 제 노트북 컴퓨터에

제가 이 그림을 제 노트북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슈렉2 만화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렉을 같이 시청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북한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컴퓨터는 한국에서 만드냐, 이거 그림은 그리냐. 그리고 이제 바깥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지루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 책을 보고난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책을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동안 계속 읽습니다. 마치 이 책에서 손을 뗄 수 없는,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마치 읽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어떤 책을 가져가셨나요.

### ○ 황재성

그냥 소설책도 가져가고요. 대부분의 경우 소설책이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와 관련된 책들도 가져가고 그런 책들을 제가 가져갔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이런 대화들은 제가 봤을 때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0년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도 독재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시

위를 했고요. 그렇게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뉴스위크라든지 기타 다른 외부세상의 소식을 접하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세상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올바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사회를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Jammer라는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Jammer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의 방송이라든지 남한의 드라마 등이 북한에서 방송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몇 곳에서만 빼고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도 금지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 황재성

물론 방송에 대한 Jamming이라든지 인터넷의 사용에 대한 금지가 단 몇 년 간에 멈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NGO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갈 때는 사실 북한에서는 적대감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물건도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길거리를 걸어가갈 때 한마디로 어떤 인간적인,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인보드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 제가 입은 옷, 또 제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 마이클 커비

지금 그러면 오히려 사실 그 적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북한 정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피가 섞였다. 그리고 또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순수하지가 않고 특히 서양의 영향이 너무 많다. 뭐 이래서 어떤 민족적인 순수적인 어떤 혈통이 사라졌다고 북한에서는 보고 있지 않나요.

### ○ 황재성

이래서 저희가 남한과 북한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 대한 선전만 했지요, 북한은 북한 선전, 남한은 남한 선전. 그런데 저희가 7번, 10번, 20번 만나고 나서부터는 실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감



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깊은 생각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정보의 흐름이, 정보의 공유야말로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이제 네 번째까지 말씀을 하셨나요.

### ○ 황재성

지금 북한 주민하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농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난 후에 북한 관리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남한의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작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북한에 공장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서 비료생산도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밖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관리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완전히 중단이 된다면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관리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나아지는 상황에는 사람들이 잘 적응합니다. 그러나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러니까 북한의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도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속적인 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북한에서도 과감한 변화 시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 ○ 마이클 커비

UN총회에서 2009년도에 결의안을 낸 것이 있는데 물론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과연 UN총회에서 또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무역과 관련된, 교역과 관련된 어떤 결의안을 냈는지 아십니까.

### ○ 황재성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반이죠. UN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이것이 인도주의적인 또는 개발적인 목적을 위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총회에서 얘기했던 그 결의안과 관련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 ○ 황재성

제가 최근 것은 어떤 예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총회는 인도주의적인, 개발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예외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세계평화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NPT 조약국가가 조약에서 탈퇴를 하고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핵무기를 수출하고 그리고 그 이웃국가에게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딜레마에 직면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결의안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결의안이 이 1874 결의안이 언제 통과됐는지 아시지요. 또 안보리 결의안은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 ○ 황재성

한 올해 3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궤도를 2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식량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안보, 정책을 위해서는 단기정책도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요. 지금 UN기구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그때

마다 UN기구에서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의를 내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북한주민에게 일단 가르쳐주면 이걸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일단 역량을 구축해놓으면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체 농장이라든지 가서 아, 그게 있으면 “있나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농약이라든지 비료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고 군으로도 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식량을 북한에 보내면 이것은 군용으로 전용이 된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에 더 역점을 두게 된다면 모니터링 문제도 덜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북한인권조사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저희 사업차원에서 낼 수 있는 권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따라서 UN은 강력한 압력을 북한에 넣어서 평양이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보다 더 많은 책임성을 가지고 북한주민을 돌보아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언급한 이 결의안의 내용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부와 NGO 들과 UN산하 기구들과 국제사회가 보다 더 협력을 돈독히 해야 될 것입니다. UPS라든지 UN 산하기관들과 다른 국제기구들이 상당히 협력을 잘하고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국정부와 한국의 엔지오들이 그 회답이라든지 국제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과 보다 더 돈독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 황재성

이것은 위성사진입니다. 저희가 1992년, 2008년, 16년이 지난 2008년에 찍었던 위성사진인데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밝은 곳이 이 불이 켜져 있는 곳인데요. 북한에는 전혀 불이 안 들어와 있지요. 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다는 뜻은 전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북한의 에너지위기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식량위기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위기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여러분께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지난 16년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인권의 유린상황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개성에서 올해 찍은 사진인데 이 경사를 좀 보아주십시오. 이 경사는 바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황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도 그리고 한국도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제 동료들이 궁금한 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황 선생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개발프로젝트들이, 사업들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어느 지역에

서 이 개발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 ○ 황재성

평양인근지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개성, 신의주 그리고 신의주 위에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통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결국 평양의 의지에 달린 것인가요.

### ○ 황재성

평양의지라기보다는 한국NGO들은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해져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방문했던 UN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남쪽사람들한테 보여주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바깥쪽으로, 개성 시내 바로 바깥쪽이나 내지는 고 위에 사리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사리원 인근이나 아니면 황해도 지역정도까지가 남쪽사람들이 실제로 Access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평양인근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거는 아까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보통 평양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동하는 거리가 짧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기가 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장들은 신의주 지

역인데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를 가지고 있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쪽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남쪽사람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들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한 5년 전 정도에, 5년이 아니군요. 7, 8년 전 정도에 북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인근 지역에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외곽으로 나가서 더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들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인프라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 시기는 지원이 잘 됐지만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는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과연 이게 그러면 지속적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장을 접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북쪽사람들에게 남쪽과 손을 잡았을 때 어떠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북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게 먼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니

까 이렇게 편하군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Need가 있는지는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처음부터 아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나요, 어떻게 Need를 분석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종류의 성격의 프로젝트를 시작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십니까. Need 분석은 어떻게 하지요.

## ○ 황재성

북한에 어떤 사업이 필요 하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 북한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아니면 식량부분관련해서 제가 테이프를 보니까 김영훈 박사님이 왔다 가셨을 텐데 그런 전문가 분들하고 저희 이제 담당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쪽에 취약한 계층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보통 북에 방문을 하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마치 북쪽이랑 굉장히 뭔가 얘기도 잘 되고 이럴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하나하나가 북쪽과 협의하는 과정이 길게는 3년, 그거보다 더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매번 들어가면 매일 매일 마주

앉아 싸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북쪽은 반대로 최대한 많이 안 만났으면, 멀리 안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 안을 가지고 북에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마주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신의주에 있는 유치원, 탁아소, 고아원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그 탁아소에는 몇 명이 있는지, 유치원에는 몇 명이 있는지, 학교에는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명단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병원이라고 해도 아동병원이 될 수 있는지 내지는 아니면 특정질병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을 지을지에 대해서도 북쪽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남쪽 전문가들을 같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방식의 프로젝트세팅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쪽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북쪽에 제안서를 받아서 남쪽에 돌아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지를 또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규모를 늘리든지 아니면 북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 받고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될지를 조정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하지요.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인도주의적인 노력과 개발 노력 간을 이제 분간하는 것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실 다른 사회적인 매카니즘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 매카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 황재성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지원 비록 아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직 지난 13년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5년, 6년은 아까 지원이 거의 중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의 역사는 사실 6년 정도 내지는, 그 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발지원으로 막 넘어가서 어떤 성과들을 보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게 중단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어로 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협동공장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북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막 강화시키는 것들이 북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강화시키려고 외부적인 요소를 투입하는 것 보다는 사실 아까 협동공장 생성하는 것들 중에서 잉여 생산물 내지는 특화된 작물들, 아까 방울토마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화된 작물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팔고 그 소득을 농사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그 쪽에 이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면 그 시장 경제에 대한 논리들 그리고 잉여생산물에 대한 활용 부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북에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동농장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협동농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이 그걸 전체적으로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거기서 6. 28, 최근에 6. 28. 경제조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최대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잉여생산물을 농장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보다 소규모로 농장원 규모 그러니

까 작업반 규모를 짠다든지 그래서 농업생산성을 최대한 그 시스템 안에서 올릴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격한 사회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접근방식이 맞다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인 Need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UN내에서는 사실은 KSM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이 문제를 사안으로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인도주의적이고 어디까지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인지에 관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쭙보는 건데요. 교육도 인권인가요.

### ○ 황재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젠더이슈나 내지는 교육 자체만이라도 사실은,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아, 통일 말입니다, 통일. 통일도 인권확립의 한 부분인가요.

### ○ 황재성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독일 같은 사례를 보면 독일 재통합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사실은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되고 실제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일 자체도 인권이라고 볼 수도 사실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남쪽의 NGO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하는 인도지원을 하는, 아니면 개발 지원을 하는 NGO 사이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소리는 인권에 대해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이나 그런 인도지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인권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남쪽의 NGO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이냐고 했던 그 정책적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량권이나 어떤 생존권에 대한 거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북한 당국자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북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가 했던 얘기가 대부분의 북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남쪽의 민간단체 사람들은 과거에 한국에서 민주화항쟁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의 감옥에도 갔다 왔고 한국에서 인권문제로 싸우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쪽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빠 있는 얘기라고, 빠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주민, 사람과 가족들의 역량강화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나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역사를 보면 체제에 대한 권력에 의구심을 갖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자유성을 강화시켜서 결국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인 사회주의에 기반 한 농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델로 인해서 혁신을 이루어내시고자 했고 그런데 농장 주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현대적인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황재성

예. 제가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중에 모자라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의 어떤 역량을 진짜로 강화해



내고 독립성을 키워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원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북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 북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접근했던 거는 기술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뭐 기술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IT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좀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 단둥에다가, 그러니까 국경,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인 단둥이라는 지역에서 학부생들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의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대학교의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 해에 그 전공교과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으로 교과서가 바뀐 거죠. 그렇게 북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뭐 다양한 교육을 그 안에 접목시키는 것들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그 주민 개개인의 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적인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되게 고민들이 많습니다. 북에 누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고 하면 저는 되게 눈높이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얘기할 때 아이의 언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북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의 눈높이에 맞는 걸 알려줘야 될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력을 그대로 이전하려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보통 현장에 지원하는 전이나 이런 관련된 물자들은 거의 우리가 70년대에 사용하던, 80년대에 사용하던 것들을 새로 주문제작을 해서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고장이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북의 어떤 인프라나 그런 모든 제반여건 현실을 되게 잘 알아야만 실제로 그런 지원도 가능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사회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제 생각에는 지금 선생님의 접근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 마이클 커비

아까 말씀 중에 선생님의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아주 완벽한 영어로 선생님의 생각을 오늘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주 분석력이 깊었고 선생님의 접근방법은 아주 진솔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저희가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증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증인이신 강철환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기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난 5일간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증언을 해 주셔서 와 주신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전에 앞서서 제가 다른 증인분들께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저희에게 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 된 말씀임을 저희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 강철환

예, 그렇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기자님. 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공청회와 다음 주 동경에서 하게 된 공청회의 교량역할을 선생님이 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가족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가족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혹시라도 위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 그다음에 일본과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철환

먼저 이 자리에 제가 초빙되어서 이런 증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다렸지만 앞서 우리들의 관심 사이기도 한 대북지원을 하시는 분의 말씀도 듣게 되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8년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에서 출생을 하였고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오셨고 저희 할머니는 오랜 공산 당원으로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또 일본에 계시는 조총련 조직을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한 10만 명 달하는 재일교포들이 북한에 건너 갈 때 저희 조부께서는 북한에 가야 한다고 선동을 직접 하셨고 선동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모두 데리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희 조부는 일본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했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북한 정권에 또 회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평양시 여맹위원회 부위원장 그 당시 김일성의 부인인 김성애 씨가 위원장이었고 저희 할머니님 부위원장을 했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백화점망을 총괄하는 평양시 산업관리소 부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아주 상류생활을 했었고 또 평양에서 아주 중심지에서 있었던 그런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제가 비교적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북한주민들에 비해서.

그러다가 77년도에 저희 조부가 직장에 나갔는데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직장에 찾아가 보니까 출장 갔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에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기관에서 나와서 저희 조부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민족반역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원래 죽어 마땅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어

디로 가게 됐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77년도 8월 4일에 저희 가족은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 9살이었고 제 여동생은.

○ 마이클 커비

날짜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강철환

77년 8월 4일 날에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9살이었고 제 동생은.

○ 마이클 커비

요덕캠프 맞지요, 요덕수용소.

○ 강철환

예, 요덕.

○ 마이클 커비

예, 저희가 그 요덕에 대해서 꽤들은 것 같습니다.

○ 강철환

그래서 아마 요덕수용소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재일교포들만 따로 모아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5,000명의 재일교포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활동했던 조총련의 핵심간부들의 가족들이 끌려왔었는데 죄

를 지은 장본인들은 다 사라지고 그 가족들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다 들었겠지만 당시 요덕수용소는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리가 됐었는데 저는 혁명화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통제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동 강도가 낮고 통제도 약간 낮은 편이었지만 엄청난 희생과 또 교수형, 총살형, 고문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세 차례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뻔 했었고 또 저희 학교에 많은 동료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었고 직접 묻었고 그래서 제 손으로 파묻은 저희 동료들 뭐 다 아는 사람들이 300구가 넘다고 기억이 됩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지요. 그 다음 내용들은 제가 뭐 이미 번역이 되었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용소 가운데에서도.

○ 마이클 커비

그 책 제목이 뭐였지요, 선생님.

○ 강철환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인데요. The aquariums Of Pyongyang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자세하게.

○ 마이클 커비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강철환

예.

○ 마이클 커비

이 책은요, 서울에서 저희가 살 수는 있나요, 서점 같은 데 가면.

○ 강철환

예,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제가 그러면 그 책 한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열티 받으시지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철환

사실은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은 상당히 고위층들이 많았습니다. 최고 권력자들, 뭐 부주석 아들도 있었고 해군사령관도 왔었고 조선중앙통신사 사장도 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최고위층들이 뭔가 실수를 할 때 정신 차리게 하려고 단기코스도 오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불투명한,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장기간 수감이 됐었지만 상당수는 3년에서 5년 정도 강제노역을 시킨 뒤에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시에서 있는 많은 간부들 가운데 요덕수용소 혁명화 구역을 경험한 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부가. 대표적인 사람

이 방철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까지 다시 했었습니다. 저랑 수용소 동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완전통제구역부터 보다 혁명화구역이 많이 오픈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지게 됐지요. 그런데 완전통제구역은 사실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안병철씨가 회령 22호 수용소에서 경비병을 했었고 경비병의 입장에서 완전통제구역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17호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동혁씨 이 친구가 아마 수감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통제구역은 경험한 사람은 이 두 분이 아닐까 나머지는 대다수가 저와 유사한 혁명화구역에서 수감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고 처음에는 요덕수용소 근처에 있는 요덕군에 이제 배치를 받았고 거기서 한 5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수용소 동기들, 평양으로 간 많은 친구들과 함께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 비슷한 것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노래를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매일 마다 남한라디오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라디오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을 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유포를 시켰지요. 그러다가 다시 북한의 국가안전부 보위부에 추격을 받게 되어서 탈출을 하거나 아

니면 다시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용소에는 가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이판사판 죽는 심정으로 탈출을 하자해서 저는 이제 안혁이라고 하는 저의 친구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고 기적 같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는 탈북자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내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탈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저희를 잡기 위해서 1개 조가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 왔지만 아주 운이 좋게 저희가 잡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폭로를 했고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지요.

사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산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에서 살고 있는 특히 이제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저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동지이자 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한사회에 와서 이 남한사회가 아, 이 남한사회가 참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93년도에 한양대학을 처음 들어갔었는데 제가 마치 평양김책공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보니까 대학에 걸려있는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 ○ 마이클 커비

몇 년도에 대학을 가셨다고요, 다시 한 번 말

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철환

93년도에 입학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신 년도 몇 년도이지요.

○ 강철환

92년도 왔고요, 그 다음 해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사라지셨고 거기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라를 배신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를 요덕수용소에서 만나셨나요. 할아버지 그 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할아버지 얘기는 여기서 끝인가요, 할아버지 어떻게 되셨지요?

○ 강철환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이후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모리에 북한 최대 정치범교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 초인가요, 아마 Amnesty International에서 그 수모리교화소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의 이름이 공개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조총련 간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수모리교화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수모리교화소는 현재 아마, 그 당시에.

○ 마이클 커비

수모리캠프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4번인가요.

○ 강철환

26교화소 수용소이지요. 그래서,

○ 마이클 커비

그 위치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모리가 어디예요.

○ 강철환

수모리가 평양시 인근에 있었습니다. 평양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평양남도 수모리에 있었는데요. 그 수모리교화소는 이제 북한에서.

○ 마이클 커비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가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가 당에서는 더 높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강철환

할머니도 같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 되었고 할머니도 같이 수용소에 끌려갔고요. 10년 만에 같이 풀려나와서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살아남은 가족은 저하고 저희 막내여동생, 저희 막내삼촌 이 세사람이 살아남았지요. 사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고 나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 ○ 마이클 커비

다들 요덕수용소에 계셨나요. 할머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동생도 있었고 아까 막내삼촌도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다들 요덕수용소에 계셨나요. 그러면 만나셨나요, 수용소에 있을 때.

### ○ 강철환

그 수용소는 이제 가족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인 할아버지는 다른 수용소에 끌려갔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 요덕수용소의 같은 마을에 같은 집에 이제 수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덕수용소는,

###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슨 죄목이었지요.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죄목이 무엇이었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수용소로 끌려가신 걸로 되어 있었지요.

### ○ 강철환

북한은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그게 옛날의 봉건주의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 손자까지 처벌받게 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아무 죄도 없고,

### ○ 마이클 커비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북한은.

### ○ 강철환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정권의 이 시스템이라는 게 소위 히틀러의 나치와 유사한 소위 반대파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을 잡아서,

### ○ 마이클 커비

그런데 나치조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조부모가 잘못했다고 손자들까지 처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선생님은 사실 교포는 아니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국분이셨다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국분이었다가

일본에 가셨다가 일본에 가셨다가 부자셨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고 또 돈도 기부를 많이 했고, 북한정부에다가. 또 북한 당에 그래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본국적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 강철환

아닙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아까 그 일본인 마을이라고 했나요, 재일교포 마을이라고 했나요. 거기 들어간 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덕에.

○ 강철환

수용소 안에 그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저희가 10번 마을에 있었는데 그 10번 마을이 가장 마지막에 생긴 마을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정치범들을 잡아올 때 제1번이 6.25전쟁 때 좀 국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뭐 치안대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잡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김일성의 어떤 절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대거 이제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일교포들이 좀 끌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재일교포들이 끌려오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

았기 때문에 대거 이제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소위 일본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문화와 시스템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를 시킨 겁니다. 이것은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야쿠자 같은 것들,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문화에 의해서, 일본의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한국이 마치 자본주의에 의해서 오염된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강철환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런 측면과 함께 그 조총련 조직 내에서 어떤 그 권력 갈등에 의해서 조총련 지휘부가 그 당시 의장이었던 한독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반대했던 그 상당수의 고위간부들을 북한에 보내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가게 만들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희한테 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 안 줬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 마이클 커비

할머니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



이 있나요. 권력의 이러한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지 그리고 체제에 그렇게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또 엘리트로서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압을 받은 그런 이중적인 면을 보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나요.

### ○ 강철환

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워낙에 골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북한에 갔지만 이제 그 신념을 꺾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북한에 가서 왜 우리를 거기에 끌고 갔냐 이렇게 항의를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잘 못산다고 해서 우리도 공산주의인 걸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골수 공산당이었지만 남편이 이제 수용소 끌려갔고 또 이제 손자, 아들까지 다 이제 수용소에 끌려오니까 그때 이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생각했던 공산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사는 뭐 이런 사회였지만 북한의 공산주의는 김일성 개인만 잘 사는 나라다. 그 개인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2천 3백만이 노예가 되는,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어떤 사이비 봉건 교주국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가 평생을 잘못 선택해서 가족한테 이제 이렇게 해, 이렇게 잘못하게 해서

상당히 미안해했죠, 저희한테.

###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형을 구형받았는데 10년형이 요덕에서 14년인지, 10년형으로 감금될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긴 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짧은 형을 받았습니까.

### ○ 강철환

그러니까 저희하고 유사했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활동했던 그 조총련 교토지부의 위원장, 부위원장, 뭐 청년위원장 이런 간부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10년 이상 저희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3년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5년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7년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형을 어떻게 받았고 몇 년이라고 찍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오는 독신 죄인들은 그 정치범 가운데에서도 가장 경미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형기를 알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죄가 더 크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요덕으로 안 오고 더 이제 심각한 수용소로 이제 가게

됐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몇 년형을 받았는지 그 재판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  
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덕수용소에 끌  
려온 가족들 다 똑같아요.

○ 마이클 커비

선생님 가족은, 선생님은 10년 있었지요, 요덕  
에.

○ 강철환

예.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의 가족은 얼마나 있었나요, 요덕수용  
소에.

○ 강철환

저도 같이 있었지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요덕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각자 따로 나왔나요.

○ 강철환

그 가족과 함께 같이 끌려갔었고 같은 집에서  
10년을 살았고 10년 만에 같이 나온 거죠.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정치적인 혹은 혁명에 관한 교  
육을, 사상교육을 그때 받았나요. 그래서 선생님  
을 전향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나요. 북한  
당국이 그랬나요.

○ 강철환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서도 완전 통제구역은  
이제 그런 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저희 혁명화구역은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과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혁명교  
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게 뭐 교양되는 건  
아니었고요. 더 이제 그 정권에 반발하게 되었고  
그 정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그렇게 교화교육을 받으면서 점차적으  
로 그 교화내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아니  
면 하나씩 부정을 하고 거부하고 비판적으로 들  
어섰나요.

○ 강철환

이제 저희가 뭐 어릴 때 갔기 때문에 저희 또  
래의 많은 아이들이 죄를 지은 자기, 나 같은 경  
우는 할아버지 또 다수는 아버지가 이제 왜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를 굉장히 이제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이제 대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어떤 아버지들은 죄를 짓고 같이 수용소에 같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 같이 끌려왔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제 굶겨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의 인륜이 아주 말살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소위 이 정권에 왜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굉장히 분노했었고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용소에서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의식변화가 왔습니다. 아, 이거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수용소에는 몇 살에 들어갔고 몇 살에 나왔습니까.

### ○ 강철환

제가 이제 19살에, 아니, 9살에 들어갔다가 19살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왔지요.

###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에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9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가에 대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었던 나이는 아니었군요. 왜냐면 저는 선생님이 결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할아버지 때문에 그 수용소에 갇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 강철환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 수용소에 끌려온 많은 아이들이 죄가 없지요. 뭐 9살 나이에 무슨,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이제,

### ○ 마이클 커비

수용소 안에서는 어떤 벌을 주던가요. 그러니까 배급을 주었나요, 아니면 식량상태는 어땠나요.

### ○ 강철환

그때 당시는 이제 북한체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용소도 이렇게 뭐 양호한 때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범들에게는 그 옥수수 한 줌 이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소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한 달분씩 이제 배급을 주는데 그 한 보름만 먹으면 이제 보름은 없지요, 식량이.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풀을 뜯어서 거기에 섞어서 죽을 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그 수용소에서 받는 식량을 먹고 3개월이 지나면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짐승들 예를 들면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개구리 이런 것들, 지렁이가

지 파먹고 심지어는 벌레까지 잡아먹게 되지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양보충이 되면 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용소에 끌려가서 3개월 안에 그 생사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죽으면 다 거의 죽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제 3년을 견디게 되고 또 3년을 견디면 이제 10년을 견디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이 3개월 안에 영양실조가 와서 이제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이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영양실조가 와서 거의 사망까지 갈 뻔했는데 저희 주변의 우리 동료, 조그마한 아이들이 먼저 와있던 아이들이 밭에 나가서 쥐를 잡아와서 이제 그걸 구워먹은 걸 얻어먹으면서 이제 겨우 살아나게 됐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존을 하게 되면 버틸 수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노동당 간부를 했거나 좀 잘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에 와서 처음에 그런 쥐 같은 것들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트들, 그러니까 뭐 배운 학자들, 뭐 고위 간부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죽고 비교적 사회, 바깥세상에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조금 낫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막 주서 먹고 다니니까 조금 생존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나마.

###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요덕에서 풀려나왔고 그다음에는 놀랍게도 한국노래도 배웠습니다. 한국노래를 부르다든지 그러한 행동을 하면 요덕으로 다시 끌려가거나 아니면 더 가혹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위험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 ○ 강철환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한사회가 상당히 배급도 잘 췌고 그리고 안정됐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 끌려왔던 상당수 엘리트들, 저희 또래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가운데는 해외로 유학 갔다가 외국여자랑 연애했다고 끌려온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탈출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대거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아버지들이 하도 고위층이다 보니까 다시 석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당히 그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모한 짓이었고 그런 활동 때문에 저희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상당수가 희생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험은 했지만 제 나이가 그때 20살이었고 항상 그 체제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뜻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동참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뭐 수용소에

다시 가거나 내가 뭐 처형장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지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각오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다고 봅니다.

### ○ 마이클 커피

동료들과 실제로 탈북을 언제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요덕에서 나와서 얼마가 지난 이후에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까.

### ○ 강철환

제가 87년도에 나와서 한 2년, 3년 지나면서 사회에 눈을 뜨게 됐고. 또 수용소에서 함께 나온 애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아주 이제 의식적으로 굉장히 깨어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클잭슨 이런 것들도 테이프에다 녹음해가지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남한방송을 매일 청취하면서 북한정권의 모순을 파악을 했고.

### ○ 마이클 커피

1990년대에 마이클잭슨이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당시 소년이였습니까? 아, 왼쪽에 제 동료가 더 잘 알고 있군요. 예,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마이클잭슨의 노래도 녹음을 했고 한국 라디오에도 나오나요?

### ○ 강철환

마이클잭슨에 대한 노래는 녹음한 거는 아니고요, 해외유학 나갔다가 배웠던 애들이 와서 이제 노래 흥얼거리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주로 배웠던 것은 남한노래를 주로 배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평양에서 클래식이 유행해가지고 일부 클래식들은 북한이 허용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부들한테 받아서 젊은 엘리트들이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었고 주로 배운 노래가 한국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들어 보니까 남쪽에서 이제 그 저항정신이 담긴 노래들 예를 들면 아침이슬 같은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북한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재 권력과 싸우는 그런 마인드는 다 비슷한가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 ○ 마이클 커피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도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뱀이라든지 쥐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나서 요덕에서 나온 지 얼마 후에 탈북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 했나요, 중국으로 먼저 가셨나요.

## ○ 강철환

저희가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보위부가 조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친구가 잡혀갔는데 그 친구가 리영모라고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아버지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교육부 부부장을 했습니다. 교육을 총괄했던, 그런데 이제 김정일 후계구도 갈 때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고 평생을 같이 하려고 했던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체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보위부에 끌려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호출이 안하는 것 보니까 그 모진고문에도 저를 불지 않았구나,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지만 언젠가는 위험하다해서 체포되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도망가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날까지 양강도 혜산이라고 하는 국경도시까지 모이자 했는데 안혁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같이 떨어졌는데 저희만 같이 도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다 체포가 됐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활동했던 다수의 저희 친구들이 보위부에 다 체포가 돼서 일부는 뭐 처형된 친구도 있고 수용소에 끌려간 친

구도 있고 또 고문과정에서 죽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의 다 희생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산이라는 도시에 와서 강을 지키는 경비대군인들에게 담배와 술, 이것을 뇌물로 주고 밤 새벽 2시에 강을 건넜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현재 조선족에게 다시 또 돈을 쥐서 이 친구를 안내자로 앞세워서 연결로 갔고 거기서 심양 갔다가 대련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한국에는 그럼 언제 입국하셨습니다.

## ○ 강철환

제가 92년 8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입국한 이후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 ○ 강철환

입국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지요. 제가 수용소 얘기를 하니까 한국정부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저희 집도 나와 있고 거기 군사좌표로 쓰이는 왕소나무라고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딱 표시가 되어 있고 엄청

놀랐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이제 수용소의 위치 이 건물은 뭐고, 이 건물은 뭐고 이거를 다 확인을 하니까 한국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아, 수용소가 맞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폭로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요. 한국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89년도에 평양을 방문했던 임수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지요. 그 친구가 왔을 때 저희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이제 신선한 충격이 됐기 때문에 아, 애네들하고 같이 우리가 좀 가서 협력을 하면 북한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 찾아가보니까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민족반역자라고 저한테 몰아붙여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을 배반한 적이 없다,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사는 고향마을을 배반한 적은 없지만,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은 내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배반 아니다 그거는.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는 조국이라는 게 북한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 애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 ○ 마이클 커비

임수경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자유로운 그런 한 상태에서 평양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임수경은 북한에 갈 수 있었지요.

## ○ 강철환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갔지요. 정부는 허락 안 했지만 아마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갔지만 북한정권은 그때 굉장한 환호를 했지요. 대우도 해주고 그때 이제 죽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임수경과 포옹도 해주고, 뭐 그거는 그거고요. 저희는 이제 임수경의 보이는 모습들 예를 들면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일본산 맥주가 상당히 비싸고 고급이었고 정말 먹기 힘든, 우리가 1년 벌어도 맥주 한캔 먹기 힘든데 임수경이 와가지고 한국산 맥주를 왜 안먹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아, 이게 남한청년들이 참 자유롭고 재미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남쪽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지요. 그래서 저는 임수경씨 계기로 제가 남한방송을 듣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 와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북한인민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북한정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진정

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 ○ 마이클 커비

임수경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 ○ 강철환

왔지요, 돌아와서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생활도 했지요.

### ○ 마이클 커비

자, 이제는 몇 가지 좀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선생님과 선생님가족이 요덕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북한체제에 대한 그러한 선생님의 생각인데요.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선생님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 강철환

저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아니고요, 햇볕정책의 수단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97년도에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후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탈북자 몇 분이 같이 만났지요. 저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후보에게 당신도 그 당시에 군사정권하에서 죽을 뻔

도 했었고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또 저는 수용소 생활도 했고 현재 지금 북한에 20만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되시면 북한의 수용소 문제를 해결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대중 후보가 저한테 하는 말이야, 그 수용소문제 자기가 꼭 하겠다, 저는 그때 김대중 후보의 선거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김대중 후보에게 부정적이었던 탈북자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후보가 되면 상당히 인권문제 해결될 것 같다. 저는 그때 당시 탈북자들이 저한테 재가 좀 돌아왔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그런데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그분 일부러 계속 지켜봤는데 북한인권이라는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권이 끝난 이후에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때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북한의 그 식량권을 해결해줌으로 인해서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 식량권을 해결했다는 것도 사실상 저는 거짓말이었고 우리가 이제 우리단체에서 탈북자 300명 그러니까 200명인가요, 2, 300명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는 이제 30여명의 최고고위층탈북자까지 포함을 해서.

###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 잠시만요. 저희가 황, 황 선생



님께서, 황 선생님이 하시는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황 선생님께서,

### ○ 강철환

예, 앞전에 들어봤습니다.

### ○ 마이클 커비

황 선생님께서는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국제사회가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무고한 북한주민들에게 긴급구호, 식량구호를 해야 된다고 그러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죠. 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북한주민들은 도와야겠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경우에 기반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강철환

예.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뭐 친척도 없고 사실은 가슴아파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직계친척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의 저희 친척들이 북한에 살고 있고 또 여기 한국에 정착한 한 2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은 대다수가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반대한다. 왜 반대를 하나. 북한사람들의 생존권은

남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 북한정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중국에서 마오쩌둥과 그 시대 때 그 대약진 운동을 해서 2천만 명의 농민들이 굶어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황폐화된 중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밖에 없었다. 그래서 덩소핑이 개혁개방 했지요. 그래서 82년도에 덩샤오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너네가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안 했, 안 했죠. 이걸 왜냐하면 북한 전체 인구의 한 3~40%가 되는 농민들에게 개인농을 허락하면 전체 주민의 3~40%가 자유화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체제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때문에 개혁개방을 거부했고 그런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94년부터 북한 전 지역에서 배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중단될 때 배급을 못 주게 되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굶어죽었어요. 정말로 이제 불쌍한 사람들, 아까 뭐 먼저 아까 얘기했던 분이 뭐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근거에 해당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북한의 그 모든 마을들을 제가 신문사에서 제가 기자생활 할 때 조사

를 해보니까 그 마을의 10분의 1이 다 굶어죽었습니다. 이거는 2만 5천 명의 탈북자들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저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굶어죽었다. 그때 이웃나라 중국이 굶어죽는 거 뵈히 보면서도 쌀 한 톨 주지 않았습니다. 죽게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까지 해서 북한이 망할 때까지 가야 이 정권은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97년도, 98년도 때 그 소위 그 고위층으로 탈북하신 그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북한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망하는 것을 안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도주의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정권 자체가 인도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자면 인도주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목적이 인도주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주자는 것이지요.

### ○ 마이클 커비

북한정권이, 북한정부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들 그리고 요덕에서의 옛 생활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증언들이 위증이다. 북한정부와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위증이고 이렇게 유엔과 관련된 조사위원회

에게 이렇게 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 강철환

그게 사실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하고 김정은이를, 김정은은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세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은 그건 봉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을 배반한 그 집단은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나라 인민들의 배급도 못 쥐가지고 300만 씩이나 굶어죽게 한 정권이 무슨 할 말 있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국민들에게 밥이나 제대로 멕이고 그런 얘기를 하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 마이클 커비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 그게 북한정부가 하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오늘 해 주신 내용들이 진실 된 내용임을 주장하시는 가요.

### ○ 강철환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요덕수용소 보자 이

거지요. 실제 수용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탈북자가 주장하는 뭐 개천, 회령 그리고 뭐 청진 곳곳에 위치한 그 교화소들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보여주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애당초 북한에 들여놓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수용소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말로 없다고 하면 그게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었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위증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정권 자체가 이제 거짓말 정권이고 워낙 사기꾼, 사기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다 무슨 뭐 나쁘고, 무슨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정권이 거짓말을 안 한 게 뭐있습니까. 핵도 뭐 만든 적 없다고 했는데 핵 만들었지요. 미사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북한정권이 한 행동 중에서 진실 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 뭐 탈북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위증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말을 하려면 스스로 그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제 동료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마루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 근무하고 계신지요. 현재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의 정치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치수용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여기에 이런 정치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속해있는 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 이 정치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지요.

### ○ 강철환

그 사실 이제 북한 그 인권문제라는 것이 물론 이제 수용소가 가장 이제 열악하고 거기에 이제 반인도 범죄의 현장과 같은 곳이지만 수용소 외에도 이제 그 인권유린 실태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수용소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사실은 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제 어떤 이념이나 뭐 그런 성향에 따라서 보수, 진보가 나뉘어지는데 저는 이제 원래 보통 공산국가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이 더 인권문제에 열을 올리고 인권문제에 상당히 이제 강경한데, 한국진보는 상당히 그 반대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북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정권에게 뭔가 잘못 잡힌 게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우리 그 조사하고 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살아보니까 북한의 그 대남 정보기관들,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참 일을 많이 했구나, 대한민국에다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로동당 간부들이 남쪽에 가면 우리 편이 참 많다. 이런 말을 막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 와보니까 정말 제정신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이제 타의적 반이겠지만 북한정권이 공작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 집요하고 잘못된 이념, 그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의 진보사회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수용소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거냐. 그런 말이 여기서 왜 나오니까. 아니, 뭐 수용소 문제 나오면 전쟁합니까, 여기서. 아니잖아요. 북한에 수용소가 해체가 돼야 전쟁이 안 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수용소 얘기하게 되면 전쟁하자는 거로 얘기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권문제 얘기하는 것이 강경하다 그러는데 이게 강경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수용소 해체하라. 이거는 강경한 얘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문제를 북한정권이 거

론하고 이것을 식량지원과 연계해서 식량지원을 하는 대가로 어느 수용소를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아예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언제 그런 말을 해보고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진보는 뭐 참 좋아하지만 이제 그, 물론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는 과정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 됐지만 이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에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그 망하는 정권을 안 망하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북한 내부에 있는 반체제자들, 그 북한정권이 붕괴되거나 변화되기를 원하는 다수의 북한인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화가 나겠습니까, 남쪽의 잘못된 소위 그 종북이나 뭐 진보주의자들 이런 데에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수용소 문제가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 홍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는. 인권문제를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2003년도에 그 UN인권위에서 그 UN에서 그 북한 인권문제 전부 상정했을 때 한국정부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그거 기권했죠, 기권. 아  
니, 어떻게 그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인권을 기  
권 합니까, 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  
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요  
인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도 안 믿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이념적으로 상당  
히 이제 찌들어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포기하고  
좀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진짜 진실을, 뭐 북한을 뭐 붕괴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그  
참상,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런 교육  
활동을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걸 알리는 게 그게 이제 아마 최선  
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마이클 커비

예, 선생님. 저희 공청회에서 저희가 증언을  
듣는 마지막 증인이십니다. 저희가 물론 다른 분  
들과도 계속 연락을 할 거고 또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저희가 며칠간 더 머  
물게 되겠습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의 언  
론이 공청회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 실망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내용  
들을 저희가 이제 듣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에서 많이 와서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제사회에 대한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가 북한정부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목소리를  
진실 되게 그리고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뿐  
만 아니라 모든 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무국 쪽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여분 이상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50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또 별  
도로 면접을 한 분들까지 해서 50분을 지금 만났  
는데 저희가 출국하기에 앞서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도  
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열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공청회에 주  
신 모든 도움, 도움을 주신 모든 도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주신  
도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써, 지금 보니까 에어컨도 꺼졌네  
요. 이게 뭐 북한에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별로 참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남아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아서 저희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공청회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임무와 관련된 일들에 경청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저희 공청회가 얼마나 투명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일본에 가게 될 것이고요. 일본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태국에도 갈 것이고요. 또 영국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9. 16. 저희 공청회 조사결과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쪽에 구두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 28.에는 모든 대표들을, 여기 계신 모든 동료들 대표해서 제가 UN총회에서 또 구두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공청회의 보고는 인권위원회에 아무리 늦어도 2014. 3.까지 제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고서를 2013.말까지는 완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보고서가 UN 공식 언어들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외에도, 이러한 보고서 작업은요. 저희가 들은 그 증언만큼이나 정확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서에 그 구두증언을 했던 동영상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보고서를 낼 때는 국제사회는 한국분들이 직접 하는 말들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인권이사회 의장께 요청을 드렸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들이 포함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저희 증언을 들은 그 내용들이, 그 Transcript이 온라인에 올라가서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진정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답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좀 더 인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답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통역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역사 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통역사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신 통역사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역사분 중에 한 분은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로 장관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래서 통역사 분들께서 아주 훌륭하게 도움을 주셨고 또 뉘앙스도 잘 전달이 되고 또 아주 빠르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

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장관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쪽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외교부께서 통역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업무에 전혀 관여는 하지 않으면서 그 Logistics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의 마지막 증인께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의 폐회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바로 2013. 8. 24.로서 공청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